



1

1995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5. 1호

(루계 567)



◆◆◆◆◆◆◆◆◆◆

차 례

◆◆◆◆◆◆◆◆◆◆

뜻깊은 올해를 당이 바라는 혁명적작품창작으로 더욱 빛내이자	4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6
락원의 등잔불	7
뜨거운 축원	8
영원한 우리의 노래	9
인민군장병들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훌륭히 형상하였다고 하시며	10
찬사의 노래	11
정일봉의 불로초	12
백로를 바라보며	16
명령만 내리시라	17
살아계시다	18
명제해설	29
우리 마음속에 오시여 (외 1 편).....	30
영원한 그 믿음 안고.....	31
우리의 앞길	32
김일성동지는 영생하십니다	33
흰연기 (외 1 편).....	34
오늘도 래일도 먼 후날에도	35

대민족	36
조국의 수호자, 승리의 창조자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품위있게 형상한 불멸의 화폭	48
기다리는 마음	53
비료의 무게	53
단군출정기	54
더 높은 정치적자각을 안고	63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계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형상을!.....	63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소설을!	64
성스러운 시대에 남기는 자욱.....	64
위대한 수령, 위대한 인민을 형상하도록 고무하는 필봉을 높이 들겠다.....	65
나의 집	66
두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	67
홍남, 그 이름 지녀	73
첫날신발	74
종구나 그 마음 그 모습	75
준엄한 전화의 나날 이 땅에 울려퍼진 삶의 노래.....	76
정문환영	79
그날은 오리라.....	80

뜻깊은 올해를 당이 바라는 혁명적작품창작으로 더욱 빛내이자

피눈물속에 1994년을 보내고 우리 조국력사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아로새기게 될 새해 1995년을 맞으며 《로동신문》, 신문 《조선인민군》, 《로동청년》은 공동사설을 발표하였다.

위대한 우리 당의 의도와 구상이 구현되어있는 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에는 올해 우리 혁명앞에 나서고있는 투쟁목표와 과업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지난해 1994년은 인류가 낳은 가장 위대한 혁명가, 가장 위대한 인간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비애로 우리 겨레와 온 행성이 호곡하고 몸부림친 참으로 비통한 한해였다.

온 강산과 지구촌에 차고넘친 이 슬픔과 괴로움은 천만군민의 무거운 우리 작가들의 가슴을 내려눌렀으며 원고지는 피눈물로 얼룩지였다.

태양이 꺼지고 지구가 깨어지는듯한 력사의 시각에 우리 인민에게 신념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신분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였다.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는 신념의 구호를 제시하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어버이수령님께서 한생을 바쳐오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또한 사회주의사상을 집대성하고 완성한 불멸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시여 우리 인민과 세계의 진보적인류앞에 혁명의 기치, 승리의 기치를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의 세심하고 정력적인 지도밑에 우리 작가들은 지난해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크나큰 슬픔속에서도 수많은 충성의 문학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주체문학의 강화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언제나 당에 충실하였으며 당의 영원한 동행자의 영예를 빛내여온 우리 작가들앞에는 오늘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투쟁으로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혁명적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가져와야 할 무겁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순결하게 계승하며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며

확고부동한 혁명적의지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어나가는것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영예로운 혁명임무이다.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주의 내 나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한 민족의 어버이로 모신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는것은 오늘 우리 당과 인민의 두어깨에 지워진 력사적사명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로서 끝까지 지켜야 할 숭고한 도덕적의리이다.

수령님의 전사들인 우리 작가들은 시대와 혁명이 제기하는 이 절박한 문제에 예술적해답을 주는 혁명적작품창작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올해는 조선로동당창건 50돐과 조국해방 5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우리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당의 창건자이시고 우리 민족의 해방의 은인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억센 기상을 그에 상응하는 폭과 깊이를 가지고 진실하게 보여주는 혁명적작품창작에 깊은 창조적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문학이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있는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의 혁명철학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인 일심단결! 일심단결의 위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필생의 좌우명으로 간직하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빛나게 이어오시는 **《인민위전》** 사상의 위력, 위대한 생활력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령도자가 지닌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 위대한 령도자가 베푸는 인덕정치, 광복정치의 생활력을 생동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진실하게 그리는 문제이다.

위대한 령도자가 지닌 이 사랑과 믿음의 철학을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탐구할수록 일심단결의 위력은 더 깊이 형상적으로 밝힐수 있으며 작품의 사상적깊이와 폭, 그 감화력을 보장할수 있다.

혁명적경제전략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우리 인민이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이루어지고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 작가들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경제전략관철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고무하는 작품창작에 계속 큰힘을 넣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작가들은 농업과 경공업, 대외무역을 비롯하여 전력, 석탄, 철도운수 등 선행공업부문과 금속공업부문 로동계급과 일군들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작품창작을 왕성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자체의 힘으로 군내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군소재지와 농촌마을들을 알뜰히 꾸리는데서 이룩한 경험과 성과들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는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내 나라, 내 조국을 더 부강하게 할데 대한 우리 당의 의도를 빛나게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전국에 일반화된 《정춘실운동》과 맹산군의 경험은 이 주제분야 작품창작에 귀중하고 풍부한 종자들을 수많이 제공하여주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이 주제분야작품을 더 왕성하게 창작함으로써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당의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적극 복무하여야 한다. 당의 구상을 꽃피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 부강하게 하기 위해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성격을 그리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지닌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다.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이 우리 식 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책동을 강화하고있는 오늘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끝까지 고수하고 이 땅위에 더욱 부강한 조국을 건설할수 있는 방도는 오직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밖에 없다.

우리 작가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영웅적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전형적성격을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심어주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우리 식의 혁명방법대로 일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당이 제시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받들고 진짜배기충신,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영웅적위훈으로 불러일으키는 혁명의 지휘성원, 지도일군들의 성격창조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창작적 자세와 립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당의 전도와 혁명의 운명은 당의 후비대이며 혁명의 계승자인 새 세대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청년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청년들의 투쟁과 생활세계를 깊이 탐구하며 우리 시대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형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우리 작가들이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특질인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의 관계속에서 깊이있게 형상하며 사춘기, 소년기, 유년기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는 작품들을 더 활발하게 창작해야 한다.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혁명의 무기를 놓을수 없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우리 당의 기본군사로 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혁명무력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군사물창조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또한 온 사회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를 튼튼히 다지며 전통적인 군민일치의 미풍이 차넘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작품창작에서도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

새해 1995년은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열된지 50년이 되는 해이며 현세기안으로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이다.

조국통일주제작품창작에서 원칙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밝혀주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의 정당성, 생활력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는것이다.

남녘땅 투사들의 성격창조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그들의 성격속에 통일운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해결하는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구현하는 문제이다.

우리 작가들은 올해에 조국통일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민족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1990년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깊이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해이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우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과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는 한 주체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삶의 태양으로, 운명의 수호자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답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전사답게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민병준

해 뜨는 아침에도
간절한 생각
달 뜨는 저녁에도
간절한 생각

낮은 낮마다
밤은 밤마다
다시금 일어나실 기적을 바라며
수령님 생각으로 맞이한 새해입니다

백두산이 통곡하고
산천초목이 몸부림치고
피갈은 눈물에 우주도 길 잃어
행성들이 부딪치던 지난해

가실수 없는 슬픔
보상 못할 큰 손실로
오열을 터뜨리는 인민의 곡성에
하늘도 울고울어 세찬 비눈물...

아, 아이들이 새옷을 입으면
새옷을 끌어보며
아들딸들이 대학생이 되면
그것이 대견해

개학종소리 울리는 학교문앞
꽃물결 흐르는 거리에 서서
그리움에 젖어
고마움에 젖어
수령님을 부르는 인민의 목소리가
날마다 더 높아진 나날입니다

하루일의 시작도
하루일의 총화도
수령님께 아뢰고 보고드리며
수령님 유훈대로 발전기를 돌리고
비날론을 쏘아낸 인민입니다

오직
우리의 **김정일**동지를 우러러 새 힘을 얻고
분연히 일떠선 우리 인민이기에
추모의 목갈린 기적을 올리던

전기기관차들이 불변궤도를 따라

질풍같이 내달리었고
자주의 항로에
무역제일주의의 배고동소리 높이며
투쟁과 전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응석받이 아이들은
일찍 철이 들고
청춘들은 씩씩한
나라의 기둥으로 자랐습니다

머리 들면
저기 공장구내길로 다시 오실것 같아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우릴 불러주시며
정녕 오실것만 같아
간절히 우려했던 평양하늘
발돋움해 바라보던 큰길입니다

바라보면
이 땅 그 어디에나 어려있는
수령님의 환한 미소
그 어디에서나 울려오는
친근한 그 음성

잠시도 잠시도 잊을수 없습니다
한평생 인민 위해 마음쓰시며
성스러운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오직 인민만을 위해주시다가
그리고 일찍 가신
우리 수령님

간고한 혁명의 수천만리길에서
부모형제 일가친척
친혈육들은 다 잃으시면서도
인민만은 얻으신 우리 아버지
세상에서 인민과 제일 가까우신분을
우리 어찌 순간인들 잊으오리까

등가죽을 벗기는 자본의 채찍
사지를 도륙내는 침략의 칼날밑에
마소처럼 천대받던 우리 인민을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로 싸안아
궁지높은 삶을 누리는 억만재부의 주인으로
인간존엄의 극치
자주의 상상봉에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

찬란합니다
 하나로 숨쉬는 우리 당 대오의 숨결과
 창공높이 휘날리는 공화국기의 퍼덕임에
 무적의 강군 혁명무력의 행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락원속에
 수령님의 혁명위업은 찬란합니다

수령님 우러르는 우리의 마음속에
 꿈결에도 그리는 인민의 심장속에
 높이높이 솟아오른 위대한 태양
 그이는 오직 한분 **김정일**동지!

음성도 모습도
 사상도 의지도
 어버이수령님과 그리도 같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이시기에

높이 모시립니다
 어버이수령님 모시던 그 마음으로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김정일장군님을 모시립니다

온 겨레가 얼싸안을 통일의 광장
 세계자주화의 만발한 꽃동산에
김정일장군님 높이 모실 때
 태양의 위업은 대를 이어 빛나고

무궁한 세월
 끝없이 번영하는 주체조국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영원히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락원의 등잔불

리 용

거창하게 숨쉬는 락원땅에
 오늘도 놓여있는 작은 등잔
 그날의 열명당원들 불심지를 둔구던
 수수한 등잔

세월의 그슬음이 두텁게 앉은 등피
 신포향 주철직장 하늘가에
 타오른 불노을이 그 등피우에
 한가닥 추억의 빛을 엮어주는가

아, 포연서린 어버이수령님 옷자락
 삼가 그밤에 붉게 물들이던 불이어
 젖어드는 너당원의 눈굽에
 들먹이는 열명가슴에 어리광치던 불이어

이 나라 로동계급의 불굴의 녀을 보여주며
 타오르던 등잔불
 저 등잔불처럼 타는 열명당원들 눈빛에서
 수령님 얼마나 큰힘을 얻으셨던가

저 등잔심지 한번 둔구고 일어서면
 싸늘해가던 용선로에 화기가 돌고
 저 등잔아래 신발끈 조이고 일어서면

서리불린 주형틀우에 불몽치가 올랐거니

한자 또 한자 수령님 말씀 새기며
 불같이 다진 그날의 맹세
 당세포회의록에 적어가던 그 손으로
 또한번 등잔심지 둔굴 때
 당원들 가슴엔 신념이 뚫고
 용선로엔 쇠물이 뚫었다

불이어, 어려운 날에 우리 당을 받들어
 불처럼 살던 열명당원들의 뜨거운 심장이여
 꺼버릴수 없다 그 어떤 광풍도
 우리 당을 받들어
 밤을 모르는 혁명의 수호자들이
 철의 의지로 지펴가는 심장의 불

이 불로 우리 당을 받들어왔고
 우리 당은 이 불에서 승리를 내다보았어라
 아, 락원의 등잔불
 열명당원들 불심지를 둔군 한점의 불은
 위대한 우리 당 력사의 한페지를 물들이며
 충성의 천만해불이 되어
 오늘도 이 강산에 타오르고있어라

뜨거운 축원

차영도

해마다
설날이 오면
어버이수령님 그리도 밝은 미소로
인민을 마주해주시고
온 나라를 마주해주시더니

아, 그 행복 그 기쁨을
길이길이 누리라고
태양같이 웃어주시는 수령님 영상
새해의 해님처럼
온 강산, 온 천지에
가득히도 어린 아침입니다

아이들은 그날처럼
가장 행복한 웃음을 안고
설맞이 무대에서 노래하고
어른들은 수령님 계시는 만수대언덕으로
어제날과 다름없이 설명절의 꽃을 안고
대하가 되어 바다가 되어 오릅니다

아, 우리의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민의 마음속
그 아픈 상실의 공간을 메워주시기 위해
수령님의 영원한 태양의 모습을
이 땅에 길이 모셔주셨으니

빈곳이 없습니다
마음 쓸쓸한 구석이 없습니다
해썬는 저 하늘도
수령님 계시던 그 해빛밝은 하늘이고
딘고사는 이 땅도
수령님 계시던 그 기쁨 많은 땅입니다

설날이어서
명절이어서
집집엔 예대로 공화국기 내어걸고
거리와 마을들엔
축등이 높이도 걸렸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우울은 더더욱 없습니다

장군님 계시어
어버이수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설날

그저 다만
장군님을 길이 받들어모셔야
김일성대원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심장의 깨달음이
더더욱 사무쳐오는 이해의 설날입니다

한없는 충효의 그 진정을 다해
참다운 령도자의 그 덕망을 다해
공산주의자의 위대한 도덕으로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아버지를 안겨주신
아, **김정일**장군님!

그래서 아이들은
눈물젖은 얼굴에
밝은 웃음을 웃습니다
노래는 맑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일손을 더 힘있게 잡습니다
석탄도 더 많은 석탄을
풍년난알도 더 알찬 난알을
가꾸고 캐여내고 쌓아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해주신
김정일장군님!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니지 못한
가장 위대한 덕망과
고결한 의리로
이 나라의 무궁세월을
영원히 수령님의 해와 달로 이어주신
김정일장군님!

아, 햇빛도 찬란한 새해의 이 아침은
장군님의 그 덕망이 햇빛으로
희망찬 새해의 저 하늘은
장군님의 그 의리의 절정우에
창창히도 열렸습니다

장군님!

고마움에 젖어 뜨거움에 젖어
이 아침 삼가 올리는 인민의 축원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 운명의 전부이시고
우리 조선의 영원한 앞날이시며
우리 인민의 변함없는 **김일성** 동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부디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영원한 우리의 노래

김석천

희망찬 새해의 출근길에서
누구나 신심높이 터치는 노래
-우리는 또다시 승리하리라!

그렇게도 모진 아픔이 실리고
그렇게도 모진 시련이 겹친
94년 그 나날을 생각하노라
생각하며 젖어오는 가슴속에
하늘처럼 비껴오는 승엄한 화폭이여

민족의 아버지를 잃고
앞이 캄캄해 앞이 보이지 않아
무릎 꿇고 땅을 허비던 비운의 날에
누가 우리를 일으켜주었던가

무겁게 드리운 슬픔의 장막을
한몸에 떠이고 일어난 강철의 기둥
천만 손길들이 운명처럼 부여잡고
다시 일어서게 한 그 기둥은
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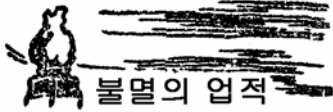
령도자의 두리에 산악같이 뭉쳐
분연히 일떠선 철의 대오앞에
원썩들은 기가 질리고
세상은 경탄의 눈길을 모으고...
알았노라 사무치게 깨달았노라
김정일 그이는
수령님처럼 우리를 이끌어줄 오직 한분
영원한 우리 승리의 기치!

그 엄숙한 진리를 안고
또다시 나가는 새해의 진군길
어찌 모르랴
이해의 날과 달들에도
더 사나운 풍랑이 있을수 있고
더 험난한 진펄도 벼랑도 있을수 있다는것을

그러나 이기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엄혹한 시련속에
백배 더 강해진 불패의 대오
그앞엔 여전히
백승의 령장 **김정일** 동지 서계시거니

단결의 중심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뼈아픈 교훈속에 절감한 심장들이
령도자의 두리에 더 굳게 뭉쳤노라
이 충신의 대오가 발구름 올리면
용해장에선 쇠물이 끓고
전야에선 오곡이 파도치리라
이 무적의 대오가 노도쳐 나가면
분렬의 장벽은 모래처럼 무너지고
제국주의 아성은 거품처럼 흩어지리라

아 해와 해를 이으며
년대와 년대를 넘으며
이 땅에 영원할 승리자의 노래여
김정일 동지를 모신 이 세월은
언제나 이 노래와 함께 굽이치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인민군장병들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훌륭히 형상하였다고 하시며

오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일격필승 강철령장이신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계시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심에 넘쳐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결사옹호보위하는 길에서 총대가 되고 폭탄이 될 철석같은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인민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가장 큰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지금 정세가 매우 긴장하고 우리가 강대한 적과 맞서있으면서도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켜나가는것도 인민군대와 같은 믿음직한 무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며 우리 당이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자기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는것도 일당백의 혁명군대를 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이며 인민군대의 사명은 당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를 운명의 기둥으로, 삶의 태양으로 믿고 따르며 그이를 위하여 한목숨 다 바쳐 싸우려는것은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드림없는 한결같은 신념이다.

세차게 굽이치며 뜨겁게 맥박치는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이러한 사상정신세계를 반영하여 최근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에서는 예술영화 《군인선서》(영화문학 김흥기, 연출 리명수, 촬영 민정식)를 만들어 내놓았다.

1994년 6월중순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을 부르시여 예술영화 《군인선서》가 올라왔으면 곧 보아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에서 만든 《군인선서》를 방금 보았는데 아주 잘 만들어서 만족하다고 거듭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영화는 사상성도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생동한 소재를 가지고 군인생활을 잘 형

상하였다고 하시였다. 그리시면서 군대내에서 군풍을 세우는데도 대단히 좋은 영화라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은 촬영소 책임일군의 마음은 더없는 걱정으로 차고넘쳤다.

영화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무장으로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조국보위초소에 선 군인들이 성스러운 군기앞에서 다진 군인선서를 지켜 군무생활의 첫걸음부터 충성과 위훈을 쫓피워가는 이야기를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예술영화 《군인선서》는 이야기구미새가 아주 좋고 내용도 더없이 좋다고 기뻐하시면서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사실 창작가들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주인공인 부대장 근혁과 여러 등장인물들을 통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총잡은 병사는 신성한 군기앞에서 다진 충성의 군인선서의 참뜻을 어떻게 새겨야 하며 그를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가를 예술적으로 보여주려고 애썼을뿐이다. 그런데 그이께서 이처럼 과분한 평가를 주시니 그 영광을 무어라 다 말할 수가 없었다.

영화의 주인공 근혁이 군사복무의 첫걸음을 때는 신입병사들에게 군인선서의 참뜻을 새겨줌으로써 그들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옹위하는 총폭탄으로 키울것을 결심하는 이야기 그리고 군인선서를 했다고 해서 군인이 되는것이 아니며 신입병사훈련기간에 신발을 든든히 신고 마음속의 장악을 잘 다져넣어야 앞으로 참된 군인이 될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다 창작가들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 창작된것들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들이 하여놓은 이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하시며 그 모든 영예를 창작가들에게 다 돌려주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매 장면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근혁의 딸 윤옥의 형상도 잘되였다고 하시였다. 윤옥이로 말하면 아버지인 근혁으로부터 늘 남편이 총대라면 그의 안해는 멜꾼이 되여야 한다고 교양받아왔던것이다.

하기에 윤옥은 자기를 데리러 온 아버지 근혁

이에게 무기에서 총대와 멜곤은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되는것처럼 남편의 뜻을 지켜 영원히 전사들과 함께 초소를 지켜갈 자신의 심정을 터놓는 것이다.

창작가들은 이 장면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최근에 주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과정에 얻어낸 귀중하고도 생동한 생활 세부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예술영화 《군인선서》, 《젊은 참모장》, 《병사는 모교로 돌아왔다》 세편을 련속하여 보았는데 이야기줄거리가 좋으며 다 미끈하게 만든 영화라고, 대단히 만족하다고 또다시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마음은 더없는 격정으로 높뛰였다.

이 영화들을 만든 창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영화예술론》과 《주체문화론》 그리고 고전적문헌들을 깊이 연구학습하고 창작실천에 구현하는 과정에 의의있는 이야기줄거리와 진실하고 생동한 장면들과 깊이있는 대사들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할수가 있었다.

한동안 사이를 두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영화가 나가면 인민군군인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군인들의 사상교양에 크게 이바지할것이라고, 현정세에 대처하여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자

신께서 대단히 기뻐하고 만족해하신다는것을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전달해주어야 하겠다고 크나큰 믿음을 주시였다.

참으로 영화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결사옹호보위하는 총이 되고 폭탄이 되려는 우리 인민군 군인들의 철의 신념을 훌륭히 형상하고있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우리 인민군군인들사이에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한 생동하고도 진실한 예술적형상을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전달받은 일군들과 창작가들의 마음은 새로운 결의로 차고넘쳤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웨쳤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며 그이를 옹호보위하는 길에서 총대가 되고 폭탄이 될 충신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형상하리라!)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이신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앞에 다진 맹세대로 군무생활을 충효일심으로 꽃피워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더 좋은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리라는 굳은 신념의 맹세를 깊이 다지였다.

본사기자

찬사의 노래

꿀리발리 아다마

나는 당신을 찬양하노라
백두산에 솟아오른 향도의 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나는 당신을 찬양하노라
당신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당신이 쌓아올린 성과들을
당신의 훌륭한 구상은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 위한 위대한 활동을

나는 당신을 찬양하노라
당신의 열렬한 사랑을
인자하신 친절성을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는것은 나의 가장 큰 행복이여라

드높지 않는 충실성과
현명한 령도력을 지니신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

나는 당신을 찬양하노라
커다란 동란이 소용돌이치는 오늘
당신은 우리의 앞길을 밝히는
꺼지지 않는 유일한 등대로 빛나라

변함없는 사상을 지니신 인민의 령도자
나는 찬양하노라
당신의 고상한 풍모를

(필자는 부르끼나파쏘주체사상전국소조
공보서기임)

정일봉의 불로초

불로초라고 하면 버섯의 한 종류인 령지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정일봉의 불로초는 령지가 아니다.

아직 학명도 없고 그 어느 식물사전에도 올라 있지 않는 정일봉의 불로초는 오리나무더부살이를 두고 붙인 이름이다.

언제 누가 붙인 이름인지는 모르나 지금도 량강도지방에 가면 정일봉의 불로초에 대한 말을 흔히 듣게 된다.

정일봉에 있는 오리나무더부살이풀을 왜 불로초라고 부를까?

원래 약용식물인 오리나무더부살이는 고려약재로 쓰이긴 하나 그 약효가 불로초라고 붙일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정일봉의 오리나무더부살이만은 약효가 많아 불로초라고 부르니 그 신비한 효능을 두고 이 지방에서는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해방전에 있던 일이라고 한다.

백두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한 마을에 의원이 살고있었다.

어떻게 되어 이 외진 산골마을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는 모르나 그 의원이 있어 아근의 여러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병이 나면 그에게 찾아가 치료를 받곤하였다.

그의 의술이 높은지 아니면 백두산에서 캔 약초가 효험이 커서인지 의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은 병을 인차 고치곤하였다.

그러자 소문이 이입저입 파다하게 퍼져 몇백리 밖에서도 환자들이 그 외진 산골로 찾아왔다.

정든 고향을 떠나 백두산의 험한 산골짜기에 거적하여 사는 사람들인지라 모두가 찢지게 가난하였으니 인정은 후하고 도리는 밝아 치료를 받으러 올 때마다 빈 손으로 오지 않았다.

귀한 종자답이 아니면 하다못해 감자자루나 닭알꾸레미라도 들고 오곤하였다.

《뭘 이러시우. 빈손으로 오시우다. 이러시면 내가 딱하지 않소.》

의원은 이런 말로 사양은 하였으나 성의로 가져온 물건을 되돌려보낼수는 없었다.

이렇게 되어 의원은 물건이 생기고 돈이 생겨 재산이 점점 불어나게 되었다. 그와 함께 의원 마음속엔 어느덧 점점 물욕이 자라났다.

늘어나는 재산과 함께 물욕도 커진 의원은 나

중에 치료비를 받다못해 환자를 치료해준 다음에는 그를 며칠씩 부려먹기까지 하였다.

명색은 제가 쓸 약초를 캐오라 하였지만 그가 요구하는 량이 엄청나게 많아 환자에겐 큰 부담이 되곤하였다.

그러나 빚진 종이라 치료를 받았으니 의원의 요구대로 하지 않을수 없었다.

캐온 약초들은 모두 백두산의 령기가 어린 귀한 약재여서 그 효험이 매우 컸다.

의원은 남은 약초들을 약장사군에게 매우 비싼 값으로 넘겨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만도 약차하였다.

그러던 어느해 초가을이었다.

의원에게 열서너살 나보이는 한 소년이 찾아왔다.

《의원님, 저의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지난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마저 안계시면 전 어떻게 살아요? 의원님! 앓고있는 저의 아버지에게 약을 지어주세요.》

소년은 의원에게 운신도 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병증세를 자세히 얘기하고나서 애달게 사정하였다.

《선생님! 저의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병을 고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선생님이 명의란 말을 듣고 찾아왔어요. 제발 아버지를 구원해주세요.》

소년이 하는 말을 자초지종 다 듣고난 의원은 그의 오돌차고 다부진 몸집을 보자 저도 모르게 또 욕심이 꿈틀거렸다.

《네 정상이 참 가공하구나. 그러나 걱정말아. 저기 소백산숲속에 가면 이러이러한 약초가 있을터이니 그것을 캐오기만 해라. 그것으로 약을 지어 쓰면 네 아버지 병은 단박에 나을게다. 다른 약은 아무리 써도 효험이 없단다.》

《정말이에요? 선생님!》

《정말 아니구. 그건 틀림이 없는 명약이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그 약초를 꼭 캐오겠어요. 기다려주세요.》

《어서 그래라.》

그날로 소년은 소백산을 향해 떠났다.

의원은 얼마전에 하루 묵어간, 약초를 캐는 어떤 사람에게서 소백산 조천자굴(지금의 백두산밀영 부근)근방에 진귀한 약초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귀가 번쩍 열렸으나 소백산은 너무도 멀고 길이 없는데다가 숲이 무성하여 그런 험지로 제갈 요기는 나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 이 소년이 찾아왔던것이다.

의원은 자기에게 있는 약초로도 소년의 아버지 병에 맞는 약을 지어줄수 있었으나 일부러 그를 산으로 보낸것이였다.

소백산으로 찾아가는 소년은 갖은 고생을 다하였다.

인적이 없으니 길을 물을 사람도 없었고 설사 방향을 안다고 하여도 길이 없었다.

깊은 골짜기와 깎아지른듯한 벼랑을 뚫아 소년은 어림짐작으로 우거진 숲을 헤치면서 가고 또 갔다.

떠난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 밤 소년은 사나운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어느 바위벼랑 밑에서 웅송그린채 허기진 배를 안고 자고있었다.

이때 어디선가 자기를 찾는 소리가 들리였다.

눈을 뜨고 올려다보니 흰 수염이 가슴노리에까지 내리드리운 인자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웃음을 띄우고 내려다보고있었다.

《애야, 어서 일어나거라. 너는 어떻게 여길 왔느냐?》

할아버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너그러운 웃음에 마음이 끌린 소년은 대번에 자기의 속을 터놓았다.

소년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난 할아버지는 손에 든 지팡이로 땅을 툑툑 두드리며 《그렇단말이지?》 하고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것이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애야, 여기는 얼마전에 위인이 내린 성스러운 땅인즉 함부로 밭을 들여놓을데가 아니란다. 그러나 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기에 왔으니 너의 지극한 효성에 감복하지 않을수 없구나.

내 너를 도와주련다. 여기엔 위인의 무병장수에 쓸 세가지 약초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가지를 너에게 주련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들어 허공에 대고 한번 휘저었다.

그러자 어디선가 획하는 바람소리가 나더니 빨간 열매가 다닥다닥 열린 나무가지 하나가 날아와 풀숲에 떨어졌다.

할아버지는 그 열매달린 나무가지를 소년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마가목나무열매란다. 이 열매로 약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쓰면 병이 깨끗이 나을게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어서 가거라. 앞으로 다시 여기에 오지 말아라. 내 말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소년은 땅에 깊숙이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였다.

그런데 절을 하고 머리를 드니 할아버지는 온데 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소년은 밭을 구르며 안타깝게 찾고 또 찾았다.

그러다가 잠을 깨니 그것은 꿈이였다.

몹시 아쉬워하던 소년은 자기의 손에 꿈에서 할아버지가 준 그 마가목나무가지가 그대로 들려있는것을 보고 기쁨을 금치 못했다.

소년은 나는듯이 의원네 집으로 돌아왔다.

의원은 소년에게서 이 모든 사실을 자세히 듣고 입이 헤벌쭉해졌다.

《그러면 그럴것지. 이 나무열매는 하늘이 준것이니 령약이 틀림없겠다. 한알만 먹으면 만병이 나을테니 이 아니 보물이나.》

의원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싶었다.

(소백산에 세가지 진귀한 약초가 있다고 했지. 그 약초를 다 가져와야겠다.)

의원은 이런 생각이 굴뚝같았으나 짐짓 태연한 체하며 《애야, 네가 수고 많았다. 내 이것으로 제격 약을 지어줄테니 아버지에게 가져다드려라.》 하고 말하였다.

의원은 마가목열매를 한알 따서 그것으로 약을 만들어 소년에게 주었다.

여러알로 약을 만들면 그 약효가 더 클것이였으나 의원은 마가목열매가 무척 아까웠던것이였다.

그러나 그 열매가 얼마나 신기하였던지 소년의 아버지는 그 약을 먹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이 사연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원의 의술이 대단히 용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는지 몇달이 지난 이듬해 봄이였다.

의원에게 또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

《선생님, 저의 어머니가 오래동안 자리에 누워 병고에 시달리고계십니다. 선생님의 용한 의술로 일어나게 해주시면 그 은혜를 한생을 다 바쳐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젊은이의 청은 매우 절절하였다.

의원은 또 그 젊은이를 소백산으로 보낼 생각을 하였다. 그는 여직껏 한순간도 소백산의 진귀한 세가지 약초에 대해서 잊은적이 없었던것이였다.

《젊은이, 너무 상심 말게. 내 하라는대로만 하게. 그러면 어머니 병은 영낙없이 나을걸세.》

그러면서 의원은 소백산에 가서 약초를 캐오라고 하였다.

《지난해 가을엔 어린 소년이 가서도 약초를 가

저왔는데 젊은이야 무에 힘들게 있겠나.》

의원은 마지막에 이런 꼬리를 달아 젊은이의 마음에 둔장질을 했다.

젊은이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사경에도 서슴 없이 뛰어들 효자인지라 의원의 이런 둔장질이 아니라도 당장 떠날 기세였다.

젊은이는 갓은 고생을 다하며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소백산에 이르렀다.

그는 두눈에 등불을 켜고 숲속을 살살이 뒤풀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의원이 말하던 진귀한 약초는 보이지 않았다.

머칠을 이렇게 다니다나니 기운이 진해진 젊은이는 어느 바위밑 안침한곳에 앉아 쉬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누가 찾는 소리가 들리기에 눈을 떠보니 흰수염을 가슴노리에까지 내리드리운 할아버지가 자기를 내려다보고있었다.

《어서 일어나게. 그대는 어떻게 여길 왔고?》

할아버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너그러운 웃음에 마음이 끌린 젊은이는 찾아온 사실을 그대로 죄다 말씀드렸다.

젊은이의 말을 다 듣고난 할아버지는

《내 말을 명심해 듣게. 여기는 위인이 내린 성스러운 땅인즉 앞으로는 절대로 발을 들여놓지 말게.

그러나 이번만은 그대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기에 왔으니 내 도와주겠네. 여기엔 위인의 무병장수에 쓸 세가지 약초가 있는데 그중 한가지를 그대에게 주겠으니 어서 가지고 가게.》 하고 말하였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휘두르자 어디선가 만병초 세포기가 날아왔다.

젊은이가 만병초를 받아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고 하니 할아버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젊은이는 할아버지를 안타깝게 찾다가 깨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손에는 만병초 세포기가 들려있었다.

젊은이는 그 만병초를 가지고 의원에게 찾아가 사실대로 말하였다.

의원은 몹시 기뻐하면서 그에게 만병초의 잎 하나로 약을 만들어주었다.

젊은이의 어머니는 그 약을 쓰고 언제 앓았던 가싯게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의원의 용한 의술을 두고 소문은 점점 더 크게 번져갔다.

그러자 의원은 머리를 빼들었고 교만하기가 이를테 없었다.

그와 함께 욕심도 한정없이 커졌다.

소백산의 마지막 세번째 약초마저 제 손에 넣을 마음을 먹은 의원은 얼마후엔 앓는 아들을 봐달라고 찾아온 한 장년을 소백산으로 보내었다.

그런데 한달나마 헤매다가 돌아온 그의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는것이 없었다. 허탕을 친것이였다.

안달이 난 의원은 또 다른 사람을 보냈다.

그 사람 역시 빈 손으로 돌아왔다.

아이, 어른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연방 소백산으로 보냈으나 그들은 소백산의 그 신령스러운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하였다.

(웬일일까?...)

의원은 머리를 긁적거렸다. 아무리 궁리해도 영문을 알수가 없었다.

더욱 이상한것은 의원이 지어준 약들이 점점 효험이 적어지는것이였다. 얼마후엔 아무런 효험도 없어졌다. 찾아오는 환자도 적어지고 흥성거리던 집안은 숨막힐듯 조용했다. 사람들은 의원네 집에 아예 발길도 돌리지 않았다.

의술은 인술이라 하였으니 아마도 마음이 교악해진 의원의 손에 들어갔던 약은 아무리령약이라 하여도 효험이 없어지는것 같았다.

의원은 속이 타 죽을 지경이였다.

얼마 지나 심화병에 걸린 그는 소백산의 세번째령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채 죽고말았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세번째령약이 무엇인지 몰라 퍼그나 궁금해하였다.

그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왜놈들을 때려부시고 나라를 찾아주시였다. 장군님의 슬하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면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즐겨 전하였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이 개명되고 소백수풀이 세상에 널리 소개되자 이 전설은 사람들에게 더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그 신기한 약초를 얻은 꼴이 바로 소백수풀이라고 하였다.

조천자풀근방이라고 한것도 근거가 충분하지만 위인이 내린 성지라고 하니 틀림이 없다고 하였다.

소백수풀을 더 잘 꾸리려고 전국에서 달려온

건설자들은 이 전설에 깊은 뜻을 담았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하늘이 낸 위인이 분명하시다.

하늘도 그이의 만수무강을 위해 소백수풀에령약을 내렸으니 하늘땅이 그이를 받들고있구나.)

건설자들은 이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면서 그 세번째령약에 대해 은근한 호기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한 청년이 갑자기 앓아눕게 되었다.

건설자들을 위해 꾸려놓은 진료소에는 나라에서 좋은 약들과 의료기구들을 보내주어 도시병원 못지 않게 모든 치료조건이 보장되어있었다.

의료일꾼들도 유능한 사람들로 꾸려져있었다.

의사들은 정성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였으나 웬일인지 조금도 차도가 없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만졌다.

여러차례 의논을 거듭하였으나 이렇다 할 처방을 내리지 못하였다.

너무도 안타까와 고려치료를 전문하는 한 의사는 정일봉의 숲속으로 들어갔다.

효험이 많은 백두산의 약초를 캐기 위해서였다.

만병초도 캐고 마가목열매도 딴 그는 여러가지 다른 약초들도 채취하여가지고 돌아오려 할 때였다.

숲속에서 부시력소리가 나더니 난데없이 비록(살진 사슴) 한마리가 나타났다.

그 사슴은 저쪽 바위가 있는쪽으로 가더니 무슨 풀인지 맛있게 뜯어먹는것이였다.

(웁지, 저 풀이 약초가 아닐가? 사슴은 좋은 약초만 뜯어먹는다는데...)

이런 생각이 번쩍 든 의사는 사슴이 수림속으로 사라지자 바위가 있는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무작정 사슴이 뜯어먹던 그런 풀을 한줌이나 뜯었다진료소로 돌아온 그는 자기가 캐온 약초를 가공하여 곧 약을 달이였다.

그 약을 환자에게 먹이니 이게 웬일인가?

죽은듯이 누워있던 그가 얼굴에 화색이 돌고 숨소리가 고르로와지더니 사흘이 되자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그제야 약초를 캐온 그 의사는 사슴이 뜯어먹던 그 풀이 무슨 약초인지 알아볼 생각이 나 정일봉으로 다시 올라갔다.

바위밑에 가서 그 풀을 몇포기 뜯어다가 보니 그것은 오리나무더부살이였다.

이 소문이 건설자들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그 약초가 전설에 나오는 할아버지가 말하던 바로 세번째령약이라고 하였다.

누구도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처럼 신비한 효험이 있을것인가!

언제 누구 입에서 먼저 나왔는지는 모르나 사람들은 그 오리나무더부살이를 정일봉의 불로초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정일봉의 불로초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 지금은 우리 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해외동포들까지도 그 약초를 매우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

오리나무더부살이는 해발 1,500미터가 넘는 백두산과 관모봉 등 우리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자란다고 한다.

고려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약재로 리용하여왔는데 식물체전체를 쪼개는 때인 7월에 뜯어서 말린것을 육종 또는 토종용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일봉에서 자라는 오리나무더부살이가 특별히 약효가 크다고 하니 신기한 일이다.

이고장 사람들은 정일봉의 하늘에 봄우뢰가 일찍 울고 쌍무지개가 자주 서는 등 이상한 자연현상이 이 약초에 신기한 약효를 더해주는 요인으로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위인이 내린 성지에서 자라는 약초는 참으로 효능이 신비스럽기만 하다.

백로를 바라보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은 천기를 타고나신분이시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모시는 결출한 위인이십니다.》

지구가 깨어지는듯한 충격으로 처절하게 터져 나오는 인민의 호곡소리에 화답하듯 말 못하는 새들도 전국각지에 세워진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으로 날아드는 신기한 현상을 펼치였다.

강산도 슬픔에 잠기고 사람들이 가슴치고 땅치며 통곡하던 지난해 애도기간.

특히 남포시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는 무려 50여마리의 백로가 찾아와 7월 16일 저녁 8시부터 17일 새벽 2시까지 6시간동안에 걸쳐 여러마리씩 떼를 지어 10여차례나 그 주위를 규칙적으로 날아들었다.

그날도 동상주변에는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기를 잃은 가슴터지는 비분을 안고 수령님의 인자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그칠새없이 찾아오는 각계층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아버지수령님을 못잊어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수령님의 동상가까이로 날아들었다가 다시 규칙적으로 빙빙 도는 백로들을 눈물속에 하염없이 바라보며 오열을 터뜨리였다.

온몸이 흰 백로는 주로 못과 저수지, 논판과 진펄에서 낮에만 활동하는 우리 나라 여름새이다.

더우기 7월 그때는 한창 번식기여서 밤이면 깊은 산속의 소나무숲에 무리로 모여산다.

그런 백로가 야밤중에 자기의 생존방식을 초월하여 도시중심에 모셔져있는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날아왔으니 어찌 생각이 깊지 않으랴.

《저 하늘의 백로들까지 찾아드는걸 보니 정말 우리 수령님은 하늘이 내신분이시고 회세의 전설적영웅이심을 더욱 절감하게 되누만.》

누구에게라없이 하는 한 로인의 말에 주위사람들은 남포시에 자욱자욱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령도의 나날들을 가슴뜨거이 되새겨보았다.

항일의 나날 어느 한순간도 잊으신적 없으시던 만경대교향집에서 조부모님과 20년만의 상봉도 뒤로 미루시고 제일먼저 강선로동계급을 찾으신 그 사랑으로 정전이 된지 꼭 한주일만에 또다시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시한탄과 불발탄이 그대로 묻혀있는 파괴된 공장의 길아닌 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제강소의 끝에서 끝까지 다 돌아보시였다.

온전한 방 한칸없이 아버지수령님을 바깥에 모셔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한 일군이 의자

를 가져다드리자 그이께서는 《동무들이 다같이 의자에 앉을수 없는데 나만 어떻게 앉겠소.》라고 사양하시며 무너진 벽체우에 스스럼없이 앉으시였다.

로동자들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우리 자체의 힘으로 제강소를 일제때보다 규모가 더 크고 여러가지 규격의 강재를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제강소로 복구개건하여 영웅적조선로동계급의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시위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신 아버지수령님.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로동자들의 땀뻘 얼굴도 식혀주시며 장시간 그들의 생활문제와 생산문제들도 일일이 해결해주시고 하시였고 떠나실 때에는 당은 언제나 강선의 로동계급을 믿는다고, 강선의 로동계급은 당의 부름에 언제나 충실하여온 우리 당의 핵심부대라고, 또 전국의 모범이 되라고 크나큰 믿음과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그후에도 수십여차례의 현지지도를 통하여 로동계급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고 제강소가 나갈 방향까지 가르쳐주시였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이곳 로동계급들은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 빈터우에서 40일만에 쇠물을 뽑았으며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여기 제강소뿐아니라 시안의 공장과 농촌, 어촌들 그리고 학교와 병원, 살림집, 이르는곳마다 우리 수령님의 로고가 깃들지 않은곳이란 없다.

어느해에는 10여일간 시안의 공장과 농장에 머무르시면서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시고 그들의 속마음까지 다 비쳐내시여 그것을 로선과 정책에 담아 위대한 사업체계, 위대한 사업방법을 창조하신 우리 수령님, 때로는 차디찬 눈비를 다 맞으시며 온밤 지새우기도 하시고 지어 만민의 축복을 받으셔야 할 자신의 생신날마저 농장의 포전길을 걸으시며 인민에게 행복만을 안겨주시던 아버지수령님, 수령님 가시는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전설같은 세기적 변혁과 기적이 현실로 꽃피어나고 그 혜택아래 생활은 날로 더 유족해지였다.

하기에 우리 인민에게는 위대한 수령님이 곧 하늘이었으며 마음속엔 오직 우리의 하늘인 그이의 만수무강만을 바라고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가득차있었다. 그런데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인민에게 만복을 안겨주지만 하시고 자신께서는 한순간도 휴식을 모르셨으니 자애로운 아버기를 잃은 만백성의 상실의 아픔 그 무엇으로 보상할수 있으랴.

인민들의 그 슬픔이 온 천하에 넘치는데 천지 만물도 수령님령전에 조의를 표하듯 연방 신기한

현상을 펼치는 것이었다.

하기에 사람들은 어버이수령님 동상주위를 감도는 백로를 바라보며 위대한 수령님은 정녕 천기를 타고나신 절세의 위인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심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예로부터 성인이 별세하면 산천초목도 목놓아 운다고 했거늘.

지난날 식민지반봉건국가였던 이 땅에 인민의 참된 새 력사, 사랑의 력사, 기적과 변혁의 력사를 창조해주신 전설적영웅의 서거가 너무도 절통하여 저 백로들도 무리지어 날아와 수령님동상을 감돌며 껴끼어 우는 것이 아닐까.

6시간동안 몸부림치며 날아에는 50여마리의 백

로들의 모습.

그것은 《이민위천》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조국과 인민 위해 불철주야로 활동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이 나라 인민들의 최대의 슬픔, 동서고금에 없는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안고 몸부림친 비애의 필연적인 산물이었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혼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더 잘 모셔달라는 절절한 부락을 안고온 시대의 뜻이기도 했다.

본사가자

명령만 내리시라

김철혁

하나의 소원 안고
붓끝을 버렸노라
하나의 열망에
심장을 끓여왔노라

조국에 준엄한 시각이 오면
내 심장에 폭풍치며 와당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그 명령
나도 한 병사로 받아안기 위해...

선서한 군인의 의무 못다했기에
나는 아픔이 많은 영예군인
복수로 끓는 이 심장
순간도 잠재울수 없거니
돌격의 그 제1선에
내 어찌 빠질수 있으랴

명령만 내리시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이시여
그 명령 하나면
산악같이 일떠설 무적의 대오
그 철의 노도속에
나도 한 병사로 달음치리라

그리고 원쑤의 숨통에 날려보내리라
가슴속에 끓여온 분노를 터쳐
멸적의 우뢰우는 나의 노래를
총알처럼

폭탄처럼

진격의 발구를 우뢰치는 그곳
전투행진곡이 되어 울리는 나의 노래와 함께
백병전의 날창 번개치는 그곳
돌격나팔이 되어 울리는 나의 시와 함께
선서에 충실한 병사로 남기 위해
나의 한몸도 폭탄이 되리니

이 땅의 풀대 하나 건드려보라
이 땅의 조약돌 하나 다쳐만보라
이제 내리시는 그 명령 한마디에
사회주의 《종말》을 떠벌이는
제국주의 원쑤들의 운명에
정녕 종말의 슬픈 시각은 오리라

내 생존의 명분도
오직 그 명령 받기 위해 있는것
이 붓대 총창으로 버려온 세월도
오직 그 명령 받기 위해 흘러온것

오, 그 명령 하나에
제국주의 없는
사회주의 꽃동산이 누리에 펼쳐지고
통일의 광장 높은 단상에 오르신
위대한 령장의 사열을 받을
그 영광의 대오속에
떳떳이 머리들고 설 내 자리도 있어라

살아계시다

김흥익

아, 수령님!
웃으며 오시니 눈물이 납니다
웃으며 가시니
피눈물이 납니다
-7월 19일 영결의
백리연도에서

1

여느해보다 일찍 장마가 시작되는바람에 수원지관리원인 현분너는 요즘 할 일이 많아졌다. 우선 흙물이 솟아들지 못하게 물도랑을 쳐야 하고 비에 씻겨간 물탱크의 흙도 성토해야 했다. 그리고 수원지길옆에다 정히 가꾼 화단의 꽃들도 비바람에 넘어진것들은 세워주고 뿌리뽑힌것들은 다시 심어주어야 했다.

수백호되는 리의 음료수를 공급하는 자그마한 수원지여서 관리원에 양수기운전공을 겸하여 혼자서 그 모든 일을 다 해내자면 하루종일 부지런을 피워도 늘 시간이 빠듯했다. 나이 탓인지 이젠 일자리도 폭폭 나지 않았다.

밤새 내린 비에 마당은 잔자갈이 허영게 드러나도록 말끔히 씻겨갔다. 대문옆의 키높이 자란 두그루의 살구나무도 비물에 젖은 잎을 힘겹게 드리우고 서있다. 아침인데도 대기는 신신한 맛이라곤 조금도 없이 흐리터분하고 끈끈하다.

《온참, 이놈의 날씨는 통 개일줄 모르니...》
대문을 나선 분너는 강냉이밭너머 행길쪽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주춤 멈춰섰다.

《할머니!》
소리난쪽에서 조그만 사내너석이 불쑥 나타나더니 썩 달려와 가슴에 꼭 안겼다. 벌 저편 산기슭의 새 문화주택구역에 사는 손주너석이였다.

《너 어떻게 왔니, 학교엔 안가구?》
《학교요?!》

할머니의 물음을 되받아 외우고난 너석이 워낙 좀 작은 바른쪽 눈을 아주 감은것처럼 껌긋하며 통명스레 대꾸했다.

《지금 가지 않나요 뭐.》
분너는 그제서야 너석의 어깨에 메워져있는 책가방을 보고 엄하지만 어성을 낮추어 물었다.

《그래 숙제는 다했니?》
너석은 이마눈으로 슬깃슬깃 할머니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수그리며 입안소리로 웅얼웅얼했다.

《학교에 가서 하면 돼요.》
《학교에 갔다오면 숙제부터 해야지, 또 책가방을 벗어던지자마자 고기잡이 다닌 모양이구나!》
지금은 부락당비서이지만 어릴적의 저애 아바

지도 고기잡이라면 오금을 쓰지 못했었다. 그때문에 분너한테 방비자루가 터지도록 매를 맞은적도 몇번 된다. 현데 두벌자식이 되어서 그런지 손주너석한테는 좀처럼 엄하게 대할수 없는 분너였다.

《그래 왜 왔니?》
이번에도 분너는 껍 부드러워진 어조로 물었다.
《이저...우리 선생님이 할머니한테 보내는 편지야요.》

시무룩해 서있던 너석이 또한번 할머니를 흘깃 쳐다보더니 메고온 가방안에서 쪽지편지를 꺼냈다.

분너는 호미를 겨드랑이에 끼고 편지를 받았다.

《일국이 할머니에게》
네모반듯하게 접은 편지겉에 쓴 정한 필체의 글을 이윽히 들여다보던 분너는 쪽지를 펼쳤다. 겉에 쓴 글씨와 다름없이 정하게 쓴 글이 또박또박 눈에 안겨왔다.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일국인 공부도 잘하고 소년단생활도 여전함니다. 조금 장난질이 세찬것이 흠이지만 그런 흠은 여느 아이나 다 있으니 걱정할것은 없습니다.

할머니!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는 얼마전에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새로 지은 2층교사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신축교사이다보니 나무와 꽃이 많이 요구됩니다. 나무는 군내 여러 학교들과 원림사업소의 도움으로 적지않게 가져다 심었는데 꽃은... 그래서 수원지길옆에다 갖가지 꽃들을 많이 가꾸고있는 일국이할머니한테 이 편지를 보내니 꼭 도와주십시오.

약속이 되면 꽃모 뜨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회답을 바랍니다.
7월 8일 정순 보냅니다.》
편지에서 눈길을 든 분너는 조르는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일국에게 손을 내밀며 툭한 어조로 말했다.

《연필 있니?》
너석은 밝은 표정을 지으며 가방안에서 날쌔게 연필을 꺼내주었다.

《책두 한권 주렴.》
너석이 얼른 받쳐주는 책에다 선생의 편지종이를 뒤집어놓은 분너는 꺼슬꺼슬한 손바닥으로 다리미질하듯 쪽 쓸고나서 회답을 써내려갔다.

《선생,

꽃은 제손으로 씨를 뿌리고 가꾸는 재미로 키우는거라오.

더구나 여기 수원지꽃은 그렇게 줄수 없는겐줄을 선생도 알지 않소.

대신 내 고운 꽃씨를 보내줄테니 그걸 가져다 심어보우.»

쓰면서 보니 조금 무뚝뚝한것 같기도 하고 선생한테 감히 혼시하는듯한 감도 없지 않아 무엇인가 친절 한 설명을 덧붙이고싶었지만 엄지손톱만큼씩이나 큰 글자들이 벌써 16절지 한장을 형성듬성 다 채워버렸다.

분너는 할수 없는듯 편지종이를 그냥 접어 손주녀석에게 주면서 물었다.

《선생님이 다른 말씀은 없어나?》

《없어요.》

《그럼 가봐라!》

오탁한 코마루에 뽀질뽀질 내돋은 땀을 손등으로 벽 문다치고난 녀석이 꾸벅 인사하더니 뺨 돌아서 달리기 시작했다.

(녀석이 소년단반장이랬지!)

흠족한 생각으로 그의 뒤모습을 잠시 바라보던 분너는 때운 시간을 봉창하려고 걸음을 재촉했다.

2

일매지게 새파란 잔디를 입힌 물탱크와 양수장을 가운데 두고 큰원을 그리며 빙 둘러친 나무울바자 바깥쪽 물도랑을 메운 흙을 쳐내는데 꼭 두시간 걸렸다. 그리고 제멋대로 도랑을 지으며 흘러내린 탕수가 똑 떼물고나간 수원지아래켄 돌담을 고쳐쌓는데 한시간나마 걸렸다.

한숨 쉬고 물을 한축 퍼올린다음 비바람에 넘어진 꽃포기들을 세워주던 분너는 등뒤로 다가오는 다급한 발자국소리에 허리를 펴며 얼굴을 돌렸다. 흰 목책 가까이로 훨씬훨씬 다가서는 웬 젊은이의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 물 한사발 좀 주시겠습니까?》

닫겨져있는 문앞에 와서며 젊은이가 말했다.

《들어와 잡수시우.》

분너는 금방 일으켜세운 분꽃포기에 북을 주며 대답했다.

《그새 꽃이 수태 뻗군요. 어머니.》

(이 젊은인 누구길래...?!)

하는 생각으로 의아쩍은 눈길을 들던 분너는 금시 입이 벌어졌다.

《아니 이게 누구요?!》

《누구긴? 나지요. 불손한 신랑, 지난달 장가들기 전날에 꽃얻으러 왔다가 퇴짜맞은 탐사대 시추공!》

《글쎄 탐사대! 그래 장갈 들었나?》

《들었지요. 아무렴 어머니가 꽃을 안주면 장갈 못들라구요?》

젊은이는 조금 시까스르는듯한 어조와는 달리

구리빛 얼굴에 악의없는 웃음을 머금고 분너가 떠주는 물그릇을 받았다.

그는 여기서 멀지 않은 읍에다 집을 두고 분너네 수원지를 조금 지나서 있는 탐사대로 출퇴근해 다니는 제대군인으로 수원지에 물 마시러 가끔 들리곤하던 젊은이었다.

그런데 열흘전 어느 저녁무렵, 어느날처럼 물한그릇 청해마시고나서 전에없이 한참 너스레를 떨던 그가 갑자기 정색해지며 꽃을 좀 꺾어달라고 요구해나섰다. 뜻밖인지라 조금 당황해난 분너는 얼굴에 머금었던 웃음을 거두며 조용히 도리머리를 저었다. 하지만 젊은이는 쉬이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 제 사실은 결혼잔치상을 신식으로 한번 차려보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가 가꾸는 이 꽃으로 상을 멋들어지게 장식해볼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머니, 도와주시겠지요?》

그래도 분너는 응하지 않았다. 아니, 응할수 없었다. 이게 어떤 꽃들이라구...

하지만 꽃밭이나 아는 사람한테 속깊은곳에 묻어둔 사연을 이야기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늙은것을 믿고 온 이 정열적인 신랑을 그냥 쫓아낼수도 없어 난처해있던 분너는 읍거리의 화초원 생각이 났다. 그래 거기 가보라, 그러면 좋은 꽃을 얼마든지 팔아줄거다라고 이야기해주었더니 젊은 신랑은 제단에서 께했다.

《제가 돈 몇푼이 아까워 여기로 온줄 압니까! 이 꽃들이 하도 마음에 들어서 왔지요. 그렇다면 됐습니다. 이 꽃이 아니면 내 장갈 못들라구요.》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젊은이는 돌아가버렸다.

하여 다시는 수원지에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젊은이가 이렇듯 악의없는 얼굴로 문뜩 나타난것이였다...

한바가지 가득 떠준 물을 꿀떡꿀떡 소리나게 마셔버린 젊은이는 희고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여 입술에 묻은 물기를 찍어내더니 무슨 긴한 말이라도 하려는듯 분너앞으로 얼굴을 바투 가져오며 심중하게 물었다.

《어머니, 들었어요. 낮 12시에 중대보도가 있다는 소릴!!》

《?!》

분너는 금시초문이여서 그저 보기만 했다.

《방송에서 몇번 곱씹어 알려주더군요. 여기도 방송이 있지요?》

《있네... 헌데 무슨 중대보도라우?》

《글쎄 나두 그이상은 모르겠지만 대충 짐작은 갑니다. 어제가 스위스에서 조미회담이 열린 날이니까 그 소식이든가 아니면 북남최고위급회담에 대한 보도겠지요.》

《그럼... 어떻게 되우?》

《어떻게 된다는건요? 오 회담이 열리면요? 그야 뭐... 우리 수령님앞에서 누가 감히 통일을 반대해요.》

《그러니까 통일이… 된다는 말이겠소?》

《되지 않으면요. 왜요. 이제 두고 보라고. 저쪽에서 이쪽에 한번 오고 우리 수령님께서 서울에 가시여 한번만 연설을 하시면 통일은 저절로 돼요. 됩니다.》

젊은이는 통일이 된다는 말을 그렇듯 쉽게, 그렇듯 가볍게 한다. 그래서인지 분녀에게는 젊은이의 말이 경솔하게까지 들려왔다.

(정말 통일이 그리 쉽게 될가? 우리 수령님께서 한생을 다 기울여오시며 애쓰시던 통일이…)

하면서도 분녀는 자기의 기분 역시 꼭 있을듯 싶은 그 어떤 기대와 흥분으로 붕 떠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정말 이 사람의 말대로 이제라도 당장 통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정말 통일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

분녀는 불현듯 호흡이 가빠나는것을 느끼며 얼굴을 쳐들었다. 그러자 하늘에 낮추 드리운채 모이고 얹히고 휘말려돌아가던 암회색의 부피 큰 구름덩어리들이 순식간에 행하니 높아지는듯싶고 불에 와닿는 눅눅한 바람결도 한결 시원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비에 젖은 먼 산, 가까운 들, 푸른 가로수와 잔디, 검은 도로바닥과 흰 벽체, 울긋불긋한 꽃… 그 모든것들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정답게 안겨왔다.

《그러니 어머니, 꽃을 더 잘 가꾸십시오. 년로보장도 마다하구 꽃을 가꾸는 사연을 내 다 들었습니다. 아무튼 장하십니다.》

천천히 문꺼로 다가가면 젊은이가 뒤따라서는 분녀를 돌아보며 하는 말이였다.

《뭘 장하기까지야…》

분녀는 어째선지 눈곱이 흐려와 문을 잡은채 고개를 숙였다. 흰 울바자옆으로 성큼성큼 옮겨드는 젊은이의 구두발이 시야밖으로 벗어나자 분녀는 얼굴을 들었다.

벌써 큰길에 올라선 젊은이는 저만치 멀어져가고있었다.

그의 뒤모습을 점도록 바라보고 섰던 분녀는 저고리앞섰으로 눈곱을 닦았다. 당장 통일이 되리라던 젊은이의 말이 불쑥 떠오르면서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 수령님께서 다문 하루라도 발원잠을 주무셔보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 젖어든것이였다.

별로 그득해지는 마음을 안고 양수장으로 돌아온 분녀는 탈의실 안벽에 달아놓은 소리방송의 코드를 콧고 음량조절변을 돌렸다. 서정길은 곡조를 타고 성량이 풍부한 녀성중음가수의 노래가 울려나왔다.

실안개도 교묘히 감도는 새벽

...

밖에서도 방송을 들을수 있도록 양수장문을 활짝 열어놓고 문을 나서던 분녀는 고성기옆에다

걸어놓은 벽시계를 얼핏 쳐다보았다. 11시 30분이 조금 넘었다. 중대보도시간까지는 아직 30분 있다!

화단에 나온 분녀는 다시금 일손을 잡았다.

노래소리는 양수장안에서보다 더 부드럽고 깨끗하게 들려왔다.

...

우리의 새벽잠 깨우실세라

찬이슬을 맞으시며 들길로 나가셨네

...

분녀는 지금 자기앞으로 걸어오시는 수령님의 영상을 그려보고있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는 노래에서처럼 찬이슬 내리는 들길이 아니라 진눈까비 흘날리는 진창길로 환하게 웃으시며 걸어오고 계시였다.

정전직후 어느해 이른봄, 아직은 새색시에 불과했던 분녀가 여기 이름없는 우물가에서 만나뵈웠던 그때처럼 수령님께서도 젊디젊으신 모습이였다.

3

아직 먼동이 뜨기전, 흘날리는 진눈까비도 육안으로보다는 얼굴이며 손등이며에 떨어져내리는 차갑고 산뜻산뜻한 감각으로 느껴지는 이른새벽, 배가 볼록 나온 토기물둥이를 이고 집에서 퍼그나 멀리 떨어져있는 우물터에 나온 분녀는 우물속을 들여다보다가 호-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떨어뜨렸다. 밤사이 고인 물을 남먼저 길어가려고 이렇듯 첫닭이 울기도전에 나왔는데 벌써 누가 물을 길어간뒤였기때문이였다.

분녀는 꽤 밑굽이 넓은 동이를 놓았던 자리가 또렷한 우물옆의 판돌우에 동이를 내려놓고 잠시 오도카니 서있었다. 서두를것이 없었다. 이제 물 한동이를 채우자면 한동안은 이렇게 앉아 떨어져야 한다. 바가지모양으로 움푹 패워진 우물바닥에 물이 조금 고이면 한바가지 푸고 또 조금 고이면 한바가지 푸고...

저 먼 함경도산골에서 살다가 벌방총각을 만나 여기 서도땅에 시집온 분녀로서는 새로 정붙이기 시작한 이고장이 다 좋은데 물 바른것 그 한가지만은 정말 싫었다. 글썽 4백호나마 되는 리에 여름한철 내놓고는 이렇게 말라버리다싶이하는 우물 몇개밖에 없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물이 바른 때면 이고장 아낙네들은 우물을 먼저 차지하려고 새벽일찍 물길러 나오군했다. 그런데 조합살림이 날마다 불어나는데 따라 물을 먼저 길어가기 위한 말없는 《경쟁》도 새벽으로부터 한밤중으로 점점 소급해 올라가는것이였다.

(우리 고장의 팔팔 흐르는 산골짜크 물을 여기에 통채로 끌어왔으면...)

쭈쭈쭈... 메마른 소리를 내면서 안타깝게 고여

드는 물을 하염없이 들여다보면서 분녀는 공상에 잠겼다.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가? 땅이 기름져 농사가 잘되겠다, 남편은 이고장 토배기라 이쪽 벌갈이 푸지고 탁 트인 성격이겠다, 정말 물만 흔했으면...

《물이 잘 나오니까?》

차갑고도 녹진녹진한 새벽공기를 흔들며 조용히 귀전에 마쳐오는 우렁우렁한 목소리에 분녀는 안타깝기도 하고 어찌면 행복한것 같기도 한 공상에서 깨어났다.

(어디서 듣던 음성인데... 누가 말했을까!)

분녀는 어리둥절해진 눈길을 들어 뒤를 돌아보았다.

희끗희끗해진 하늘을 배경으로 내리는 거뭇한 진눈까비속에 자기한테로 허리를 구부리고 서계시는분의 류달리 환한 모습이 안겨오고 그뒤에 조금 처져 선 사람들이 보였다.

당혹과 의아함으로 빨갛게 익어드는 분녀의 얼굴을 자애깊은 눈길로 바라보시던 앞의 분께서 우물로 한걸음 다가서시었다. 순간 분녀는 단속적으로 흥벽을 때리는 심장의 격한 박동을 느꼈다. 아! 저 부드러운 음성, 저 환하신 모습, 그이 이시다, 그분 이시다. 설에 방송으로 신년사를 하시던, 기록영화에서 뵈던...

《수령님!》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려오는 귀에 설은 자기의 웨침에 와들 놀라며 엉거주춤 일어난 분녀는 손에 들었던 바가지를 떨어뜨렸다. 물이 반쯤 든 바가지는 우물안에 떨어져 땡그렁땡그렁 춤을 추었다.

무릎을 꿇고 우물옆에 허물없이 앉으신 수령님께서는 그새 두세바가지쯤 되게 차오른 물을 한 바가지 떠들고 분녀를 돌아보시었다.

《이 우물을 몇집에서 먹소?》

《열집, 아니 한 스무집쯤... 먹습니다.》

《리에 이런 우물이 몇개나 되오? 마을마다 있소?》

《하나씩 있는 마을두 있구... 더러는 없습니다.》

《음-》

수령님께서는 물이 방울방울 떨어져내리는 바가지를 그냥 드신채 일어서시었다. 그러시고는 동이우에 조심히 바가지를 기울이시었다. 쭈룩쭈룩... 속 빈 물동이안에 물이 떨어져내리는 소리가 동안 뚝 어떤 음성처럼 들려왔다.

《주인은 무슨 일을 합니까?》

조금 어두워진 안색으로 자기를 바라보시며 던지시는 수령님의 물으심에 분녀는 가슴을 조이며 말씀드렸다.

《여기 작업반장을...》

《그래 반장동무한테 우물을 파달라고 떼를 써봤습니까?》

《예, 몇번 말해봤습니다. 하지만 여긴 위낙 물바른 고장이니 그저 그렇거니 살라고 했습니다.

뭐, 물까지 팔팔 나오면 걱정거리가 없어 일찍 늙는대구...》

말씀드리면서도 분녀는 자기가 지금 너무도 외람된 대답을 드리고있구나 하고 내심 후회하였다.

하지만 분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시는 수령님께서서는 분명 어두워진듯싶던 안색을 밝게 가지시며 말씀하시었다.

《허허, 그 량반이 제 사는 고장도 잘 모르누만.

지질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는 땅속까지 물이 바른 고장은 사실 없소. 그러니 우리 길이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 동무들한테 온 리가 다 먹을수 있는 큰 물궤을 하나 잡아주고 갑시다.》

수행일군들을 돌아보시며 하시는 수령님의 말씀을 천정아버지앞에 서있는듯한 행복감에 잠겨 꿈속처럼 듣던 분녀는 조금 동안이 흐른 다음에야 그 말씀이 뜻하는바를 깨닫고 앞을 막아섰다.

《아니, 일없습니다, 수령님. 물바른게 무슨 큰 고생이라구 이런 곳은 날에... 그건... 그건...》

《허, 우리들 걱정은 말구 빨리 물을 길어다 조반이나 지으시오. 혹시 지금쯤 작업반장동무가 깨어나 찾을수도 있겠소.》

하시며 습관적인 동작으로 팔을 들어 시계를 들여다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자신의 말씀을 부정하는 표시로 알릴듯말듯하게 도리머리를 저으시었다.

《아니, 아직은 잠을 자겠군!》

그리고는 조금 간격을 두고 말씀을 이으시었다.

《아주머니의 주인이나 조합간부들이라구 왜 제 안해들이 겪는 물고생이 마음에 걸리지 않겠소. 아마 내가 농사일때문에 자꾸 걱정하니까 그 생각만 하구 제 안해들 물걱정쯤은 대수롭지 않게 이겼겠지. 그러구보면 남모르는 그들의 걱정을 풀어주는게 우리들의 도리가 아니겠소. 그러니 이제 집에 들어가서 내가 왔다구 공연히 주인을 깨우지마시오. 우린 저 언덕우에 좀 올라가보고 가던 길을 그냥 가겠소. 자, 그럼 재삼 당부하는데 사람들을 깨우지 마시오. 약속했소.》

분녀는 무슨 정신으로 수령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리고 작별하자는 뜻으로 내미시는 그이의 손을 어떻게 잡았는지 알수가 없었다. 자기의 조그만 손이 보이지 않으리만큼 꼭 감싸쥐시고 흔드시는 그이의 손안에서 느껴지던 차거운 기운만이 심장을 찢고들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손이 시려들도록 들고계신 찬물바가지를 왜 인춤 받아 들지 못했을까 하는 뼈아픈 자책을 불러냈다.

얼른 가버리지 않은 그 아픔속에서 분녀는 별한가운데로 난 달구지길을 향하여 성큼 내디디시는 그이의 발밑에서 철벽덕-사방으로 튕겨나는 진눈덩이들을 보았다. 다음 걸음을 옮기시자 그 밑에 금시 생겨난 커다란 발자국을 놀라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곧추 앞으로 또렷이 찍혀지는

수령님의 큰 발자국, 거룩한 그 자욱우에 덧자욱을 낼가봐 저어하는듯 옆에 조심히 찍어가는 일꾼들의 발자국, 굽어지는 흰 눈발우에 흐릿흐릿 묻혀드는 수령님의 검은빛 외투자락...

잠시후에야 분너는 온 마을이 떨쳐나 감격과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사변적인 경사가 소리도 없이 자기의 곁으로 지나갔으며 이 사실을 한시라도 빨리 마을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자기는 두고두고 그들의 실망과 한을 사게 되리라는 것을 점차로 서서히 인식했다.

(어서 마을에 돌아가 사람들을 깨우자.)

한동안이 흐른 다음에야 그같이 단순한 행동의지가 떠오른것을 내심 불만하게 생각하며 분너는 마을쪽으로 돌아서 달렸다.

하지만 마을에 채 이르지도 못한채 분너는 멈춰서버렸다. 주인을 깨우지 말리고, 사람들을 절대로 깨우지 말라고 거듭거듭 부탁하시던 수령님의 음성이 문득 가슴에 젖어온때문이었다. 때를 같이하여 노염과 실망, 질책에 젖은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를 어쩌면 좋아!)

길 한가운데 오도가도 못하고 선 분너는 우물쭈물 돌아보았다. 수령님의 음성이 더욱 뜨겁게 고막을 때렸다. 《사람들을 깨우지 마시오. 약속했소.》

혹-하고 느껴올며 돌아선 분너는 다시금 우물가로 달려나왔다.

그사이 내린 눈에 벌 한가운데로 흘러간 수령님의 크나큰 발자취는 희미하게 룬팍으로 남았다.

어느새 눈은 진눈으로부터 물기가 적고 송이가 큰 함박눈으로 변한것이었다.

분너는 어렵곳이 드러난 수령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달구지길을 한참 따라가다가 그에서 벗어나 좁다란 논두렁으로... 두렁밑으로 쪽 미끄러져내린 흔적이 나졌다. 분너는 가슴이 섬찟해졌다.

(저기로 수령님께서...)

그렇듯 몇번씩 미끄러진 흔적을 남기며 산기슭에 이른 발자취는 거기서 한동안 말쑥이 계신듯 둥그러이 찍혀진 발자욱의 흔적을 이루었다. 그랬다가 산기슭을 따라 우측으로 저만치 그어졌다. 다시 좌측으로 그만큼 그어졌다. 계속하여 산비탈로 치달아오른 발자국!

(이 험한데로 어쩌면...)

분너는 가슴을 조이며 그 발자국을 따라섰다. 유독 눈에 묻히지 않은 어린 가독나무 한그루가 류달리 눈에 비쳐들었다. 그밑으로 올라간 발자국...

(아 저 나무를 잡고 오르셨구나!)

그 가독나무가지를 휘여잡으시는 수령님의 커다란 손이 눈앞에 떠오르고 그러자 나무가지우에 앉혀져있던 진눈덩이들이 와슬와슬 무너져내리는 모양이 금시 보는듯이 방불하게 그려지면서서 심장이 오싹 저려왔다.

분너는 아직도 수령님의 체온이 느껴지는듯싶은 그 나무가지를 부여잡고 몸을 솟구쳤다. 진눈을 아지마다 무겁게 떠이고 선 로송 한그루, 그 옆으로 길게 쪽 미끄러져내린 자리... 아직도 흰눈이 채 덮지 못한 검붉은 생흙이 눈을 찌른다. 가슴아프게 그려지는 흙문은 신발... 아아 수령님!

분너는 불시에 젖어드는 눈을 쳐들었다. 그러자 하염없이 내리는 눈발속으로 사색에 잠긴듯 까딱없이 서있는 나무숲이 보였다. 저쪽 키높은 느릅나무가지끝에 외로이 나앉은 조그만 메새 한마리가 분너를 내려다보며 무슨 사연을 이야기하듯 삐쭙쭙르르 삐쭙쭙르르... 하고 목멘소리로 울었다.

별스럽게 심금을 울리는 그 소리에 가슴이 몽클해난 분너는 고개를 돌렸다. 눈은 그냥 내리는데 산 저편자락에 키를 낮추고 들어앉은 분너네 마을의 초가집들과 반토굴집들이 그리 멀지 않게 보인다. 지붕에 눈을 두툼히 덮은채 웅크리고 누운 모양이 꼭 동면하는 흰곰같다. 가만히 내려다보니 눈무지같은 집집의 흰지붕우로 죽은 고목처럼 비죽이 솟아오른 검은 굴뚝들에선 안개의 떠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있다. 저 집집의 부엌마다에선 아낙네들이 자기들을 남부러운것 없이 잘살게 해주시려고 이 아침, 어버이수령님께서 이처럼 험한 산길을 뚫아오르고계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며 지금 밥을 짓고있다. 그나마 아이들과 남정네들은 아직도 곤잠에 들어있으리라.

그에 생각이 미치자 기가 막혀난 분너는 그만에야 소리내어 흐느끼며 돌아섰다. 오로지 산위로 치달아오른 발자취우에 방울방울 더운 눈물을 흘리며 산정에 오르니 거기에 또 둥그러이 찍혀 발자국의 흔적이 있었다. 찍힌우에 덧찍히고 그랬다가 반대편 기슭으로 미끄러지듯 내리그어졌다. 흰 눈발속에 자욱히 묻힌 그아래 어디선가 간간이 들려오는 발동소리, 멀어져가는 발동소리...

물동이와 함께 없어진 안해를 기다리다못해 우물가로 찾아나왔다가 거기서 벌 가운데로 찍혀진 자취를 더듬어 산우에 오른 남편만 아니었더라면 분너는 수령님의 발자욱우에 엮드려져 눈이나 녹아내리도록 하염없이 울고있었을것이었다.

《여보, 당신 여기서 뭘하요?》

《여보, 수령님께서... 오셨됐어요.》

《뭘요?! 수령님께서...》

《우리가 먹을 물끓을 잡아주시려고 여기 오르셨다가...》

말은 그만 목구멍에 막혀버리고 눈물에 젖은 눈길에 산아래를 가리켰다.

《아니, 그럼?!》

남편의 아귀센 손이 왁살스러운 쇠집게처럼 분너의 연약한 어깨를 꼭 잡고 마구 흔들어댔다.

《당신이 이런 맹꽂이일줄은... 아니,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요?!》

분녀는 남편이 이렇듯 무섭게 성내는것을 처음 보았다.

남편은 짝 들어쥐었던 분녀의 어깨를 팽개치듯 놓고 산아래로 굴러난 바위처럼 내리달렸다.

(내가 뭘? 내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을까?)

남편을 따라 산밑으로 내려가는동안 분녀의 머리속에서는 그 생각이 떠날줄 몰랐다. 하지만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직은 알수 없었다...

그 새벽으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술한 기술자들과 노동자들, 갖가지 기계들과 자재들을 실은 차가 군에서 분녀네 마을로 내려와 수령님께서 정해주신곳에 수원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석달남짓이 흘러 수원지가 완공되자 공사전과정을 책임지고 내려와 살던 군당위원장의 참석밑에 완공행사를 크게 하고 분녀를 관리원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분녀네 리의 경험을 본받아 군내 많은 리들에서 수원지공사를 크게 벌려 몇년안으로 군안의 모든 리들에 수도물이 흘러들었다.

수령님께서 잡아주신 수원지와 더불어 그 벽천나날을 보내는동안 분녀는 그날아침, 남편이 추상같이 꾸짖던 그 말의 참뜻을 깨달았다. 그것은 온 마을을 다 깨워서라도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험한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아드리지 못한, 아니, 당초에 이토록 훌륭한 수원지를 꾸리어 수령님께 그같이 가슴아픈 심려와 힘겨운 로고를 드리지 말았어야 했다는 뼈아픈 자책감, 가슴 뻐근한 후회감이었다. 그 죄책감, 그 후회감이 수령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발에 흙 한점, 눈 한점 묻히지 않고 락화 흐트러진 꽃길을 걸으시도록 해드리고싶은 강렬한 념원으로 불타올라 분녀는 큰길에서 수원지로 들어오는 길옆에다 해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가꾸는것이였다. 봄날에 오시면 제일먼저 피는 진달래, 철쭉, 매화들이, 여름날에 오시면 장미, 해당화 그리고 백일홍이며 봉선화며 다리야꽃들이, 가을날에 오시면 맨드라미며 갖가지 국화류들이, 혹시나 밤에 오시면 밤에만 핀다는 꽃들을... 그렇듯 간절한 소원을 담은 해와 해들이 흐르고 년대가 바뀌어 20대의 새색시였던 분녀도 어느덧 머리흰 할머니로 되었고 그후 관리위원장사업을 맡아보던 남편은 전쟁때의 상처가 도치여 시름시름 앓다가 몇해전에 세상을 떠났다. 남편은 눈을 감으면서도 어버이수령님은 꼭 다시 오신다며 자기의 뒤통까지 합쳐 그에게 큰 기쁨을 드리여달라는 부탁을 남기였었다...

분녀는 고개를 쳐들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날에 수령님께서 몸소 뿔아오르셨던 산은 숲이 무성하게 자라 기복이 알리지 않으리만큼 살쾅보인다. 그리고 그날 저 산중턱에서 내려다보던, 웅크린 흰곰같은 초가집, 반토굴집들은 흔적도 없고 이편 산기슭과 저편 야산기슭으로 근 10년을 사이에 두고 세운 서로 다른 형식의 문화주

택구역이 형성되였다. 수령님께서 차를 세워두셨던 행길은 더욱 곧게 퍼져 리소재지쪽으로 넓게 뻗어갔고 자를 대고 그은듯이 규격화된 포전들엔 굵은날인데도 김매는 기계들이 통탕거린다. 수령님을 기다리는 그 세월동안 마을은 천지개벽한 것이였다.

(정말이지 이제 오셨으면...)

참으로 이제라도 문득 오시여 40여년전 그날, 진눈까비 질적거리던 저 논벌과 산비탈에서 신발에 가득 묻어올랐던 그 무거운 《짐》을 강변의 납주그레한 돌을 골라다 고르게 깔아 여기 이 길 위에 말끔히 털으셨으면 그리고 그날에 안으신 가슴아픈 심려와 로고를 진동하는 저 꽃향기속에 다 푸시셨으면... 아 수령님! 우리 농촌녀자들의 머리위에 대대손손 얹혀져오던 무거운 물동이를 손수 내리워주시고 우리 농촌아낙네들도 도시녀자들처럼 부엌에 앉아 수도꼭지만 틀면 언제든지 시원한 물을 받아쓸수 있도록 하여주신 수령님! 우린 수령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이제나저제나 손꼽아 기다립니다.

4

현분녀를 깊고 뜨거운 회억에서 깨운것은 12시를 알리는 낮고 짧은 고동소리였다.

분녀는 호미를 그냥 든채 양수장쪽을 향하여 얼굴을 들며 잠시 일손을 멈추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고함》

돌연히 울려나오는 귀에 익은 남자방송원의 비장한 소리에 분녀는 속이 긴장되는것을 느끼며 다음말을 기다렸다. 각계층 인민들을 부르고 댜이어 당과 국가와 군대의 최고기관들을 열거하고 그다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아-야야!)

갑자기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듯한 감이 느껴지며 가느다란 비명이 나갔다. 아득한 미궁을 향하여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한 벼랑끝에 매달린듯싶어 분녀는 호미를 짊어온 손에 온몸의 힘을 다 모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시었다는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이럴수가... 아니 이럴수가?!)

손뎛이 탁 풀리며 호미가 툴링 떨어졌다. 귀속이 멍멍하고 눈앞이 뿌얘지며 머리속의것을 모조리 뽑아내친듯한 공허가 엄습했다. 딥고선 땅이 쑥 빠져나가는듯한 허탈감이 이름못할 그 어떤 반발이, 그러자 곧 마음의 혼돈이 일어나며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살펴보게 되였다. 하지만 결엔... 아무도 없고 슬픔과 비애에 젖은 방송원의 목소리만이 계속되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한평생을...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쉬임없이... 우리의 경애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너무도 애석하게 우리곁을...》

숨을 딱 멈추고섰던 분녀는 몸을 부르르 떨며 소리쳤다.

《아니,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다. 그럴수가 없어.》

그리고는 자기의 반발을 증명할 무엇인가를 찾으려는듯 부들부들 경련을 일으키는 몸을 가까스로 움직여 사위를 둘러보며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래 거짓말이구말구. 거짓봐라. 길가던 차두 몇구 흘러가던 구름두 몇구. 날아가던 잠자리두 몇구... 바람두 자구 나무잎두 자구... 그래 이건 꿈이다 꿈, 난 꿈을 꾸고있어. 몸쓸놈의 꿈.)

분녀는 얼마전 텔레비존으로 뵈온, 농장벌을 찾아나오셨던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아니, 절로 떠올랐다. 이어 어떤 외국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서해갑문을 돌아보시던 수령님의 환하신 모습도 떠올랐다. 그때 건강하신 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자기의 모습도 남을 보듯이 생생하게 부각되었다.

(그래, 나는 지금 죄많은 꿈을 꾸고있어.)

그는 또다시 구원을 청하는듯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가 자기를 이 악몽에서 깨워줬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기원했다.

남자방송원대신으로 여자방송원이 바뀐것은 이때였다. 그 역시 물에 젖혀낸듯 비통한 어조로 당과 국가와 군대의 최고기관들을 열거하고나서 위대한 수령님의 국가장의위원회 구성을 공개했다.

《김정일동지.》

방송에 이끌리듯 양수장문앞에까지 와섰던 분녀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비보를 접한 첫순간부터 허전해지는 마음을 의지하고싶던분! 심혼을 다말긴채 《아니요!》라고 하시는 한마디의 단호한 말씀을 듣고싶던분! 바로 그분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장의위원회를 이끄시는것이였다.

《아니, 아닙니다. 장군님! 절대로 그럴수 없습니다!》

킁킁하게 흐려든 하늘을 향하여 목갈린 소리로 부르짖던 분녀는 온 누리가 새까매지는것을 느끼며 정신을 잃고말았다.

...얼마나 쓰러져있었는지...

《할머니, 할머니 일어나세요.》

어깨팍을 앙증스레 잡아흔들며 목메여 부르는 소리에 분녀는 힘없이 눈을 떴다. 그러자 눈물에 범벅이 된 누군가의 눈과 마주쳤다. 다음 자기를 내려다보는 여라문쌍의 눈들을 보았다. 그 눈들도 눈물에 젖어있었다.

(그런데 이에들은 왜 우노?)

일국이와 그의 학급아이들을 알아본 첫순간에는 의문이였다.

다음순간 자기를 쓰러뜨린 비보의 구절이 아득한 옛날에 들은것처럼 어렴풋이 기억되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정말? 그래서 이에들두...)

분녀는 소스라치며 벌떡 일어나앉았다. 어째선

지 한결같이 흐릿한 하늘을 쳐다보며 울고 서있는 아이들한테서 눈길을 떼고 그 무슨 소리를 들으려는듯 숨을 죽이고 귀를 강구었다, 흐느낌소리, 후둑, 후두둑... 비방울이 젖은 땅에 뿌려지는 소리, 쇠아-췌- 바람소리... 분녀는 귀속을 어지럽히는 그 모든 소음을 짓누르며 장중하게 울려오는 노래소리를 들었다. 어드레나 기쁨속에 든 군하던 기백있고 랑만에 넘친 《김일성장군의 노래》였다.

분녀는 다시금 세차게 흥벽을 때리는 심장의 박동을 느꼈다.

(그래, 아니야. 아니야. 수령님은 가지 않으셨다. 방송에서 저렇게...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울리질 않느냐.)

《일국이 할머니, 꽃을 좀 꺾어달라요.》

팔에다 분단위원장 간부표식을 단 남자애가 그냥 울면서 하는 말을 분녀는 인츰 알아듣지 못했다. 아침에 손주녀석이 학교에 쓸 꽃을 좀 달라는 선생의 편지를 가지고왔던 기억이 또다시 먼 옛일처럼 어렴풋이 상기될뿐이였다.

《할머니, 우린 꽃을 얻으러 왔어요.》

맨앞에 선 손주애의 거듭되는 청이였다.

그애들의 말뜻을 인츰 깨닫지 못한 분녀는 《선생님한테 꽃씨를 보내주마고 했는데 그냥 꽃을 달라더냐?》 하고 물었다.

《아니, 평양에 갈려구 그래요. 만수대 대원수님 동상에 드릴려구...》

《뭘?!》

《대원수님께서 나라를 찾으시려구 혼자서 천리길두 걸으셨는데 일없어요. 멀지 않아요. 평양 견학 가봐서 길두 다 알아요.》

《애들아!》

그제사 꽃을 달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은 분녀는 실성한듯 멍한 눈길로 일국을 쳐다보며 힘없이 풀썩 주저앉았다.

일국은 무릎을 꿇고있으며 할머니품에 얼굴을 묻었다.

다른 아이들도 분녀의 팔을 잡아흔들며 더욱 슬게 울었다.

분녀는 가슴을 파고들며 엉엉 소리내어 우는 일국을 일으켜세우고 안타까이 말했다.

《울지들 말아. 대원수님은 돌아가지 않으셨다. 여기로 꼭 오시겠다구 이 할머니와 약속하셨다. 그런데 수령님을 모시자구 가꾼 이 꽃들을 꺾어가면 되겠느냐.》

희망의 불꽃을 머금은 눈들이 눈물을 함뱍 머금은채 분녀를 쳐다보았다. 그 불꽃들이 분녀에게 준 효과는 비상히 큰것이어서 그는 자신의 그 말을 완전히 믿어버렸다. 하여 강잉하게 몸을 일으킨 분녀는 열려진채로 있는 문쪽으로 아이들의 등을 떠밀었다.

《자, 그러니 눈물은 거두고 돌아들가서 공부해라. 숙제들을 말이다. 어서!》

아이들은 여전히 눈물어린 불꽃이 반짝이는 눈

으로 분녀를 돌아다보며 수원지를 나눴다.

분녀는 문을 닫고 돌아섰다.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그와 함께 슬픔에 젖은 방송원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가슴을 허비었다.

그 목소리를 외면하려는듯이 수원지를 등지고 돌아서던 분녀는 다시금 양수장쪽을 바라보며 설레설레 도리머리를 저었다.

분녀는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수 없다고 다시금 곱씹어 생각하는것이였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수 있는가!

분녀에게 있어서 우리 수령님은 하늘님이고 해님이였다. 그런데 분녀는 이교사는 하늘이 무너질가봐 걱정해본적이 한번도 없었다. 머리위로 해가 떨어질가봐 우려한적도 없었다. 헌데 바로 그런 하늘, 그런 해가 아무런 예고나 불길한 조짐도 없이 졸지에 무너질수 없고 떨어질수는 없는것이였다. 하여 분녀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는 자신에게 내려진 그 청천벽력의 비보를 도대체 믿지 않았을뿐더러 그 누군가의 어마어마한 불찰로 하여 저 방송에서 돌이킬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허둥지둥 달려가 소리방송의 전원코드를 와락 당겨뽑았다. 그러자 순식간에 들이닥친 이상아릇한 정적!

무거운 걸음으로 양수장을 나서 꽃밭을 훑어보던 분녀는 적갈색벽돌을 촘촘히 박아세운 길옆으로 가우뚱히 넘어진 한포기의 주머니꽃을 보았다. 언젠가 수원지였을 지나가다가 들린적이 있는 이름모를 원예사가 수령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꽃이라며 후날 소포로 보내준 꽃씨를 심어가꾼 꽃이였다.

간밤의 비바람에 쓰러졌을텐데 여적 왜 보지 못했을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분녀는 넘어진 꽃나무를 정히 일으켜세우고 맨손으로 젖은 흙을 긁어다 복을 돈구어주기 시작했다.

《어머니!》

결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분녀는 일손을 멈추고 얼굴을 들었다.

울먹울먹한 낮빛으로 분녀를 내려다보고있던 젊은 시추공이 더는 서있을 힘이 없는듯 털썩 주저앉으며 목메여 소리쳤다.

《어머니, 이런 변이 어데 있습니까? 예?! 우리 수령님의 심장이 멎다니요?!》

젊은이는 복받치는 설움에 더는 말을 못하고 분녀의 두팔을 잡아흔들며 목놓아 영영 울기 시작했다. 젊은이가 마구 잡아흔드는대로 두팔을 말기고 앉았던 분녀는 그에게 잡힌 팔을 애써 뽑으며 엄하게 말했다.

《그만 울게. 아까두 입자 말했지만 당장 통일을 눈앞에 두고 우리 수령님이 어떻게 가실수 있겠냐, 응? 내 생각엔 뭔지 크게 잘못된것 같네.》

《예?! 그럼...》

젊은이의 눈속에서도 아까 아이들의 눈속에 어렸던 그런 불꽃이 번쩍 튀어나왔다.

그것이 분녀의 마음에 일으킨 충격은 처음보다

훨씬 더 컸다. 하여 분녀는 아이적에 모질은 악몽에서 깨어나 이제껏 자기를 괴롭힌것이 꿈이었음을 깨달은 그 순간에 맛보곤하던 홀가분하고 다행스러운 감정조차 느끼었다.

《어머니!》

뒤에서 들려오는 목멘 부름에 또다시 무서운 악몽에 빠져드는듯한 환각을 느낀 분녀는 그것을 털어버리려는듯 몸을 떨며 뒤를 돌아보았다. 울타리너머에 우뚝 서있는 웬 사람을 보았다. 그가 자기의 아들임을 알아보기까지 몇순간이 흘렀다.

《어머니, 수령님께서...》

하고는 목이 잠겨 더 말을 못잇는 그의 입에서 금시 튀어나올 말마디에 겁을 먹은 분녀는 저도 모르는 사이 짹 소리쳤다.

《야, 그만해라.》

그리고는 황급히 그한테로 달려가 더는 말을 말라는듯 흙묻은 손을 그의 입가에 가져가며 소리를 낮추었다.

《넌... 넌 비서가 아니냐? 그래 넌 우리 수령님이 그렇게 가실것 같으냐. 응? 아니냐, 아니야!》

아들에게라기보다 자신을 향하여 겁에 질린 어조로 황황히 부르짖으면서도 분녀는 그 어떤 기대와 희망을 걸고 아들의 눈을 살피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하지만 불그레 짓물러진 그의 눈속에선 분녀가 그토록 보고싶어하는 손주네 소년단원들과 탐사대시추공의 눈속에 어렸던 그런 불꽃이 튀겨오르지 않았다. 제 예비의 눈을 닦아 검은 자위가 류달리 크고 확이 깊은 그의 눈속엔 끝모를 슬픔만이 가득 고여있었다.

분녀는 아득한 미궁으로 미끄러져내리는듯한 심경에 사로잡혔다. 비보를 접하던 그 순간부터 자기의 가슴속에 고집스레 쌓아올린 그 어떤 탑이 졸지에 무너지는듯했다.

《어머니, 이 꽃들을 모두 내셔야겠습니다.》

울타리너머에 그냥 선채 힘없는 목소리로 하는 아들의 말을 인츰 알아듣지 못한 분녀는 아주 상심해버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기만 할뿐이였다.

《우리 농장의 명의로 화환을 만들어가지구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뵙자구 그러니다.》

여전히 힘없이 울리는 아들의 말을 망연하게 듣고있던 분녀는 무엇에 찢린 사람처럼 화를 놀라며 또다시 어린아이를 타듯 큰소리쳤다.

《야 너...무슨 미친 소리 할거냐? 난 수령님의령전에 드릴 꽃을 키우지 않았다. 나는...》

그리고는 문을 나서 행길쪽으로 총총히 걸어갔다.

《아니, 어머니 어디로 가십니까?》

아들이 의아쩍은 어조로 물었다.

《내 평양엘 가서... 수령님을 뵙고오려다.》

《예?!》

어머니한테로 몇걸음 다가서던 아들도, 그때까지 꽃밭옆에 주저앉아 모자간의 이야기를 하염없이 여겨들던 시추공도 눈이 둥그래졌다.

하지만 벌써 행길우에 올라선 분너는 이쪽에 대고 엄하게 소리쳤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꽃들을 일체 다치지 못하도록 해주게. 들었나?》

《예, 어머니.》

아들은 어안이 병병하여 어정정하게 대답했다.

분너는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탑이 우뚝 솟아있는 리소재지쪽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평양쪽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행길 저쪽으로 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흘러가는 것이 보였다. 그들 역시 청천벽력의 그 비보를 차마 믿을수가 없어 평양으로, 수령님 계신곳을 찾아떠난 사람들이었다.

분너도! 열흘낮 열흘밤동안 내내 장사진을 이루었던 그 사람들속의 한사람이었다.

5

그로부터 나날들이 흘렀다.

달랠길 없는 아픔과 비애의 그 나날속에도 초목은 여전히 푸르고 오곡은 여전히 설레고...

하지만 커다란 의욕과 간절한 기대를 안고 백여리길을 걸어 비내리는 만수대언덕에 올랐던 그 밤으로부터 분너에게는 그 모든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아니, 것처럼 푸르고 풍요하고 아름다운 모든것을 고스란히 두고가신 수령님에 대한 애달픈 그리움에 때없이 눈물을 쏟곤하였다.

(수령님께서 인젠 우리결에 안계신다니 이제 과연 정말일가?)

하루에도 수십번씩 떠오르곤하는 성함이지만 떠오를적마다 매번 처음 당하는 아픔처럼 심장을 찢르고들면서 새삼스러운 놀라움에 소스라치게 만드는것이였다. 그러면 또다시 새라새로워지는 그리움과 아픔, 눈물...

그렇게 7월이 가고 또다시 8월이 가고 어느덧 9월도 중순을 넘어섰다. 초목은 점점이 붉게 물들고 오곡은 완전한 황금색으로 무르익고 분너네 수원지의 꽃들만이 한여름처럼 변함없이 청초하고 싱그러운 꽃송이들을 더미로 피워올린채 그 누구인가를 부르는듯 연연한 꽃잎을 애절하게 하느작거렸다.

분너는 평양에 갔다 눈물로 돌아온 그날부터 줄창 수원지에 붙어살면서 꽃밭을 수원지밖에까지 배나 더 늘꾸었다.

한편 분너는 정전직후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옵던 그맘때의 아침시간이 되면 그 잊을수 없는 옛우물가로 찾아가 거기서부터 수령님 걸으셨던 논길을 따라 산기슭으로, 자그마한 화강석 표식비를 해세운 그 산기슭에서 다시 수령님 오르셨던 산마루로 천천히 토틀아오르곤했다. 분너는 자기의 그 새로운 《새벽산보길》을 날마다 어김없이 걸었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 분너는 산중턱의 키높이 자란 한그루 참나무앞에 문득 멈춰섰다. 땅밑에

서 생명의 즙을 빨아올리는 소리마저 들릴것만 같이 굵고 튼튼한 밀둥아리와 곧고 미끈한 줄기, 크고 작은 가지들을 꼭 뒤덮은채 영원한 생명력을 읊조리듯 섬없이 살랑거리는 이슬젖은 넓고 깨끗한 잎새들을 넘없이 쳐다보던 분너는 불현듯 정전직후의 그 이른봄날 아침, 자기 마음을 아프게 끌어당기던 애어린 가독나무를 상기해냈다.

분너는 숨을 죽이고서서 그 나무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와 키돋움하며 자란 참나무, 분지나무, 물푸레나무들이 몇그루 서있었다. 하지만 분너는 류달리 기상이 림림하고 풍채가 끼끗한 그 참나무가 수령님께서 휘여잡고 오르셨던 그 유서깊은 가독나무라고 믿었다.

푸르스름한 새벽서기를 머금은채 조용히 설레이는 나무잎새들을 흘린듯이 바라보던 분너는 천천히 나무밑으로 다가가 두껍고 꺼져꺼칠한 나무 밑둥을 어루쓸다가 락엽이 깔린 땅우에 무릎을 박으며 주저앉았다. 축축하면서도 웅단같은 부드러움이 감촉되는 이 락엽밑 어딘가에 수령님께서 찍으시던 그날의 자욱이 있으리라는 생각에 눈곱이 젖어들었다. 분너는 그 자욱을 찾아보려는 듯이 허겁지겁 락엽을 헤집었다. 장마비에 젖은 검스레한 흙이 나졌다. 분너는 그 흙을 한웅큼 파들었다. 그다음 자기도 알수 없는 그 어떤 강렬한 충동에 이끌리며 그 어떤 강렬한 충동에 이끌리며 그 흙으로 고개를 숙이다가 무성한 나무술을 뚫고 금시 외당은 한가닥의 생신한 아침해 빛에 또렷이 자태를 드러낸 한그루 꽃나무를 보았다. 연보라빛의 들국화였다.

분너는 그 들국화옆에 밑둥이 굵고 키가 높고 아지와 잎새가 무성한 한그루의 소나무를 보았다. 그리고 아지마다 진눈을 무겁게 떠실고셨던 아름답리 로송과 그옆의 진눈우에 길게 미끄러졌던 자리를 기억해냈다.

(그러니 저 들국화가...)

수령님의 발자취우에 절로 피어난 저 들국화가 잊지 못할 그 봄날부터 해마다 피었다간 지고 졌다간 피며 오늘에 이르렀으리라는 생각에 분너는 손에 움켜쥔 흙을 그냥 든채 꽃나무를 향해 무릎걸음을 했다. 이슬을 가득 머금은 우에 아침해살이 함뻑 비치여 마치 금빛구슬을 매단듯 령롱하게 반짝거리는 꽃을 향하여 손을 내밀던 분너는 그만 엉거주춤해졌다.

이슬먹은 눈길로 자기를 쳐다보며 《왜 인제야 왔어요?》 하고 힐난하는것만 같은 그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송이들에 감히 손을 댈 용기가 나지 않았던것이다.

《어머닌 생각했었어요? 수령님께서 왜 그렇게 일찌기 심장의 고동을 멈추셨는지...》

마디마디 가슴아프게 들려오는 그 물음에 분너는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어깨팍을 잡아흔들며 제 정신인가고 성나서 웨치던 남편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되살아오르면서 수령님의 앞을 막아드리지 못한 그날의 후회가 40년세월을 넘어 이

젠 영영 씻을수 없는 죄책감으로 가슴을 허비고 들었다.

(정말이지 우리 수령님께서 이런 거칠고 험한 길을 조금이라도 적게 걸으셨더라면...)

어디선가 소슬한 바람이 불어왔다.

태양이 더 높이 떠오른 모양, 나무숲을 뚫고 들어온 햇빛이 옮겨가면서 금시까지만해도 금빛구슬처럼 정겨운 빛을 내뿜던 꽃송이들이 삼시에 파랗하니 질린듯이 보였다.

분녀는 그 꽃송이들이 저들의 물음에 꺾듯이 대답을 못하는 자기를 팽담하게 외면하는것만 같아 가슴이 아팠다. 하여 분녀는 끝내 꽃송이들에 손을 대지 못한채 조용히 일어나 걸음을 옮겼다.

열흘이 지나고 한달을 넘어서자 산기슭에서 참나무가 서있는 중턱을 걸쳐 산마루우로 알릴듯말 듯한 오솔길의 룡악이 그어졌고 두달이 지나고 석달이 가까와오자 그 룡악이 수원지에서조차 알아볼수 있으리만큼 확연해졌다.

그 나날속에 분녀는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늙었다. 입가로 모여든 주름살이 더욱 촘촘해지고 볼이 홀쭉해지면서 관골옆에서부터 입귀언저리로 길게 그어졌던 두줄기의 주름살도 더 깊어졌다.

아들과 며느리가 맛다른 음식을 해두고 몇번 찾아왔으나 단 한순가락도 들지 않았다. 의사를 청해와도 청진기앞에 몸을 내대려고 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라없이 과묵해지고 모든것에 무관심해졌다. 지어는 변함없는 《새벽산보길》에서 눈에 띄여본, 리소재지앞의 봉긋한 장대덕중턱에서 젊은이들이 땅을 파고 콩크리트를 치며 무슨 새로운 공사를 벌려놓고있는데에도 전혀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다만 방과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군하는 손주 일국이만을 상대할뿐이었다. 그와 함께 꽃밭도 가꾸고 때로는 그를 데리고 자기의 《새벽산보길》을 걸기도 했다.

《할머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하세요?》

어느날 그 산보길을 함께 걷다가 참나무밑에 오래도록 서있는 할머니에게 일국이 물었다.

분녀는 근심에 겨운 손주의 눈을 이윽도록 내려다보다가 누군가를 꾸짖듯 목갈린 소리로 말했다.

《왜 글썽 먹는 물 문제쯤은 수령님께서 심려하지 않도록 미리감치 제힘으로 해놓지 못했겠니? 그때문에 수령님께서 이 험한 길을 걷도록 만든 걸 생각하면 저 나무랑 꽃이랑 볼 면목이 없구나.》

왈각 쏟아지는 눈물때문에 더 말을 잊지 못한채 일국을 데리고 수원지로 돌아온 분녀는 그와 함께 물탕크우에 입힌 잔디를 손질하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일국아, 난 요즘 우리 수령님께서 가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구나. 혹시 우리 수령님께서 너무 피곤에 몰려 깊은 잠에 드시지

않으셨을가? 그럴수도 있지 않겠니. 저 하늘의 해도 하루낮을 비치고는 하루밤 쉬는데 우리 수령님이사 80고령이 넘도록 언제 한번 편히 쉬여보셨니? 그러시면서 할수 있는 일은 다 해놓으셨지. 그러니 김정일장군님께 뒤일을 맡기시고 지금 쉬고계시는지도 모른다. 정말 그럴수 있지 않니? 이제 피곤을 쫓 푸시고 환히 웃으시며 일어나실수도 있지 않겠니?!》

이야기하다말고 분녀는 울었다.

일국이기도 울고 일국이한테서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애 부모들도 울었다.

또다시 나날들이 흘렀다.

그날도 학교를 필하고 돌아올 일국을 기다리며 꽃밭을 가꾸고있던 분녀는 어쩔지 자꾸만 머리가 지끈거려 탈의실에 들어가 문턱에 불편하게 걸터앉은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조금 안있어 졸음이 심혼을 삼키기 시작했다. 현실이 잠속같고 잠속이 현실같은 비몽사몽간... 분녀는 꿈을 꾸었다.

한여름 오후의 햇빛이 활짝 웃는 꽃밭이었다.

뒤에는 분녀네 수원지, 앞에는 꽃, 옆에도 꽃, 그 꽃밭사이로 넓고 곧고 끝없는 길이 뻗어갔는데 어째선지 꽃밭가운데로 해서 참나무, 소나무가 우거진 산으로 이어졌다. 더욱 이상한것은 산에도 온통 꽃천지인데 참나무, 소나무 가지에도 난생처음 보는 희한한 꽃이 활짝 핀것이였다.

어디선가 차소리가 들려왔다. 웅글고 부드러운 차소리였다. 그런데 그 차소리를 가려들은 분녀는 보이지 않는다. 온통 꽃뿐이다. 차소리가 멎고 발자국소리가 가까와온다. 역시 분녀 자기는 없고 꽃밭사이의 길로 천천히 다가오는 누군가의 모습만 보인다. 아침해처럼 먼먼 지평선을 넘어 오는듯 중절모를 쓴 머리로부터 은회색 코트에 재킷 바지를 입은 몸전체의 자태가 서서히 드러나더니 이쪽으로 걸어오시는데... 아, 수령님이시다.

술한 꽃송이들이 수령님의 옷자락에 어리광치며 머리를 숙인다. 현대 숙였던 머리를 들자 그것들은 모두 낮익은 마을사람들의 얼굴이다. 아들-부락당비서도 있다. 며느리도 있다. 손주-일국이기도 있다. 그속에 먼저 간 남편도 있다. 그런데... 자기 분녀만은 없다.

수령님께서는 꽃밭에 깊숙이 허리를 굽히시여 주머니꽃 한송이를 꺾으시린다. 그러시고는 그 꽃을 소중하게 굵어보시며 말씀하신다.

《이렇게 수원지를 잘 꾸러놓고 내가 오기를 기다렸단 말이지! 검은 머리가 희도록 온통 꽃으로 길을 장식해놓고... 고맙소. 고맙소.》

수령님께서는 누군가의 어깨를 짊어주시려는듯 손을 내미시는데... 분녀, 자기는 없다. 머리가 희여지도록 수령님을 기다리며 수원지를 꾸리고 꽃밭을 가꾸은 자기는...

《어디 갔어요? 할머니! 필하고있어요? 할머니!》

먼데서 다가오는 새된 부름에 분녀는 꿈에서 깨었다. 불그레한 오후의 빛이 쏟아드는 조그만 창문, 푸른 뽕끼칠을 입힌 양수기, 재빛 바닥, 흰 벽...

분녀는 소스라치며 얼른 눈을 감았다. 그러자 또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꽃밭, 길, 그길로 걸어오는 수령님!

분녀는 눈을 꼭 감은채 숨을 죽이고 그냥 앉아 있었다. 자기를 부르는 밖의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분녀는 눈을 뜨고싶지 않았다. 일어서고싶지 않았다. 문을 열고싶지 않았다. 일어서 문을 열고 나가면... 현실의 모든것, 하늘과 땅, 나무와 물, 바위와 흙 그리고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가 눈과 귀로 막 날아들며 자기 눈앞의 그 아름답고 행복한 《현실》을 현실아닌 꿈이라고 야속하게 일깨워줄것만 같아서였다. 분녀는 그것이 무서웠다. 이렇게 눈을 감고있어서 꿈의 그 모양을 현실로 믿고싶었다. 그리고 현실이라고 굳이 믿는 그 꿈속에 묻힌채 조용히 한생을 마무리짓고 싶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것인가!

하지만 야속한 현실은 《할머니!》, 《할머니!》하고 그냥 분녀를 부르며 다가오더니 꼭 닫은 양수장문을 힘껏 잡아열었다.

《할머니!》

분녀는 눈을 떴다.

문을 반쯤 메우고선 일국을 보았다.

일국은 아쉽고 분하고 실망에 젖은 눈길로 자기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팔을 잡더니 다짜고짜 밖으로 끌어당겼다.

《할머니, 저기, 저기 나가보라요.》

조그만 녀석의 힘이 얼마나 센지 분녀는 문지방에 이마를 찡고 문턱에 발을 걸채이며 끌리다 싶이 양수장을 나서 울타리앞에 이르렀다.

《자, 봐요. 할머니 저길, 아니 저길...》

손주녀석이 흥분에 열뜬 어조로 부르짖으며 리소채지쪽을 손짓했다. 분녀는 고개를 쳐들었다.

(아니?!)

분녀는 멍칫 몸이 굳어지며 대번에 숨이 떡 멎었다. 일국의 손길이 가리키는 리소채지앞 봉긋한 장대덕 중턱우에서 환히 웃고계시는 수령님을 본것이였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자꾸만 뿌옇해지는 눈에 정기를 모아 다시 보고 또 보았다. 허나 분명히 수령님께서는 이쪽을

바라보시며 환히 웃고계시였다.

순간, 가슴속에서 폭풍같은것이 일어나며 숨길이 확 열리는것을 느낀 분녀는 첫 숨과 함께 목메며 부르짖었다.

《그래 오셨구나. 수령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어!》

분녀는 열어젖혀진 문밖으로 달려나갔다.

손주 일국이 따라섰다.

강냉이 뒤그루로 심은 보리가 파릇파릇 싹을 내민 밭을 지나고 벼단무지가 줄을 지어선 논판을 꿰질러 단숨에 소채지에 다달은 분녀는 마을을 싸안듯이 정겹게 팔을 내민 봉긋한 룡선우에 높이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대형초상화앞에 멈춰섰다. 목란꽃속에 곱게 둘러싸이신채 시름없이 환히 웃으시는 수령님이시였다.

하지만 분녀에게는 황금빛 저녁해빛속에서 지금 자기를 향하여 밝게 웃고계시는 수령님의 모습이 초상화로만 보이지 않았다. 그이는 살아계시는 수령님이시였다. 마흔해전의 그 아침처럼 몸소 분녀네 마을로 반나마 흰 머리칼을 바람에 흩날리시며 찾아오신 수령님이시였다.

《허허... 이젠 물도 팔팔 나온단 말이지? 그럼 됐구만, 됐어!》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말씀하시면서 가지런한 이를 환히 드러내시며 온 세상이 다 반하도록 밝게 웃고계시였다.

분녀는 눈부신 수령님의 영상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채 옆에 다가선 일국의 손을 꼭 잡고 속삭이듯 말했다.

《일국아, 내 뭐라던. 수령님께서는 꼭 오신다고 했지. 봐라. 그리두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결을 떠나가시더니... 백날도 못되어 가시던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 마을에 오셨구나.》

그리고는 어푸러질듯 룡선으로 치달아올랐다.

어느덧 저녁해는 서산마루를 넘어섰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불타는 노을속에 여전히 더 환하게 웃고계시였다.

그날밤,

분녀와 일국이 그리고 온 마을사람들은 분녀가 어버이수령님을 기다리며 한생토록 가꾸어오던 수원지의 꽃들을 밝게 웃으시는 수령님의 초상화앞에 옮겨다심었다.

1994년 10월

명제해설

《소설의 묘사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심리묘사이다. 인물의 내면세계를 펼쳐보여주는데서 기본은 사색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이다.》

김정일

문학작품. 특히 소설에서 기본형상과제는 성격을 잘 그리는데 있다. 문학에서 인간을 그린다는것은 그의 성격을 그린다는것이다. 흔히 문학에서 인간을 화폭의 중심에 세울데 대한 문제가 많이 논의되는데 이것은 결국 그의 성격을 위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성격형상은 문학창작에서 근본적의의를 가진다.

고전적명제에서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인물의 성격창조를 위한 소설의 묘사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심리묘사이다.

여기에서도 특히 인물의 사색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이 중요한 창작적요구로 나선다. 인물의 사색과정을 잘 묘사하여야 성격의 본질적특징과 사고방식을 집중적으로 발현시킬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사색하는 존재이다. 실질적으로 사색을 떠난 인간이란 존재할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심리도 사색과정을 통하여 중요하게 발현된다고 볼수 있다.

소설창작에서는 성격을 위주로 내세워야 작품이 인간학의 본성에 맞을수 있다. 이처럼 소설창작에서 중요한 요구로 나서는 성격을 옹게 그리기 위해서는 심리묘사에 기본을 두어야 한다. 심리묘사를 성격형상의 요구에 맞게 잘하기 위해서는 인물의 내면세계를 펼쳐보여주는데서 사색과정을 기본으로 그려야 한다.

오늘 소설창작에서 인물의 사색과정을 잘 그려야 하는것은 문학의 발전과 인민대중의 미의식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추상적인 사유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 있던 인류발전의 낮은 단계에서는 사람이 주위세계를 직관적으로 감수하는데 머물렀으며 이러한 의식상태가 그대로 반영된 당시의 예술작품은 주위세계의 사물현상을 단순하게 모방하는것으로 일관되었다.

사물현상을 파악하는 사람의 인식능력은 시대가 발전할수록 커지게 된다. 이것은 인간의 사색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더욱 길어지고 심화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오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모든것을 직관적으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깊이 파고들려고 한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은 하나의 현상을 놓고도 그것의 본질적특징을 리해하고 분석하며 그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세우고 평가를 따라세운

다.

자주적인 존재로서의 우리 시대 인간들의 이러한 사유과정은 다름아닌 사색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사색이 없는 인간은 모든 사회현상과 사물현상의 본질적특징을 파악할수 없으며 옹게 분석평가할수 없다.

우리 문학이 내세우는 주인공은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서의 전형이다. 그러므로 문학창작에서 인물의 사색과정을 잘 펼쳐보여주는데 탐구를 깊이 하여야 한다.

고전적명제에서 밝혀준대로 심리묘사를 잘하려면 사색과정을 깊이있게 잘 묘사해야할뿐아니라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외형과 행동, 환경에 대한 묘사가 인물의 심리를 볼수 있게 되여야 한다.

인물의 외형과 행동, 환경에 대한 묘사는 인물의 심리가 비끼고 그의 사상감정으로 물들여지고 정서적평가에 의하여 굴절되여야 소설문학의 특성에 어울릴수 있고 독자의 관심도 끌수 있다.

소설창작에서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등장인물의 외형과 행동, 환경에 대한 묘사가 주어지지 않는것이란 있을수 없다. 그렇다고 창작에서 인물의 외형과 행동 그자체에 대한 묘사에 매달리거나 환경 그자체만을 그려서는 아무런 의의도 없다. 거기에는 반드시 인물의 심리가 비껴야 하며 작가자신의 심리도 비껴야 한다. 작품에 나오는 인물과 작가의 심리가 비끼 묘사, 다시말하여 인물의 심리와 작가의 얼굴을 다같이 엿볼수 있는 그런 묘사라야 형상창조에 의의있는것이다.

아직도 우리 일부 소설들에는 인물의 심리가 잘 그려지지 못하여 독자들에게도 깊은 형상적여운을 남기지 못하고있다. 더우기 하나의 작품을 다 읽고도 주인공의 성격을 생동하게 표상할수 있는 진실한 심리묘사 하나 찾아볼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인물의 외형과 행동, 환경에 대한 묘사에 인물의 심리, 작가의 심리가 비껴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모든 경우는 소설창작의 기본형상적목적인 인물의 성격을 옹게 보여줄수 없게 하며 소설문학의 특성도 살릴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인물의 심리묘사에 탐구적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소설문학의 형상수준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오시여 외 1편

송두히

겨우내 진거름을 지고
장풍덕을 오르내리면서도
땅속에 씨앗을 알알이 묻고
포기마다 복을 주며 김을 매면서도
가슴 가득 넘치던 생각은
어버이수령님을 포전에 모실 생각

기적소리 울리며
렐차가 역구내에 들어설 때도
수령님 오시지 않으시나
못견디게 그리워 달려가던 마음이었어서

수령님 다시 모시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날의 그 비보에
땅이 꺼지고
하늘이 내려앉은듯
덕이 쏟아지게 만풍의 가을은 왔어도
마음은 텅 빈것만 같았어라

허나 우리의 **김정일**동지
어버이수령님께서 3년전 그날
영웅소장의 두손을 꼭 잡으시고
다음번에 오시여 원료기지포전도 보자시던
그 약속을 지키시여

온 나라 일군들을 다 보내주시었으니

젖은 눈굽을 훔치면서도
수령님 아니 오신다고 믿지 않아라
그날의 그 약속 지켜
그이께 드릴 기쁨을 꽃피우며
오늘도 래일도 기다리려니

그 마음속에
어버이수령님
패청한 이 가을날도 우리 마음속에 오시여라
몸소 원료기지포전을 걸으시며
인민을 위해 또 큰일을 하였다고
대견하고 만족하시여
해빛같은 미소를 한껏 터치실
그날만을 안고 뛰고달리는 전천의 마음

아, 어제는 연백벌의 농장원들이
오늘은 전천의 상업관리소 일군들이
어버이수령님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그마음 헤아려 베푸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그 사랑 있어
이 땅의 어디서나 그 누구나
마음속 깊이 수령님을 모시고 살아라

정들어 못떠나오

산이 첩첩 많고 높아
맹산이라 불렀던가
그 옛날 사람들 살길 찾아왔다
못살곳이라 하소하며
고개넘어 떠나간 고장이여

허나 오늘은 못떠난다오
산에 정들어
물에 정들어
사람들 정이 후더워

우리 사는 군소재지
도시처럼 구역과 거리 이름 따로 없어도
키돋움하며 준비하게 일떠선 살림집들

변듯한 포장도로
10년전에 찾아왔던 사람들
친척, 친구 주소도 다시 물어본다오

하늘 날던 두루미떼
양지바른 산기슭에 내려앉은듯
추녀 마주 새로 옮겨지는 아담한 문화주택
지나가는 길손들 손잡아 이끌고

산은 산마다 보물동산
봄이면 구름속에 꽃향기
여름이면 꿀짜마다 진한 꿀향기
가을이면 산열매 골마다 넘쳐나니
상점과 식당마다 맹산의 특산

그 옛날 신선도 부러워 올겠소

산이 높아 한숨 높고
골이 깊어 가난 깊던
어제날 땡산이 아니라고
산이 많아 자랑 많고
골이 깊어 기쁨 끝없는

아, 땡산!
어버이수령님 생전에 베푸신 사랑에 더해
우리의 **김정일**동지 더 활짝 꽃피워주신 땅
그 품속에 행복이 무르익는 산촌이여
우리 바친 땀도 열매로 주렁지여
날마다 정도 깊어져 못떠나오

영원한 그 믿음 안고

최광조

그날도
수령님은 말씀하셨지
동무들을 믿고서
농민들과 이 비료를 약속했다고

뜨거운 그 믿음에
힘은 샘솟아
저 발생로에도 합성탑에도
만부하의 기쁨을 실었던 우리
아아 어찌 알았으랴
수령님의 그 말씀
유혼되어 이 가슴에 무겁게 얹어질줄을

되새기면
북관땅 다락밭에 오르시여도
청단벌 한끝에 가시여서도
농민들과 비료를 약속하시며
해종일 걸으시던 발자국소리

해토무렵
눈석이밭머리에서
모관자리 정해주시면서도
모살이 한창인 논머리에서
포기당 대수를 헤아리시면서도
언제나 먼저
홍남의 우리들을 생각하시였거니

아 인민에게 흰쌀밥 안겨주시려
그토록 애쓰신
수령님 마음속에서
언제 한번 우리가 떠난적 있었던가

두렁길 걸으시던 그 걸음으로
눈비에 젖으신 그 옷차림으로

한해에도 몇번씩 우릴 찾아주시고
비료는 쌀이고
쌀은 공산주의라고
그래서
홍남에 오면 가고싶지 않으시다고
가실 때도 마음은 두고 가신다고
하시던 그 말씀
이 가슴 불태우거니

발생로야 타올라라
내 마음의 불길 안고
압축기야 뿔뿔여라
내 심장의 고동처럼

이제는 눈물이 아닌
이제는 비분이 아닌
우리의 땡세
우리의 각오로
끝없이 쏟아지는 이 비료

강물처럼 흘러야 하리
산처럼 높이높이 솟아야 하리
수령님 생전에 약속하신
그 모든 농장과 포전들에
해해년년 쌀풍년 만풍년을 부르며

아 어버이 우리 수령님
농민들과 나누신 사랑의 그 약속
한생을 다 바쳐
지켜가는 길에서
우리 살리라
수령님의 영원한 그 믿음 안고
수령님의 영원한 그 믿음 안고

우리의 앞길

최성진

편집부로부터 설날을 맞으며 글을 써달라는 청탁이 있었다.

그때문에 나는 한해의 마지막날을 보내는 이밤에 원고용지를 마주하고 앉아있다. 원래 글재간이 신통찮은것이어서 작은 형식의 별치 않은 산문글 한편을 쓰면서도 며칠씩 머리를 쥐어짜야 하는것이 레상사지만 이밤은 더더욱 글이 나가지 않는다. 그저 생각만 많아질뿐이다.

지난해 설날에도 나는 편집부로부터 이와 똑같은 청탁을 받았었다. 그때에는 오늘과 사정이 달랐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격동된 심정을 담아 나는 별로 긴 품을 들이지 않고 글을 완성할수 있었던것이다. 나로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이해의 설을 맞으면서는 어떠한가. 생각은 많은데 문장은 고를수 없다. 정작 펜을 잡으면 눈앞이 흐려지기부터 한다.

눈앞에는 원고용지가 아니라 금수산의사당을 찾았던 그날의 정경만이 자꾸만 떠오른다.

조기가 무겁게 드리웠던 그 잊을수 없는 7월의 금수산의사당, 대하의 한방울 물마냥 수수천만 조객들의 흐름속에 휩싸여 어버이수령님의 령구를 찾아가던 그때의 내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나는 어버이수령님의 령구앞으로 다가갈 시각을 기다리며 출입문이 있는 홀안에 서있었다. 넓고 긴 홀의 한끝, 수천의 아들딸들이 묵묵히 머리숙인 그우로 저 멀리 붉은 조명속에 누워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눈물의 망막속으로 안겨왔다. 어버이수령님을 목메여 부르며 그이의 령구옆을 못떠나는 사람들의 몸부림,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울려오는 호곡의 아득한 여파!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거대한 상실이 현실임을 새삼스럽게 절감하며 나는 오열에 몸을 떨었다. 눈앞이 캄캄해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홀안에 꼭 들어찬 사람들도, 장내를 물들이는 붉은 조명으로...

다만 온몸에 감각되어오는 이 세계의 거대한 슬픔으로 하여 마비되어가는 사고의 한끝을 애써 붙잡고 나는 지나온 자신의 생애를, 어버이수령님앞에 죄많은 이 철없는 자식의 지난날을 풀길 없는 자책속에 돌이켜보았을뿐이었다.

오, 세월이여, 너는 이다지도 무자비한것이나!

인민의 가슴속에 크나큰 피눈물의 응어리를 남겨놓은채 7월은 멀리로 흘러가버렸다.

지금은 새해 1995년이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온 민족이 통일잔치를 차리자고 약속했던 1995년이다. 폐-에-앵-, 폐-에-앵- 온 나라에 울려가는 제야의 종소리, 결코 망각되지 않은 7월의 비애를 우리들의 의식속에 더더욱 새겨주며 울려퍼지는 제야의 종소리! 미구하여 이해의 첫아침이 밝아올것이다.

해마다 자기들의 설맞이공연무대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셔오던 우리 아이들은 수령님의 그 영상 그리며 이밤의 무대우에 눈물의 바다를 펼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설명절을 쇠는 자기들의 집에만들리실것만 같아 한알한알 정성다해 쌀을 골라 햇쌀밥을 지어놓고 기다리곤했다는 청산벌의 어느 농장원부부도 이밤엔 수령님 생각에 잠들지 못하리라!

그러니 작년 이맘때만 하여도 날이 밝으면 수령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게 될 흥분에 들떠 가슴들먹이며 글을 썼던 내가 이밤에 무슨 글을 써야 할것인가? 하지만 나는 결코 락망하는것이 아니다.

태양은 여전히 우리들의 머리에 찬란히 빛나고있지 않는가. 우리 인민은 자랑스럽게도 현시대가 낳은 가장 걸출한 위인을 우리 혁명의 최고령도자로 모시고있다. 그분은 **김정일**동지이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김정일**동지- 그분은 곧 위대한 **김일성**동지이다. 그 위대한 태양이 우리 민족을 품에 안아주시고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오계시는것이다.

우리의 앞길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여 보람차고 긍지높은 삶을 누려온 우리 인민! 그렇듯 수령복을 타고난 우리 인민은 오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혁명의 길을 멈춤없이 이어가고있다. 저 아득히 열린 세월의 지평선우로 우리 가야 할 앞길은 열려져있다. 태양의 열광에 싸인 저 길을 따라 이제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생활이 펼쳐질것인가! 그렇다, 우리의 앞길은 찬란하다!...

나는 가슴이 후터워 책상에서 물러났다.

깊어가는 수도의 밤, 미구하여 이해의 태양이
솟으려는가. 봉화가 타오르는 주체사상탑 저너머
동녘하늘가에 붉은 후광이 어리기 시작한다.

나는 수도의 거리를 걸어간다. 이밤의 거리는
사람들의 물결로 차고넘친다. 창공을 향해 키돋
음한 고층살림집들의 창문들에는 새날이 오도록
불빛들이 어려있는데 포도우로 미끄러져가는 무
퀘도전차안에도 사람들이 가득 타고있다. 어디로
가고있는것인가. 설날이면 의례히 공지도 많고
기쁨도 많고 또 후회와 자책도 많은것이다. 하지
만 이해의 설은 레사롭지 않다.

나는 이밤에 잠 못들고 거리로 펼쳐나온 저들
이 지금 어디로 가고있는지를 안다. 저들은 지금
가장 자애로우신 수령님의 모습이 그리워 그분
의 모습을 뵈자고 찾아가는것이다.

나 역시 꽃을 안고가는 그네들속에 섞이여 걸
음을 옮기었다.

나는 하늘의 선녀들이 내린듯 이밤도 수정등의
눈부신 빛발을 받으며 아름다운 너무용수들이
화려한 원무를 펼치고있는 만수대예술극장 어구
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아니 나의 자그마한 존재
를 떠실고가던 거대한 인파가 갑자기 흐름을 멈
춘것이다. 뜨거운 환희의 여파가 멈춰선 군중들
의 머리위로 날아와 나의 심장에 닿는다.

나는 머리를 들었다. 수천의 눈길이 가닿은 그
곳, 소년궁전이 있는 장대채기슭에 모셔진 어버
이수령님의 영상이 보인다! 그분께서 밝은 불빛
아래 환하게 웃으시며 굽어보신다.

나는 뜨거운것이 눈앞을 가리고 걱정에 목이

꼭 메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다정하신 음성이 들
려오는것만 같았다. 언제나 기쁨과 행복만을 누
리며 화목한 대가정으로 살아가라고, **김정일**동지
를 모시고 이 땅에서 천세만세 번영하라고, 복 많
은 인민이 되어 민족의 역사를 빛내이라고...

아, 어찌 우리 수령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랴! 오늘도 수령님께서서는 천지가 밝아지도록
축복해주고계시지 않는가! 수령님께서서는 오늘도
인민과 함께 계신다. 인민과 함께 이해의 설명절
도 쇠신다. 설맞이공연도 보아주시고 청산벌제대
군인 농장원부부의 집도 찾으시여 소박한 설인사
도 받아주신다.

가난했던 이 나라를 한품에 안으시고 우리 인
민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시려고 그리
도 마음을 많이 쓰시며 험한 길을 헤쳐오신 어버
이수령님! 우리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놓으시
여 민족의 밝은 앞길을 구만리로 열어주신 수령
님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이 가슴 젖어든다.

오늘의 지구촌을 둘러본다. 얼마나 많은 사람
들이 앞날에 대한 희망을 못가지고 우울과 번민
에 싸여 이해를 맞고있는가. 황금이 인간을 지배
하는 자본주의세계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
들에서 절대다수의 근로민중이 그렇게 살고있다.

세계여, 부러워하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사는 나라,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당과 혁명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그이께서 이끄시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신심드높
이 나아가는 우리를 부러워하라!

김일성동지는 영생하십니다

모함마드 아슬람 나기

김일성 그이는 혁명의 령도자
인민들의 심장마다
주체의 불씨 심어주신분
그이는 **김일성**동지

인민들에게
사랑의 보금자리 마련해주신분
암담한 민족수난의 시기
희망의 등대를 밝혀주신분

그이는 **김일성**동지

제국주의자들 찢절매게 철추를 내리신분
인류의 평화 지켜주신분
3세계인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신분
김일성동지
그이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필자는 파키스탄 사람임)

흰연기 외 1편

한찬보

저 연기였어라
저 연기였어라
우리 수령님께서
아침저녁 바라보시며 기뻐하신
화력발전소 연기
끓는 쇠물을 보시듯
설레이는 풍년벌을 보시듯

그렇더라
저 발전소 연기였어라
경사로운 4월명절
지하철도에 몸을 싣고
만경대유희장을 찾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듯
미소속에 바라보신 연기

하늘높이 내뿜는
대동강의 쌍분수
그 강반에 앉아 즐거이 속삭이는
청춘의 꿈을 헤아리시는듯

언제나 즐거이 바라보신 연기

저 연기였어라
저 연기였어라

봄이면 학생들의 교복을 누비는 소리 들으시는듯
여름이면 생명수 퍼올리는 소리 들으시는듯
가을이면 탈곡장의 웃음소리 들으시는듯
겨울이면 집집에 온수 흘러드는 소리 들으시는듯

아 정녕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 온 심혼속에 깃들어
조국의 번영과 행복을 하늘가에 새겨온
화력발전소의 흰 연기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그 뜻으로
내 나라의 하늘가에 피어오르리

이 땅에 흐르는 전기는

지나간 해들의
신년사를 보라
해마다 전력을
뒤자리에 세운 일 있었던가

중요회의 결정서를 찾아보라
거기에 전력을
뒤전에 놓은적 있었던가

사회주의 진군길도
전류와 함께 가는 길이니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앞장에 세웠어라
그 전기

그런 전기여서
생전에 우리 수령님
그리도 간곡히

그리도 뜨겁게
우리에게 말씀하신것 아니었더냐

가슴아픈 유혼의 교시
자책속에 받아안은
우리 가슴 미여지여라
어버이를 잃은 슬픔
힘과 용기로 바꾸어
눈물의 흔적 가시며
만부하를 거는 이 마음이어

우리는 안다
이 강산에 흐르는 전기
조선에 흐르는 전기는
우리 수령님
그 불멸의 유혼과 함께 흐름을

그 불빛속에

내 나라, 내 조국의 번영이 있고
 그 섬광을 안고
 주체조선의 위력 만방에 떨치니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는
 전기는 피와도 같은것
 피가 흐르지 않아보라
 우리의 몸에

전기가 없어봐라
 우리의 생활에
 전기!
 생명과도 같은 전기를 위해
 동력전사
 너와 나
 우리의 삶이 있어

오늘도 래일도 먼 후날에도

김송남

비료공장구내를 적시고
 흥남의 하늘땅을 다 적신
 그 피눈물속에서 깨달은
 비료는
 더욱 소중합니다

비료-이것때문에
 기쁨도 많으셨고
 걱정도 크셨던 아버지수령님
 사랑의 먼길 그 한끝에서
 그날 수령님 생각하신 비료는
 기쁨이 아니라 걱정이였습니다

이제는 유훈이 된 그날의 말씀
 이 가슴 아프게 파고들니다
 비료를 더 많이 내라고
 하나하나 방도를 가르쳐주시며
 며칠후에 비료문제를
 다시 보아주시겠다시던 아버지수령님

그 약속을 두고
 그 며칠을 두고
 다시 못오실 길을 영영 가시였기에
 피눈물에 젖던 우리 가슴에
 무겁게도 얹어진 이 비료

정말 이제는
 매일같이 이 비료 보아주시고
 매일같이 우리 일을 보아주시는것만 같아
 구내길 그 어데서나
 늘 아버지눈빛을 느끼며 사는 마음
 압축기에

우리 심장의 높은 압을 겁니다
 은빛 합성탑과 흘러가는 배관들에
 우리의 팽팽한 숨결을 잇습니다
 오늘에 어제보다 더 뜨거워지고
 래일은 오늘보다 더 간절해지는
 수령님을 생각하는 그리움을 담습니다

그리도 자주 찾아오시여
 비료는 쌀이고
 쌀은 곧 공산주의라 말씀하시던 수령님
 환히 웃으시던 아버지 그 미소는
 흥남이 안고살 영원한 해빛

그리워 그 해빛 다시 안아봅니다
 비료에 남기고가신
 인민을 위한 크나큰 그 사랑
 그 사랑만큼 높아지라고
 비료산 쌓아갑니다

아, 이 비료 다시 보아주시겠다시던
 며칠후의 그날은
 영영 오지 못했어도
 우리 마음속엔
 매일매일 그날이 찾아옵니다
 이제부터는 하루하루가 모두 그날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그이의 기쁨이 된 이 비료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리며
 그날처럼 환하신 아버지 그 미소
 안아보고 또 안아보며
 흥남은 이렇게 살것입니다
 오늘도 래일도 먼 후날에도!...

대민족

리성덕

력사자료취재를 하다가 일제경찰의 비밀자료철에서 한 기자가 쓴 수기를 발견하였다. 자료철머리에는 이런 글이 씌여져있었다.

《경성(서울)보성사 기자 서창민, 27살, 본적지 경기도 수원군, 1920년 12월에 쓴 아래의 수기를 그의 사상동향연구에 참고할것.》

수기전문을 가필없이 그대로 소개한다.

X

기미년(1919년) 9월 2일, 이날이 가지는 역사적의미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가. 물론 세계력사의 변화발전이라고 하는 거시의 안목으로 볼 때 이 하루는 식민지 조선의 평범한 하루에 지나지 않겠으나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름없는 한 기자 개인의 생애라고 하는 미시의 안목으로 볼 때 이 하루는 결코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다. 경이의 하루요, 충격의 하루요, 커다란 깨달음과 더불어 자신을 발견하게 된 하루라고나 할가.

이날 오후 4시경에 나는 남대문역에 이르렀다. 언제나 봄비는곳이지만 이날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경관들의 경계가 류달리 심하고 역사주변의 분위기는 자못 엄엄하였다.

역광장에는 십여대의 화려한 마차와 승용차들이 줄지어서있는데 그 갖춤새가 여간만 화려하고 요란한것이 아니었다.

(하기는 그럴테지, 신임총독이 오늘 도착한다고 했으니 부산을 떠난도 하지.)

나는 쓰거운 침을 삼키며 헌병들과 경관들, 총독부 관리들과 성장한 한 일본녀자들 그리고 군악대가 정렬해 서있는 역홀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물론 기자라는 신분으로 그렇게 할수 있었다.

신임총독이 탄 특별렬차가 도착할 시각까지는 아직 얼마간의 시간이 있었던지 꽃다발을 들고 환영나온 왜인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별로 흥겹지도 요긴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루하게 주고받으며 사방을 두리번거리고들 있었다.

그네들의 움직임이 먼발치에서 쏙쓰레한 눈길로 살펴보고있노라니 나의 머리속에서는 문득 저네들이 과연 새 총독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있을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다.

3월 1일을 기하여 조선 삼천리를 진감시킨 독립만세운동을 무서운 공포와 전율 속에서 겪고난 저네들은 비로소 죽지 않은 조선의 정신, 조선의 넋을 보았을것이고 이 나라에 군림하여 탄압과 략탈을 자행하는 저들의 행위가 비법, 위법이라는것을 깨달았을것이며 저들의 머리우에 항시

적으로 드리워있는 무서운 보복의 철추를 직감하였을것이 아닌가.

그러니 새 총독이 와서 정치를 《쇄신》하여 저들을 궁지에서 건져주리라 믿고들 있는것일까?

실로 고소를 금할수 없는 일이었다.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강점하고있다는 천인공노할 정치적상황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한 하세가와총독을 사이토총독으로 바꾼다고 하여 달라질것이 무엇이었는가.

3.1독립만세소리에 넋이 나간 일본 《천황》이 너무도 급해서 8월 13일에 서둘러 《조서》를 발표하여 무단총독 하세가와를 해임하고 당시 일본정계에서 이른바 《온건파》로 알려진 해군대장 사이토마코도를 제3대총독으로 임명한다는것을 공포하였을 때 벌써 정세를 판단할줄 아는 사람들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던것이다.

삼천리강토를 타고앉아 조선민족을 영영 말살해버리려고 피를 물고 날뛰던 일제의 얼굴에 갑자기 떠도는 저 《문화통치》라는 어색스러운 미소는 웃음이 아니라 전율을 느낄만치 무서운 악마의 표정이었던것이다.

지난 4월 15일, 수원군 제암리에서 벌어진 치떨리는 무서운 살인참극에 대해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잊지 못할것이다.

그날 일본군 제20사단 79련대 소속 보병중위 아리다라는자는 10여명의 줄병들을 이끌고 마을에 기여들어 사람들을 교회당에 모이게 한 다음 밖으로 문을 닫아걸고 건물에 불을 질렀으며 창문을 향하여 총을 마구 란사하였다.

조선사람들의 붉은 피가 교회당주변으로 도랑지어 흘러내렸다. 한 아낙네가 창문으로 어린 아기를 내밀면서 《나는 죽어도 좋으니 이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애라게 웨치자 왜놈살인귀들은 그 어린것마저 총창으로 찢러 다시 불붙는 교회당안에 집어던졌다.

이날 이 마을에서는 300여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이 원한을 품은채 피를 뿌리며 쓰러졌고 수원군에서만도 317호의 집이 불타고 1,000여명의 조선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당하였다.

독립만세를 불렀다는 이유로 3월초부터 5월말에 이르는 기간에만도 일제는 7,500여명의 조선사람들을 학살하고 근 1만 6,000여명을 부상시켰으며 근 4만 6,700명을 검거투옥하고 야수도 닦을 불필 온갖 고문을 들이댔다.

이것이 일제의 진면모이고 참모습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겨우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조선사람들이 흘린 피가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새

총독이 《문화통치》의 너울을 쓰고 미소를 지으며 서울로 기여든다고 하니 눈을 뜨고 그것을 목격해야 할 나의 심정은 실로 착잡하였다.

환영곡을 불러대는 저 군악대의 번쩍거리는 나팔주둥이에서 음악이 아니라 폭탄이 쏟아져나왔으면, 환영나온 왜인계집들이 들고섰는 저 꽃다발마다에서 향기가 아니라 독기가 풍겨나왔으면 하고 나는 빌었다.

오후 5시경, 총독이 탄 특별렬차가 남대문역으로 서서히 들어서고있었다. 괴물처럼 검은 연기를 뿜으며 달려오는 기관차의 형체가 보이자 나는 두눈을 꼭 감고 마음속으로 빌었다.

(아, 하늘이여, 제발 벼락이라도 내려주소서. 저 구미여우를, 저 승냥이를, 아니 저 너울썩 악마를 징벌해주소서. 조선민족의 뼈와 살과 땀까지 아작아작 씹어삼키려고 달려드는 저 마귀를 징벌해주소서.)

환영곡이 울리고 《반자이!(만세)》 소리가 어지럽게 일어나자 나는 눈을 떴다.

렬차가 멎어서고 해군대장의 금줄제복을 입은 신임총독 사이토 마코도가 뚱뚱한 몸을 뚱기적거리며 너편네와 함께 흠에 내려서는것이 보이었다.

그자의 얼굴에는 그가 앞으로 집행해야 할 《문화통치》의 면모를 말해주는듯한 간사하고도 교활한 미소가 떠돌고있었다.

요란하게 울리는 19발의 레포소리에 군중이 모두 정신이 얼얼해지는 가운데 사이토는 오만하게도 흰 장갑을 낀채로 환영나온 총독부관리들과 각국 외교사절들, 조선귀족들(매국노들에게 저주가 있으라!), 금줄 두른 장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이윽고 역광장으로 나온 사이토는 만면에 레의 그 간사한 웃음을 띠우고 흰 장갑을 낀 손을 들어 답례하면서 화려한 4륜마차로 천천히 다가갔다.

너편네를 먼저 오르게 한후 그자가 마차에 오르려고 하는 순간, 《썩!》 하고 요란한 폭음이 울리었다!

총독의 마차주변에서 화약연기가 물씬 솟아오르고 비명소리가 터지면서 호위를 맡은 경관들이 펍 쓰러지는것이 보이었다.

아,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늘이 무심치 않구나. 무심치 않아...

나는 미칠듯한 격정에 사로잡혀 군중을 헤집고 수라장이 된 마차결로 달려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을줄 안 사이토는 얼굴이 백지장같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마차우에 그대로 엉겨주춤 서있었다.

《난다? 하야꾸! (뭘야, 빨리)》

다급히 내지르는 그자의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와 함께 마차는 왈칵 앞으로 내달리면서 총독부

쪽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아, 실패했구나!)

나는 너무도 분하여 주먹으로 땅을 치고싶었다. 폭탄소리에 격동된 군중은 흥분으로 술렁거리고 있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분명 폭탄을 던진 사람이 있을것이고 그 사람도 지금 주먹으로 땅을 치며 통곡하고싶은 심정일것이다.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나는 일제군경들이 꼬리에 붙달린 짐승처럼 《범인》을 잡겠다고 날뛰는것이며 중경상을 입고 쓰러진자들을 급히 병원으로 호송하는것을 지켜보다가 그곳을 떠났다.

왜놈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조선사람의 뼚은 아갈수도 짓누를수도 없다는것을 이때처럼 절감한적은 없었다. 또 한사람의 안중근이가 났구나! 아, 우리 민족! 단군이래 5천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어엿한 우리 민족, 언제한번 외적에게 민족의 존엄을 통략당한적 없고 언제한번 타민족에게 불의의 화살을 날려본적 없는 고결하고 순박한 우리 민족!

오늘 비록 왜적의 칼날아래 피를 뿌리는 치욕을 당하고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어찌 반만년을 가꾸어온 그 고결한 민족의 얼을 하루아침에 잃을수가 있겠는가.

원쑤가 우리의 피를 요구하면 우리도 원쑤에게 피를 요구할것이요, 원쑤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면 우리도 원쑤의 사지를 얹어떨것임을 사이토에게 던진 그 폭탄이 말해주지 않았는가.

아, 대체 어떤 열혈청년이 그러한 장쾌한 거사를 했을까? 비록 거사는 실패하였으나 그 사람은 영웅이다! 그 사람은 2천만의 마음을 대변하여 사이토총독에게 아니 일본제국주의라고 하는 괴물의 정수리에 죽음의 폭탄을 던진것이다. 과연 그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그때 서울장안은 뒤골목에서까지 온통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미칠듯이 악에 받친 사이토는 그날 마차주변에서 록군소장 무라다 등 29명의 일본인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보고를 받자 온몸을 공포에 떨면서 사흘안으로 《범인》을 잡아내라고 호통쳤다고 한다.

그러나 사흘이 아니라 열흘이 지나도록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사직동 아무개네집에서 그 《범인》이 잡혔다는 미적지근한 소문이 한동안 떠돌다가 그도 잠잠해지고 어느덧 독립만세소리로 세상을 진감시켰던 1919년도 서서히 저물어갔다.

그럭저럭 새해가 잡히고 그 새해도 달포가 지나갔지만 나는 폭탄을 던진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한시도 잊은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때 공교롭게도 이 사건에 잠시 관심을 모을수 없게 하는 개인적인 일이 생기었다. 멀리 촌에 사시는 삼촌으로부터 급히 다녀가라는 편지가 왔던것이다.

《...돌아가신 너의 부모를 대신하려는 늙은 삼촌의 성의를 막지 말아라. 일전에 혼사말이 있는 강씨처녀와의 혼인날은 4월 초하루로 정하였으니 인륜대사에 랑패없도록 도착하기를 바란다.》

이런 편지였다.

늙으신 삼촌이 애써 성사시켜온 일을 그럴만한 까닭도 없이 미룰수가 없기에 나는 동료들에게 사연을 알리고 별다른 생각없이 삼촌집을 찾아떠났다.

어스스케한 3등차칸에 앉아 차창밖으로 흘러지나가는 산천을 바라보느라니 저도 모르게 생각은 강중옥이라는 처녀에게로 달려갔다.

내가 그 처녀를 처음 알게 된것은 고종황제가 원인불명으로 급사한 직후 나의 이름이 출판제에 한창 드날리던 그때였다.

고종황제가 기미년(1919년) 1월 22일, 앓지도 앓고 갑자기 운명하자 왜놈들이 독살했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다. 그도 그럴것이 배가 아프다고 하던 황제가 《내가 무슨 음식을 먹었기에 이러하냐?》 하고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그때 그의 두눈이 벌겋게 충혈되고 온몸에 반점이 돌아있었으며 시중을 들던 시녀 두사람까지 누구도 몰래 피살되었다고 하니 왜놈들이 고종황제의 음식에 독을 넣게 하였다는 소문은 한갓 풍설이 아니라 사실이 틀림없었다.

실권없는 존재였으나 그래도 한나라의 황제였던 사람을 그렇게 죽이다니 이런 민족적치욕이 어디 있는가. 왜놈들이 왕후 민비를 칼로 찍어죽이고 그 시체마저 불태워버린 저 치떨리는 《을미사변》을 저지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번에는 황제까지 독살했다는것을 알게 된 2천만겨레가 모두 비분에 떨고있었다.

나도 끓어오르는 의분을 참을길이 없어 밤을 새워가며 피눈물로 쓴 글 한편을 신문에 발표하였는데 그때 그 글을 모두가 《제2의 시일야방성대곡》이라고들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친구들은 나를 《재사》라느니 붓끝이 예리하기로는 서창민을 따를 사람이 없다느니 하기도 했고 일제경찰은 나를 요시찰인물로 점찍어 감시하기 시작했다. 하여간 그즈음에 서창민이라고 하면 아주 대단한 민족사상가, 필치가 예리한 문필가로 그 어디서나 떠받들었다.

그런데 그때 촌소학교 한 처녀교사(교원)로부터 뜻밖의 편지 한장이 날아와서 나를 놀라게 했다.

편지내용인즉 당신의 글에서 국권회복과 나라의 독립을 위한 그 어떤 방도를 밝힌것이 있느냐고 묻고 그것이 없는 한 그 글은 2천만에게 무익한 눈물이나 강요하는 글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평이었다.

나는 매우 건방지고 주제넘은 녀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을 두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참 엉뚱한데가 있는 녀성이라는 느낌이 들면서 한번

만나보고싶은 호기심까지 생기었다.

그래서 그로부터 얼마후에 기회가 생기자 그 녀자를 만날 작정을 하고 길을 떠났다.

덕천군 무릉면 사립소학교 교사 강중옥!

대체 어떤 녀자이길래 초라한 촌소학교의 손바닥만한 흑판앞에 서서 서울의 유명한 일류지성인들에게 사대질을 해댈가?

참으로 흥미있는 일이라 아니할수 없었다.

나는 무릉면 제남리에 있는 삼촌집에 먼저 들렀다.

려장을 풀고 이 먼 소학교에 강중옥이라는 녀자가 있는가고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더니 삼촌내외는 그 처녀가 바로 이 마을에서 늙은 고모와 함께 산다는것이였다.

이튿날이 마침 일요일이어서 나는 학교까지 찾아갈것 없이 처녀를 만날수 있었다.

자그마한 삼간초가앞에 가서 주인을 찾으니 마침 그 처녀가 나왔다. 먹빛처럼 까만 치마저고리를 산듯이 차려입고있었다.

내가 서울 보성사 기자 서창민이라고 하자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저으기 당황해하는 기색이였다. 잠깐 만나자는 나의 요구에 처녀는 오래 망설이지 않고 선듯 응해나섰다. 역시 도담한데가 있는 녀성이였다.

우리는 마을앞으로 흐르는 강변으로 나갔다. 아직 날씨는 쌀쌀하였으나 버들강아지가 노랑게 핀 강변은 벌써 봄을 읊조리고있었다.

그때 처녀와 주고받은 이야기를 여기에 루루히 다 쓸 뎌은 없으나 어쨌든 말을 주고받아보니 그 처녀가 글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필자에게 질문할만큼 자기 론리에 대한 확신과 대담성을 소유한 놀랄만한 처녀라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 웬일인지 그 처녀의 까만 치마저고리와 무던히도 회고 반듯한 저고리동정이 그때 나의 첫 인상에 깊이 새겨졌었다. 미모로 보나 지성으로 보나 서울처녀들이 결코 그보다 못할수는 없었지만 웬일인지 나의 글에 정면으로 도전해온 그 맵싸고 리지적인 처녀를 쉽게 잊을수가 없었다. 아니 저도 모르게 그에게로 마음끌려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기도 했다.

여러번 편지도 주고받고 만나기도 했다. 싫지 않은 그 성격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그후에 나의 삼촌이 발벗고 나서서 매파를 띄우고 처녀의 고모되는 늙은이의 승낙까지 받아내서 드디어 우리들의 약혼이 이루어지게 되었던것이다.

비록 나라잃은 불행한 식민지청년이였지만 어쨌든 청춘은 청춘이였다.

3등차칸의 어스스케한 불빛아래서 지그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하니 밝게 웃으며 다가오는 강중옥의 정다운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다. 검은 치마저고리와 대조되어 유난히도 눈부시게 빛을 뿜던 그 희디흰 동정, 리지적으로 빛나던

눈길...

《창민씨, 존경하고 사랑해요. 한생을 후회없이 파르겠어요.》 이것은 그가 속삭인 사랑의 언약이었다.

사랑이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생각이 그에게로 쏠리자 차바퀴 굴러가는 소리조차 《사랑해요》 《사랑해요》하던 처녀의 소리로 확대되어 울리는듯싶어졌다.

이렇게 하루밤을 차칸에서 지나보내고 다음날 인심 후더운 삼촌집을 찾아갔다.

이른 저녁녘인데 금방 발일에서 돌아오신 늙은 삼촌내외는 반가와하면서 왜 웬일인지 시름겨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있었다. 혹시 가난한 농사집살림이라 잔치준비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는줄 알고 나는 굳이 물지를 앓았다.

그런데 저녁을 치른후 혼자서 담배 한대를 다 태우고난 삼촌이 나를 옷방으로 조용히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창민아, 내가 부모를 대신하여 너희들 혼사를 한번 잘 치려주자고 했더니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나는 역시 잔치준비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삼촌, 잔치는 시늉만 내도 되니 걱정마세요. 잘 차리지 못했다고 탓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다. 그런 일이라면야 무슨 걱정이겠느냐.》
《그러면 무슨...》

삼촌은 담배를 다시 피워물고나서 무겁게 입을 열었다.

《며칠전에 강씨처녀가 간다온다 소리없이 마을에서 사라져버렸구나!》

《네?!》

나는 너무도 뜻밖의 일이어서 믿어지지 않았다.

《마을에서 사라지다니요?》

《글쎄, 잔치를 앞둔 처녀가 온다간다 말두 없이 달아나버렸으니 이런 망신스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 남보기도 부끄럽구...》

(아니, 그럼 결혼을 피하여 도망쳤단말인가?)

나는 둔중한 주먹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때처럼 한순간 아무 생각도 할수가 없었다. 다만 무엇인가 일이 매우 잘못되어간다는것만이 분명히 느껴졌다.

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엇을 하려고 일어섰는지 나도 몰랐다.

《그만 진정하거라. 처녀의 고모네 집에 가봐야 늙은이의 눈물밖에 볼것이 없다. 고모의 말이 며칠전에 처녀가 어떤 편지 한통을 받은적이 있고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는구나.》

《편지요?》

나는 다급히 물었다.

《누구한테서 온 편진데요?》

《글쎄, 그 늙은이가 글을 모르니 그게 어디서

온것인지 알아둘수가 없었다는구나.》

순간 나의 머리속에서는 그 어떤 정체모를 사나이가 보낸 유혹의 편지를 받고 결혼식을 피하여 도망치는 강중옥이라는 처녀의 역겨운 모습이 얼핏 떠올랐다. 하기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전혀 없는것도 아니다. 나보다 훌륭한 남자를 알게 되었다면 그럴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 순간부터 나는 삼촌내외의 시름정도에 비길바가 아닌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말았다.

나의 인격, 나의 인간적가치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기자로서의 나의 활동, 나의 량심은 촌소학교 교사인 나어린 처녀에게서 배신을 당할만큼 저조하거나 유치한 것이였었다는 판단에 이르렀으며 더구나 강중옥이라는 처녀는 조금도 넓어진데가 없는 녀성이기에 그 어떤 값죽은 유혹앞에서 량심과 의리를 저버릴 인간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그 결론앞에서 나는 조금도 위안을 찾을수가 없었다.

처녀가 실종된것은 그 어떤 추리나 사색의 결과가 아니라 아무 설명없이도 명백한 현실이었던 것이다. 나는 이 현실을 쉽게 믿을수가 없었다. 그 어떤 미련때문은 아니였지만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허락치 않아서 그대로 발길을 돌릴수가 없었다.

심각한 고민의 련속속에 지내던 어느날이였다.

삼촌내외는 발일을 나가고 나는 빈집에 남아서 이른바 《실련의 고민》에 잠겨있는데 문밖에서 《계세요?》 하는 너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퍼그나 조심스럽게 울리는 목소리였다.

지나가던 길손이려니 생각하고 나는 대답도 없이 문을 열었다.

뜻밖에도 문밖에는 바로 그 처녀가 서있었다.

처녀는 나를 알아보자 가볍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웃고름만 만지작거리며 서있었다.

《아니?! 웬일이요?》

나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문고리를 잡은채 처녀를 바라보기만했다.

처녀의 얼굴은 흰빨래처럼 창백하였다. 아니 창백하기만 한것이 아니라 그 피기 한점없는 얼굴에서는 뜻을 짐작키 어려운 비장한 그늘이 비껴있었다.

《아침에 도착하였어요.》

처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는듯하였으나 조금도 게면쩍어하는 기색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럼, 안으로 좀 들어오구려.》

나는 꾸밈없이 말했다.

《아니, 바쁘시지 않으면 잠깐 강변으로 나가서요.》

나는 아무 대답도 없이 웃고거리만 대강 걸치고 처녀를 따라 강변으로 나갔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강변이였다.

새움이 트기 시작하는 4월초의 강변, 돌보는이

없는 그곳에서도 봄은 한참 무르익고있었다. 하지만 말없이 걷는 우리 둘사이에서는 짜늘한 바람만 오가고있었다.

사람들의 눈에 띄이지 않을만큼 강변 버들숲속에 들어섰을 때 처녀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향해 돌아섰다.

《창민씨!》

나의 얼굴을 바라보는 처녀의 두눈에는 눈물이 어려있었다.

《용서하세요. 저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렇게 말하신대도 전 조금도 탓하지 않겠어요. 다만 저를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밀도끝도 없이 어떻게 이해하라는것인지 알수가 없구려. 대체 어찌된 일이요?》

나의 목소리는 저지기 노여움으로 떨리었다.

《제가 집을 나간 이유는 아직 말씀드릴수 없으니 더 묻지 말아주세요. 다만 지금 명백히 할수 있는것은 창민씨와 한생을 같이하자고 한 약속을 지킬수 없게 되었다는 그것뿐이에요.》

《뭐요? 그러니 결혼을 포기한다는...》

《그래요. 전 영원히 결혼 안하기로 결심했어요. 창민씨가 싫어서도 아니고...》

처녀의 목소리가 세계 떨리더니 점차 흐느낌으로 변해버렸다.

《용서해주세요. 달리는 할수 없는 일이에요. 부디 아름답고 진실한 너성을 배우자로 선택하여 길이 행복하기를 바라요.》

웃고름을 깨물며 터져나오는 오열을 삼키고있는 처녀에게서 감정에 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필사적인 몸부림이 느껴졌다.

(아, 세상일이란...)

나는 이때 벌써 마음속으로 개탄을 금치 못했다.

이쯤되고보면 그 처녀의 마음을 돌려세울수 없다는것이 너무도 명백하였던것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고싶지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묻고야말았다.

《실례이지만 중옥씨가 집을 떠나기전에 어떤 편지를 받았다고 하던데 혹시 그 편지가 이번 일의 원인이 아닙니까?》

처녀는 눈물을 거두고 흥분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대답하였다.

《그래요. 그 편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세속적인 행복의 포로가 되어 영영 뜻없는 한생을 보냈을거예요.》

이 순간에 나는 기분이 언짢았다. 세속적인 행복이요 뜻없는 한생이요 하는것이 어찌지 나를 빗대고 하는 말로 들렸기때문이었다.

《그래, 뜻있는 한생을 알려준 그 사람은 대체 누군가요?》

나의 목소리에서 흐르고 있는 진한 조소를 느끼자 처녀는 겁먹은 목소리로 서둘러 대답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정말 고마운분이에요.》

《물론 고마울테지...》

《아니예요. 창민씨, 제가 어떤 다른 사람때문에 창민씨와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못믿을수 있으나 꼭 그것을 믿게 될 날이 있을거예요. 그때면 이 강중옥이가 나쁜 녀자가 아니었다는것도 아시게 될거예요...》

처녀는 다시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나는 마음이 너무 격해져서 한참이나 말없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획 몸을 돌려 발걸음을 뗐다.

마지막으로 되리라는 이 헤어짐앞에서 나도 중옥이도 결코 무심할수 없었다.

중옥은 내가 걸음을 떼며 물러서는 순간 늙은 버드나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며 흐느끼었고 나는 세걸음도 채못간 발을 멈추고말았다. 그 순간에 다시 달려가서 그를 부둥켜안고 이제껏 한 말이 다 거짓말이 아니냐고 묻고싶어졌다. 하지만 나는 분연히 걱정을 누르며 그자리를 뗐다.

그날 오후 결단고 집을 싸들고 삼촌집을 떠난 나는 다시 3등차칸 구석에 앉아서 그 처녀와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깡그리 잊어버리려고 무진 애를 썼다.

서울 남대문역에 내려서고보니 이제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실련담》을 들려줄가 하는 은근한 걱정이 생기었다. 아무리 좋게 둘러댄다 해도 실련담한것은 사실이 아닌가.

울적한 기분으로 개찰구를 빠져나오는데 문득 역사벽에 써붙인 어떤 광고앞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것이 보였다. 그곳으로 다가가서 무심히 광고를 살펴보면 나는 그만 아차! 소리를 지르며 그자리에 주저앉을뻔하였다.

(끝내 잡혔구나!)

나는 그동안 사이포총독에게 폭란을 던진 사람의 일을 감감 잊고있은 자신을 저주하면서 다급히 광고를 읽어보았다.

사이포총독암살미수범 강우규에 대한 복심법원의 최종재판을 대정 9년(1920년) 4월 14일 오후 1시부터 개정한다는 내용이였다.

(아, 강우규, 끝내 잡혔구나! 재판은 래일이요...)

당초의 나의 기대와는 너무도 다르게 사태가 번져졌지만 기자로서 할 일은 이제부터라는것을 직감하자 조급해지는 마음을 건잡을수가 없었다.

나는 역에서 곧장 신문사로 달려갔다.

친구들의 결혼축하인사는 어물쩍어물쩍 받아넘기고 사이포총독암살미수범 강우규에 대한 소식부터 물었다.

친구들에게서 들은것은 그 사람이 지난 9월중순 사직동에서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의 1심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는것이 전부였다.

취재를 더 심화시킬 시간적여유가 없기에 나는

이 빈약한 예비지식만 가지고 재판을 방청하기로 하였다.

이튿날인 4월 14일 오후 1시, 50여명의 경관이 재판장안팎을 삼엄하게 경계하고있는 가운데 재판이 시작되었다.

나는 수많은 방청인들이 빼곡이 들어앉은 방청석 맨 앞줄에 몇명의 기자들과 함께 앉아있었다.

개정을 알리자 검은 법의를 걸친 재판장 스카하라, 배석관사 하꼬다, 검사 데라다 등 일본인 법관들이 거만하게 나와 각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뒤이어 피고자 경관들에게 끌려나오는데 잔기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승엄한 침묵속에서 피고의 손발을 묶은 족쇄가 끌리는 소리만 절그럭절그럭 무겁게 들려왔다.

피고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급히 안경을 닦아끼고 눈에 정신을 모았을 때 나는 60을 훨씬 넘긴 키가 크고 수척한 한 늙은이를 보았다.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깎이었으나 이미 흰서리가 내린지 오랫동안이 분명했다.

(아, 저런 로인이?)

나의 놀라움은 컸다. 60을 훨씬 넘긴 로인이 그토록 장쾌한 거사의 주인공일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피고석으로 나서면서 로인은 재판석을 한번 얼핏 바라보는데 그때 그 눈길은 찌르는듯이 날카롭게 번뜩이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에 나는 어디선가 본 얼굴이라는 밀도끝도 없는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어디서? 아니, 그럴수가 없지. 착각이다.

나는 우연히 떠오른 생각을 지워버리며 혈령한 죄수복 밑으로 드러난 로인의 빼만 남은 앙상한 목과 가슴을 아픈 눈길로 살펴보았다. 그것이 왜놈들의 비인간적인 취조와 참기 어려운 육고의 흔적이라는 생각이 들자 격분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눈앞이 확 흐려왔다.

방청석에서도 분명 어떤 녀인의 흐느낌소리가 들려왔다.

《피고 강우규, 나이 65세, 평남도 덕천군 무릉면 제남리 출생, 피고는 대정 8년 9월 2일 오후 5시, 사이포총독을 암살할 목적으로 경성남대문역광장에서 폭탄을 투척하였다는 죄명으로 기소되었다. 인정하는가?》

피고석에 서있던 강우규로인은 뜻밖에도 저렇듯 울리는 목소리로 뚝뚝이 대답하였다.

《인정한다. 폭탄을 던졌다!》

최소리나는 그 특유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의 머리속에서는 아, 그 로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쳤다. 그렇다. 나는 그 로인을 이미 만난 적이 있었다.

그것은 회상하기조차 부끄러운 지난해 8월초순 어느날에 있는 일이었다.

그날 나는 열차를 타고 취재길에서 돌아오고있었다. 나의 맞은쪽자리에는 순박해보이는 늙수그

레한 농민내외가 앉아있고 옆자리에는 시골서 오는듯한 얌전하게 생긴 처녀가 자그마한 보통이를 안고 말없이 앉아있었다. 열차가 어느 간이역에 멎었을 때 한때의 일본인 남학생들이 왁작 떠들 어대면서 차에 올랐다. 비뚜름하게 चेके쓴 등산모며 등에 진 배낭이며 술을 마신듯 벌거우리한 낮빛으로 보아 어디서 질탕한 들놀이쯤 하다가 돌아가는것이 분명했다. 한동안 불랑스럽게 눈알을 굴리며 앉을 자리를 찾는듯하던 그들이 내가 앉은 옆에 와서 주렁주렁 물려서는것이였다. 빈자리도 몇개 보이는데 앉지는 않고 한곳에 물려서는것이 이상스러워서 살펴보니 그들은 시물시물 웃으면서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처녀에게로 다가서는것이였다.

《야, 끼레이네!(야, 곱구나)》

《홀딱 삼켜도 비릴것 같지 않아. 히히...》

처녀는 일본말을 모르는듯했으나 남학생들이 자기를 희롱한다는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을 붉히며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나는 너무도 역겨워서 못볼것을 본 사람처럼 차창밖으로 눈길을 돌리고 말았다.

《어때, 군침만 흘리지 말고 손목이라도 좀 잡아보지...》

《글쎄, 손목보다는 저 비둘기가슴이 더 탐나는 데...》

《히히히... 그럼 저고리고름이라도 좀 풀어드릴게지.》

《흐흐흐...》

《헤헤헤...》

너무도 무례하고 상스러운 말과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기에 나는 얼핏 돌아다보았다. 제일 불랑스러워보이는 한 녀석이 거뭇게 수염터가 잡힌 입술을 흐물거리며 처녀결에 비집고 들어앉았다.

그녀석이 좁은 자리에 끼여있으며 나의 옷자락을 스치자 마치 등줄기에 뱀이 기여가는것 같이 소름이 오싹 끼치여 나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러자 그놈은 나를 피곳 돌아보더니 《어이, 얼굴 좀 쳐들어.》 하면서 더러운 손을 처녀의 턱에 가져가는것이였다. 기겁을 한 처녀는 창문쪽으로 돌아앉으며 온몸을 바들바들 떠는데 마주앉은 농민내외는 너무도 기가 차 나를 쳐다보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나는 기대에 찬 그들의 눈길을 받으면서도 짐승보다 못한 저놈들에게 말이 통할것 같지 않아 입을 앙다문채 창문쪽만 쏘아보았다.

울분을 참노라니 목에는 피대줄이 시퍼렇게 일어섰고 의사등받이를 짝 움켜쥔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저 쪽발이놈의 새끼들을 그저,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참아야 하는가?...)

가슴속에서는 민족이 당하는 아픔을 두고도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자신에 대한 환멸감이 모락모락 서려올랐다.

이럴 때 열차가 다음역에 멎어섰다.

《히야 아쉽구나.》

《자, 빨리 내리자.》

불망나니같은 자식들이 와르르 내려가고 차칸안이 잠시 술렁거리고있을 때였다. 한자리 건너쪽에서 아까부터 이쪽을 붙이 이는듯한 눈길로 지켜보고있던 흰두루마기를 걸친 로인이 벌떡 일어서 다가오더니 다짜고짜로 나의 뺨을 철썩 후려갈기는것이였다.

《에끼 시라소니같은놈!》

나는 볼을 움켜쥐고 벌떡 일어났다.

《아니, 웬일이요?》

《웬일이냐구? 조선사람이라면 피줄속으로 찬물이 흐르지 않을텐데 그래 젊은놈이 눈을 번히 뜨고 그 꼴을 보기만해? 너희같은놈을 믿고 늙은이나 아녀자들이 어찌 살수 있으며 장차 2천만의 앞날은 어찌 되겠느냐. 통탄할 일이라!》

나를 한동안 쏘아보던 로인은 흰두루마기자락을 펄펄 날리며 표연히 차에서 내리였다.

나는 그만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온 얼굴이 핫 핫 달아올라 견딜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보통이를 끌어안은채 서럽게 흐느껴우는 시골처녀가 눈에 띄우자 나는 그만 밀등을 잘린듯이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아, 이게 무슨 망신인가. 일류기자라고 자부하던 내가... 쎄대다 머리는 움직여도 생각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이 얄미운 인테리근성... 과연 나의 피줄로 더운 피가 흐르단말인가.)

나는 깊은 자책과 고민에 빠졌다. 《2천만의 앞날 장차 어찌되겠느냐》고 하던 로인의 그 저렇저렇 울리던 특유한 목소리는 그후에도 오래도록 나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리고 비록 나라를 잃었을망정 민족의 존엄이 통락당하는것을 털끝만치도 용납치 않던 로인의 그 고결한 마음과 그 몇몇한 모습이 곧 살아숨쉬는 우리 민족의 참정신이고 참모습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하여 그후에도 저도 모르게 로인에 대한 경건한 존경심을 품기까지 하였었다.

바로 그러한 칼날같은 성미의 로인이였기에 폭탄을 던질 결단을 내릴수도 있었고 피고석에 서서도 저렇듯 몇몇할수 있으리라는것이 순간에 더 절절히 느껴졌다...

재판장이 심문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피고가 총독을 암살하려 한 동기는 무엇인가?》

강우규로인은 방청석을 향해 입을 열었다.

《검사에게 이미 말했거니와 일본은 세계대세인 민족자결을 반대하고 하늘의 뜻과 인간의 도리를 무시하면서 우리 2천만동포를 모두 노예의 궁지에 빠뜨리고있으므로 나는 생명을 걸고 거사를 하여 조선사람의 뜻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며 장차 조선독립을 이룩코자한것이다. 일본은 총독을

내세워 우리 동포에게 노예의 굴레를 씌우려 하고있으니 총독은 개인이 아니라 곧 일본제국이고 제국의 수족이므로 내가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것은 원쑤 일본제국을 징벌하러 함이였다.》

방청석에서 감동의 술렁거림이 일어나자 재판장은 다급히 정숙을 요구하고나서 계속 물었다.

《사이토총독은 《문화정치》를 실시하려고 새로 부임하여왔다는것을 모르는가?》

《문화정치라니?》

로인의 창백한 얼굴로 한가닥의 쓰거운 웃음이 스쳐지나갔다.

《국권을 회복하지 못하는 한 〈문화정치〉나 <무단정치>나 매한가지이다. 같은 승냥이낫짝인데 외로 본다고 밍고 바로 본다고 고을 리치가 어디 있느냐. 천만부당한 말은 하지도 말라.》

다시 가벼운 술렁거림이 일어나자 재판장은 물음을 바꾸었다.

《피고가 투척한 폭탄은 어디서 가져왔는가?》

《로씨야사람한테서 로화(로씨야돈) 50루블을 주고 산것이다.》

《검사가 심했겠는데 어떻게 가지고왔는가?》

《형겔에 싸서 다리사이에 차고왔다.》

《누구와 함께 모의하였는가?》

《혼자서 했다.》

《피고가 투척한 폭탄에 무죄한 사람이 중경상을 입은것을 아는가?》

《모른다. 나는 폭탄을 던진 다음 곧 눈을 감고 총독이 맞아죽기를 빌었을뿐이다.》

《포탄을 투척한 다음 왜 도망치지 않았는가?》

《도망칠 리유도, 필요도 없었다. 나는 일본의 총칼에 항시 위협당하는 피해자로서 가해자인 총독에게 폭탄을 던져 정당방위를 했을뿐이므로 법률상으로도 도덕상으로도 아무 죄도 없다. 그러니 무엇때문에 도망치겠는가. 그리고 눈먼 경찰이나같은 일개 늙은이에게는 아무런 주의도 돌리지 않기에 나는 조금도 거침없이 사람들이 흩어질 때 유유히 려인숙으로 돌아왔다.》

강우규로인의 목소리는 너무도 태연하고 몇몇하여 피고의 진술이라기보다 마치 그 어떤 장쾌한 일을 알리는듯한 목소리였다. 그의 그 몇몇한 태도가 그대로 방청석으로 옮겨져서 방청인들은 모두가 강우규로인을 피고로가 아니라 일체의 죄행을 고발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되자 당황한 법관들은 재판을 서둘러 끝내려고 덤비였다.

검사 데라다가 급히 내려읽는 사실론고와 변호내용을 종합해보면 강우규로인의 경력과 애국적거사의 전말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덕천군 무릉면 제남리 농민의 집에서 태어난 강우규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누이의 집에서 자랐다. 어렸을 때 서당공부를 좀 했을뿐 교육을 받은 일은 없다.

청년시절에 애국운동에 관계하여 신변이 위태롭게 되자 피신겸 함남도 홍원으로 이주하여 잡화상을 벌려놓고 가게장사를 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민족교육에 힘썼다. 그러다가 1905년 일제에 의해 나라의 명줄이 끊기자 조국을 등지기로 결심하고 가족 일부를 연해주로 보낸뒤 이듬해봄부터 1915년경까지 국경을 넘나들면서 의술과 행상으로 호사를 하였다.

1919년 3월, 독립만세소리를 들은 강우규는 학생들과 조선사람 수천명을 이끌고 큰 만세시위를 벌였고 이해봄에 연해주에서 《우구로인단》에 가입하였다.

강우규는 하세가와총독이 사퇴하고 사이토총독이 새로 부임해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자를 처단할것을 결심하고 씨비리철도 우썄리철도선의 어느 한 역에서 로씨야인으로 부터 폭탄을 구입한후 6월 11일, 울라지보스포크에서 일본기관선 《에찌코마루》를 타고 떠나 14일 원산항에 상륙하였다.

원산 《원일려관》에 든 강우규는 최자남 등의 협조로 거사자금을 마련한후 8월 4일 허형 등과 함께 원산을 떠나 5일 서울에 도착하자 안국동 95번지 림종호의 집을 숙소로 정하고 정세를 살피다가 8월 20일경 신문에서 사이토총독이 9월 2일에 서울에 들어온다는 기사를 보자 거사계획을 확정하고 남대문옆에 있는 한 려인숙으로 자리를 옮기였다.

거사날인 9월 2일, 강우규는 폭탄투척에 가장 적당한 남대문역 차집출입문 북쪽에 자리를 잡고 군중들속에 끼여있다가 총독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다.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리자 강우규는 총독이 맞아죽기를 열렬히 빌었으나 폭탄파편은 마차와 칼집에 흠집을 냈을뿐 총독을 요정내지는 못하였다. 실망한 강우규는 흩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려인숙으로 돌아왔다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여러곳으로 자리를 옮기던중 9월 16일 사직동 림승화의 집에서 조선인순사 김태석에게 잡히였다.

헌병대감옥에 끌려가 심문을 받을 때 너무도 태연하게 진술했기때문에 처음에는 진범인이 아닌가 의심까지 하였으나 몇달동안 취조를 거듭하는 과정에 범인이라는것이 확정되자 일제검찰당국은 제1심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한데 이어 복심법원에서의 제2심재판을 다시 벌리게 된것이였다...

《피고는 이상의 론고에 이의가 없는가?》

재판장이 묻자 강우규로인은 《없다》 하고 쓰겁게 대답하였다.

뒤이어 판결이 있었다. 변호와 피고의 항변을 무시하고 사형을 다시 선고하는것으로써 재판은 막을 내렸다.

방청석에서는 불만의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아, 사형!)

나는 두주먹을 부르쥐고 일어섰다.

독립만세를 불렀다는 이유로 수천수만의 조선사람들을 총검으로 쏘아죽이고 찢려죽이고서도 아무런 법적추궁도 받은적 없는 저자들이 어찌하여 침략자 한놈을 징벌하려다가 그 뜻마저 이루지 못한 저 정의로운 늙은이를 법의 이름으로 사형에 처할 권리가 있단말인가.

《부당하오. 판결이 부당하오.》

나의 옆에 앉아있던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일어섰다.

《웁소. 언론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떠들며 이 사실을 세상에 고발해야겠소.》

나도 흥분하여 부르짖었다.

《법은 일본과 조선사람의 관계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보아야 하오.》

《웁소. 판결이 부당하오.》

방청석에서도 누군가가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러자 방청인들이 모두 일어서며 제각기 소리를 질렀다.

《재판을 다시하라!》

《다시하라!》

당황한 법관들은 황급히 퇴장을 하고 경관들이 강우규로인을 끌어내가려고 몰려들었다.

이때 방청석에서 두 젊은 남자가 달려나가 강우규로인의 가슴에 매달리며 울음을 터뜨리는것이였다.

《아버지!》

《아버지이-못가십니다!》

나는 그만 그자리에 굳어진채 이 눈물겨운 광경을 지켜보았다. 로인의 아들과 딸은 죽음으로 끌려가는 아버지를 마구 부둥켜안고 몸부림을 쳤다. 마치 그 몸부림으로 아버지를 구원하려는듯이.

《애들아, 그만 눈물을 거두거라.》

로인의 웅글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눈물보다는 피를 뿌려야 할 때가 아니냐.》

《하지만 아버지, 안돼요, 못가셔요. 못가요!》

웬일인지 퍼그나 낮익어보이는듯한 로인의 딸은 아버지의 가슴에 매달려 오열을 터뜨렸고 아들은 쇠고랑을 찬 아버지의 두손을 꼭 부여잡은채 몸부림을 쳤다.

이것은 《시일야방성대곡》 이래로 매일 매 시각 이땅에서 그친적 없는 나라잃은 민족의 통곡이고 존엄을 짓밟힌 겨레의 몸부림이였다.

아, 수난당하는 이 민족, 구천에 사무치는 피의 절규.

나는 그만 눈앞이 캄 흐려지면서 더는 아무것도 가려볼수가 없었다.

경관들이 달려들어 로인을 재판장에서 끌어내 간다음에야 나는 안경을 닦아쓰고 앞을 바라보았다.

어느덧 방청석에 가득찼던 사람들도 거의 나가 버리고 그들 오누이도 경관들에게 등을 밀리우면

서 재판장밖으로 나가고있었다.

나는 로인에 대한 취재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기자 몇사람과 함께 그들의 뒤를 따라 나갔다.

《저... 안됐습니단만 서울 보성사 기자올시다.》

나는 자기 소개를 하고 그들과 마주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며칠전 제남리에서 불미스럽게 헤어졌던 바로 그 강중옥이가 눈앞에 서있지 않은가.

까만 치마저고리, 희고 곧바른 저고리동정... 분명 강중옥이었다.

나는 그만 온몸이 굳어져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처녀는 금방 울고난 뒤여서 붉게 상기된 얼굴을 들고 놀란 눈길로 나를 마주보았다.

《창민씨, 취재 나오실줄 알았어요.》

그 처녀의 눈빛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듯하였다.

다음날 늦은 아침녘에 나는 그들 오누이가 들어있는 려인숙을 찾아떠났다.

려인숙에 들어서니 처녀의 오빠인 강중건은 아침일찍 고등법원에 상소수속을 하러 나가고 처녀 혼자 있었다.

처녀와 마주앉은 나는 한동안 묵묵히 담배만 빨고있었다.

처녀는 지난밤에도 뜬눈으로 울면서 새웠는지 눈과 얼굴이 몹시 붓고 낮빛이 창백하였다.

《창민씨, 참말 뜻밖이셨지요?》

처녀가 약간 갈린듯한 목소리로 나직이 물었다.

《뜻밖이었소. 더구나 중옥씨가 로인의 딸일줄은 전혀...》

처녀는 가늘게 한숨을 쉬고나서 침착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요. 제가 막내딸이지요. 아버님이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실적에 저는 나이 어린데다가 홍역을 앓고있었어요. 홀로 적적하게 사시는 고모님이 한사코 말아키우시겠다고 하셔서 저를 고향에 남기고 떠나셨지요. 그렇지만 저는 아버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어요. 타향에서 어렵게 사시면서도 인편이 생기면 잊지 않고 여러가지 물건도 보내주셨고 생일날이나 명절 때는 언제나 편지속에 꽃엽서같은것이라도 넣어서 보내주시곤하셨어요.》

처녀의 눈곱에서 소리없이 굴러내리는 눈물을 보자 나의 가슴도 저러왔다.

《중옥씨, 진정하십시오. 비록 왜놈들에게 생명을 빼앗긴다 해도 아버님은 실로 우리 2천만에게 큰것을 남길겁니다. 아버님이 울린 폭탄소리가 이제 온 세상을 진감시킬겁니다. 우리가 결코 총칼이나 단두대앞에서 꺾일 민족이 아님을 그 폭탄소리가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나는 저도 모르게 흥분하여 부르짖었다. 참으로 우리 민족은 얼마나 기개높은 민족인가. 한몫

을 바쳐서라도 꺾이지 않는 민족의 기개를 온 세상에 떨치려는 그 정신이 없었더라면 안중근이나 리준이 없었을것이고 다시 강우규가 나지 못했을것이다. 그 정신으로 민족을 계몽시켜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독립부강을 이룩할것이다.

우리 민족이 나갈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 순간 오래전부터 나의 사색과 활동을 지배해온 이 생각은 더욱 굳어져갔다.

이윽고 강중옥은 눈물을 훔치고나서 조용히 말하였다.

《창민씨,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저의 지난 행동도 리해해주세요.》

나는 쑥스러워졌다.

《리해랄게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 별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지요.》

《사실 제가 아버님이 체포되시어 사형을 피할 길없게 되시었다는 기막힌 소식을 전해들은것은 창민씨가 제남리로 내려오시기 사흘전이었어요. 아버님과 함께 오래동안 뜻을 나누시던 한 친구분이 편지를 보내주셨더군요. 그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왔어요. 늙으신 아버님이 하셨다는 그 엄청난 일이 놀랍게도 생각되구요. 사형을 언도 받으신다는 소식은 더욱 기막혔어요. 오빠에게 소문나지 않게 알리라는 부탁이 있었기에 저는 남몰래 급한 걸음을 했어요. 그러니 그때 제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나 할수 있었겠나요?》

《그렇다면 그 사연을 어찌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나도...》

처녀는 안타깝게 웃고름을 비틀었다.

《그때의 저의 심정을 짐작하시기는 어려울거예요. 첫 순간부터 나도 아버지를 따라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결심이 온 났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때만 하여도 아직 아버님의 사건은 널리 알릴것이 못되었고 나중에 창민씨도 꼭 아시게 될일이기에 미리 말씀드릴것 없다구 생각했어요. 어차피 제가 창민씨의 행복이 못될바에는...》

《아니요. 애국지사의 따님으로 2천만모두에게 자랑이 될 중옥씨임을 잊지 마십시오.》

처녀는 머리를 천천히 가로저었다. 상큼하게 쳐들린 흰목에서 동맥이 세차게 뛰는것이 알렸다.

《그렇게는 못살아요. 가슴에서 뛰는 더운 피가 그걸 용납치 않아요. 저는 이대로는 세상에 살아남을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듯했다. 처녀가 그 어떤 모진 마음을 먹고있는것이 분명했던것이다.

《창민씨, 생각해보세요. 만일 아버지가 어떤 악한 의 칼에 맞아 돌아가셨다면 자식으로서 가만 있을수가 있을가요? 그런데 원쑤 일제놈에게 아버님이 목숨을 앗기게 된 이 마당에서 멍청히 앉아서 눈물이나 짜며 보고만 있을수야 없지요. 저의 오빠는 고등법원에 상소를 낸다고 뛰어다니지만 그것은 원쑤에게서 그 어떤 동정이나 관용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수 없기에 그러는것이죠.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을수야 없지 않아요? 아, 창민씨,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처녀는 끝내 방바닥에 엎드려 몸부림을 쳤다.

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처녀의 이 절박한 물음은 곧 나라를 빼앗긴 겨레의 물음이었다. 아버지를 빼앗기고 가만있을수 없다면 나라를 빼앗기고서 가만있을수가 있단말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물음앞에서 과연 《2천만을 계몽하면 된다.》는것이 대담으로 될수 있는가? 아니, 그것은 대담이 못된다. 그렇다면...

나는 이 순간 내가 믿어오던 그 어떤 공중루각 같은것이 와르르 무너져내리는 환각을 느끼었다.

나는 처녀에 대한 위로는커녕 그 절박한 물음에 대답을 찾지 못하는 자신때문에 몸부림치고싶었다.

무슨 말로 처녀를 안정시키려 했지만 허사였다. 처녀의 오빠 강중건씨가 얼굴빛이 검검하게 죽어가지고 돌아와서야 나는 궁지에서 얼마간 빠져나올수 있었다.

상소는 하나마나이고 고등법원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것이 없다는것이 강중건의 말이였다.

아니나다를가 그해 5월 26일, 고등법원은 끝내 상소를 기각하고 강우규로인의 사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말았다.

이제는 오직 형집행만이 남아있을뿐이였다. 이때부터 가족들의 면회가 허락되였다.

어느날 나는 강중옥오누이와 함께 강우규로인을 면회하러 갔다.

어둑컴컴한 면회실에서 잠시 기다리는데 철쇄끄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철창이 열리면서 수인복을 걸친 로인이 나타났다. 희수희수한 머리와 수염이 어지간히 자라서 얼굴은 더욱 초췌해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번쩍이였다.

《아버지-》

《아버님-》

아들과 딸이 품에 안기자 로인은 잠시 눈을 감고 자식들의 잔등을 어루만지며 말없이 서있었다.

《잘 왔다. 보구싶었는데 잘 왔어.》

로인은 쇠고랑을 찻던 자리가 푸릿한 손으로 딸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주었다.

나는 로인앞으로 천천히 다가가 머리를 숙였다.

로인은 잠시 놀라운 눈길로 나를 바라보며 생각을 더듬었다.

《기자... 서창민이라... 그러니 허, 낯도 익고 이름도 익구려. 언젠가 기차칸에서...》

《예, 로인님, 기억하시는군요.》

로인의 얼굴에는 알릴듯말듯 그윽한 미소가 어리였다.

《그 일이 있은후 임자가 신문에 낸 글을 읽었네. 기차칸에서 있던 일을 그대로 실었기에 자네가 쓴 글인줄 알았네만 그 가슴후련한 글을 읽고 나니 뺨을 헧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한번 꼭 찾아가리라 했더니 도리어 자네가 먼저 찾아왔군.》

《로인님을 오래 찾았습니다. 남대문역사건현장을 목격한후로는 하루도 잊은적 없었지요. 그러다가 재판장에서... 그리고 중옥씨를 알게 되어서 만나뵙자던 소원을 오늘 성취했습니다.》

《허... 그랬던가. 관심을 돌려주어 고맙네.》

이때 강중건이 나와 중옥이가 약혼한 사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로인은 뜻밖인듯 한동안 우리 두사람을 다정히 바라보더니 아들에게 조용히 말하였다.

《그 일은 잘된것 같구나. 마음 놓인다.》

이렇게 말하는 로인의 얼굴에는 끝없이 애절한 서글픔이 감돌고있었다.

《우리 중옥이는 자랄 때도 부모의 잔정을 모르고 자랐지. 잔치만은 한번 잘 차려주려 했건만 끝내... 이 무정한 아버지를 용서하거라.》

《아버지!》

중옥이가 로인의 품에 다시 얼굴을 묻으며 흐느끼고 중건은 북받치는 설음때문에 《아버님, 아십니까? 고등법원에서는 끝내 최종판결을...》 하고는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오냐, 알고있다. 그놈들이 달리 판결할수가 있겠느냐. 부디 마음들을 굳게 먹어라.》

로인의 표정은 이상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침착하고 부드러웠다. 최상의 정신적안정을 얻은 사람만이 가질수 있는 그런것이였다.

면회시간이 한정되어있다는것을 깨달은듯 중옥이가 먼저 울음을 그치였다.

《아버님, 차임을 받아주어서 오늘 처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아버님이 즐겨하시던 찰떡이에요. 고향에서 난 흰쌀로...》

중옥은 보자기에 정성껏 싸들고온 음식을 퍼놓더니 간수 몰래 자그마한 사기술병을 꺼내들며 눈물이 글썽한 눈길로 로인을 간절히 바라보았다.

자식들의 마지막정성이라고 느껴졌던지 로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뿐 더는 다른 말이 없었다.

이윽고 강중건과 강중옥이 무릎을 꿇고앉아 눈물을 삼키면서 로인에게 한잔씩 술을 붓는데 그것은 술이 아니라 피물이고 눈물이고 울분이였다.

나도 마지막에 아무 말없이 작은 잔에 술을 부으려니 웬일인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헉헉 울음소리를 삼키며 흐느끼고 섰는 아들과 딸의 산 정상도 눈물겨운것이였지만 죽은 사람도 아닌 산 사람앞에 술을 붓고 그자리에 엎드려 통곡을 터뜨리고싶은 그때의 나의 심정은 실로

비통이상으로 압담한것이였다.

나라의 명줄이 끊기었을 때에도 모두가 땅에 엎드려 망국을 조상하면서 통곡을 터뜨렸고 피를 뿌려 원수를 절규하면서 멀리 해외로 뿔뿔이 흩어져가던 우리 민족이 아니었던가. 얼은 살았으되 아직 갈길을 찾지 못해 캄캄하기만 한 이 헤칠길없는 어둠.

(아, 로인님! 과연 우리가 나갈 길이 없단말입니까.)

나는 로인앞에 엎드려 통곡을 터뜨리며 부르짖고싶었다.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진 로인은 몸을 가누기 어려운듯 쪽걸상을 당겨놓고 걸터앉았다. 마신 술 탓인지 얼굴에는 볼그레 피기가 돌고 눈빛은 더욱 활활 불타는듯했다.

로인은 저우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을묘생이니 올해 나이가 예순다섯이구나. 아무런 여한도 없다. 언제든 한번은 오고야마는 죽음이니 너무 슬퍼할것두 없구…》

로인은 쪽걸상에 앉은채 옷몸을 앞뒤로 약간씩 흔들며 글을 읽듯이 흥얼흥얼하더니 목소리를 가다듬고 비장한 노래 한곡을 조용히 읊조리는것이였다. 나직하나 피를 토하는듯 절절한 목소리가 감방안에 울려 퍼졌다.

아름답고 귀한 나의 삼천리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바니
나의 피를 뿌려 너를 빛내고저
아, 나의 삼천리아

아들과 딸은 흐느낌을 터뜨리며 울고섰고 노래를 읊조리고난 로인의 눈기슭에도 맑은 이슬이 맺혀 번쩍이였다.

《그만 진정들 하거라. 우리 2천만이 흘린 피는 물이 좀 적으냐. 피눈물이야 우리만큼 흘린 민족이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 눈물을 동이로, 섬으로 흘려도 바라는바 독립은 오지 않는구나.》

《아버님!》

갑자기 중옥이가 로인의 발치에 쓰러지며 오열을 터뜨렸다.

《허락해주세요. 나도 아버지를 따라가겠어요.》

아버님이 하시려던 일을 기어이 해놓고 나도 아버지 따라갈테예요.》

《나를 따라?》

로인은 놀라운듯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다. 부질없는 생각이다. 왜놈 총독 한놈을 죽인다고 독립이 이루어지거나 2천만의 울분이 다 가실수 없다는걸 내 모르는바 아니였다. 그렇다구 숨쉬어진 나라를 바라보며 그저 눈물이나 흘릴수도 없구… 아, 어느 길로 가야 나라를 찾는지 한생이 다 가도록 그것을 몰라 필사의 몸부림을 친것이다. 한몸을 폭탄처럼 내던져 2천만에게

큰것을 깨우쳐주고싶었다.

그런데 너희가 또 그 길로 간다면 내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니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로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 쇠고랑을 차고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 민족은 실로 큰 민족이다. 왜 큰 민족인가. 기상이 뿔뿔하고 뜻이 높을뿐더러 력사 유구하고 문화가 찬란하며 도덕이 아름답구 인종이 넉넉하여 마치 산에 비긴다면 금은보석을 안은 큰 산이요, 나무에 비긴다면 뿌리가 깊은 억척같이 큰 나무와 같으니 파시 대민족이라 할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오늘 시운을 잘못만나 모두가 굶어죽고 얼어죽고 매맞아죽고 스스로 배를 갈라 죽고 독립만세를 부르다 총칼에 맞아죽고… 간도와 연해주 각처를 나돌면서 무엇인들 못보았겠느냐.

의병의 화승총은 녹슨지도 오래고 독립군은 패권만 다루며 나날이 쇠진해가고 2천만이 모두 갈길을 몰라 허둥거리다가 이리저리 사해팔방으로 흩어지니 아, 우리 민족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로인은 한생을 바쳐 얻은 대결론인듯 크게 숨을 들이긋고나서 저렇저렇 울리는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그것은 앞길을 밝혀줄 위인이 없은탓이였다! 우리 민족에게 용기가 없느냐, 재능이 없느냐, 력사가 없느냐, 문화가 없느냐, 도덕이 없느냐. 대민족다운 모든게 다 있으되 오직 하나 이끌어줄 령수가 없구나! 마치 머리없는 거인과 같은게 지금의 우리 민족이다.》

이 순간 나의 머리속에서는 문득 그 어떤 새벽 빛같은 커다란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렇다, 민족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었다. 그 까닭에 남못지 않은 우리 민족이 이 지경에 이른것이다.)

나는 문득 강중옥이가 엎드려 울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피라게 물을 때 그 물음앞에서 대답을 찾지 못해 몸부림치던 일이 생각났다.

아, 우리를 이끌어줄 령수, 민족사의 물음에 대답을 줄 위인!

로인은 고개를 쳐들고 손바닥만한 감옥 쇠살창밖을 내다보고있었다. 그 쇠살창밖으로는 티없이 맑게 개인 쪽빛하늘이 비껴있었다. 비록 한조각의 하늘일망정 그것은 가없이 넓은 이 나라의 하늘이고 무한대한 우주의 한부분이였다.

로인은 그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혼자소리처럼 말하였다.

《민족이 세기를 두고 절절히 기원해온바이니 아마 지금쯤 틀림없이 어디에선가 우리를 이끌어줄 위인이 나셨을것이고 나서서 지략을 키우고 계실터인데…》

불을 뿜는듯한 로인의 눈길이 우리 세사람에게 와서 멎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분을 맞이하여 높이 받들어야 한다. 이것이 내 한생의 총화이구 피눈물에 젖은 우리 민족사의 총화이다. 부디 명심하라.》

로인은 눈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부탁하오만 나의 이 말을 만사람에게 전해주게. 피를 바치지 않고서는 쉽사리 터득할수 없는 이 리치를 이해들은 아직 잘 모를수 있으나 임자는 분명 깨우쳤을게 아닌가?》

《예, 로인님!》

나는 걱정을 참을수 없어서 그만 고개를 숙이며 겨우 이 한마디만을 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할수 있겠는가.

나는 마음속으로 중옥이를 향해 열렬히 부르짖었다.

(중옥씨, 아버님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겨두오. 중옥씨가 묻던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가 바로 거기에 있소. 이것은 아버님이 피를 바쳐 얻은 한생의 결론이요, 그령소. 우리 2천만이 진정한 민족이 되자면 민족의 두뇌가 되고 사상이 되고 천리앞길을 꿰뚫어볼 혜안을 지닌 그러한 령수를 모셔야 하오. 우리 민족의 출로는 바로 이 길뿐이요!)

이것은 중옥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였으며 2천만모두에게 하고싶은 말이였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영원한 신념으로 간직해야 할 그런 귀중한것이였다.

이해(1920년) 11월 29일, 흰눈이 푸득푸득 흘날려 내리던 그날 강도 일제는 서대문형무소에서 기어이 강우규로인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고야말았다.

그 피에 젖은 사실을 모든 신문들이 널리 보도하였다. 특히 지난 8월 28일, 《국치기념호》를 내어 독자들의 기대와 사랑을 받고있던 우리 보성사에서 발행하는 《조선독립신문》은 이 사실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깊이 분석한 격렬한 논조의 논설을 내보냈다.

사형집행이 있는지 사실이 지난뒤 어느날, 나에게서는 짙막한 편지 한장이 날아왔다.

《존경하는 서창민씨, 저는 오빠와 함께 영영 이곳을 떠납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를 무정한 너자라 하지 마세요. 창민씨를

끝없이 존경하며 한생 열렬히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더구나 청년들인 우리모두에게는 그보다 더 절박하게 찾아야 할 길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위해 한생을 바치겠어요. 독립신문에 실린 창민씨의 논설을 감동깊이 읽었어요. 부디 안녕히 계세요. 강중옥》

강중옥의 편지를 받은 때로부터 다시 한달이라는 기간이 지나갔다.

그 한달동안에 내가 어떠한 정신상태에서 몸부림쳤다는것은 굳이 쓰지 않겠지만 나는 드디어 무죄쪽같은 결심을 내리였다.

반만년의 민족사를 보낼 또 한해의 새해가 다가오고있다. 이 새해를 앞두고 나도 떠나기로 했다. 어디로 갈지 아직은 모른다. 국내각지 그 어디가 될지, 백두산아근의 간도가 될지, 중국이나 연해주나 일본이 될지...

희디흰 저고리동정이 그토록 인상깊던 강중옥이라는 그 미모의 처녀를 찾아가느냐구 굳이 묻지마시라.

그 처녀를 찾아가는것보다 그 처녀가 찾는 바로 그것을 찾으러 가는것이다.

우리 민족을 이끌어줄 령도자를 찾는 길, 우리 민족이 참다운 대민족이 되는 길!

조선의 독립과 민족의 미래, 우리모두의 미래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음을 늦게나마 깨달았으니 더 늦기전에 나는 서둘러 떠나는것이다.

마치 해맞이가는 사람처럼말이다.

태양은 이미 저기 지평선위로 솟아오르고있다. 머지 않아 그 찬란한 빛발이 온 누리를 비칠것이다.

×

수기는 여기서 끝났다. 그것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일제경찰의 비밀자료철에 들어가게 되었는데는 알수 없다. 집작컨대 수령의 출현을 절절히 갈구하던 민족의 숙원을 심장으로 체험한 기자 서창민은 그후 반일애국투쟁에 적극 참가하다가 경찰의 감시에 들었거나 체포된듯하고 이 수기가 그의 사상동향에 대한 증거물로 오늘까지 경찰의 자료철에 남아있게 되었으리라는것이 가장 믿을만한 추측이다.

조국의 수호자, 승리의 창조자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품위있게 형상한 불멸의 화폭

김려숙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승리》(김수경 작)는 우리 인민이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조국해방전쟁의 후반기를 배경으로 하여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한 작품이다.

장편소설 《승리》는 총서 《불멸의 력사》의 형식과 수령형상창조의 고유한 생리를 잘 살려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짓부셔버리고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고수하고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모습을 품위있게 형상하였다.

1. 무게있는 형상과제에 대한 심오한 형상화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승리》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있고 폭넓게 형상화할수 있는것은 무엇보다도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풀어 나간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조국과 민족, 혁명과 건설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 나간다. 작품에서는 사회정치적집단을 움직이고 력사의 거창한 전진운동을 떠밀어나가는 수령의 활동세계가 펼쳐질수 있도록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내세워야 한다.》

수령형상작품에서 수령을 품위있고 격이 있게 형상하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무게있는 형상과제를 내세우는것이다.

장편소설 《승리》가 제기한 기본문제는 조국해방전쟁의 운명에 관한 문제이다. 소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만이 조국해방전쟁의 운명,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맡아안으시고 승리적으로 해결하시는 절세의 위인이시며 탁월한 군사의 영재이시라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히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를 탁월한 군사사상과 전법, 령군술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형상화하고있는것은 이 소설의 주되는 형상적특성이자다.

소설의 시대적배경으로 되고있는 1952년 여름부터 전쟁이 승리한 1953년 7월까지의 전쟁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력사적시기였다.

조선전쟁에서 여지없는 참패를 당하고 헤어날수 없는 궁지에 빠진 미제는 정전담판을 제기해오고도 담판의 막뒤에서 온갖 비렬한짓을 다하였으며 제놈들의 침략적목적을 달성해보려고 발악적으로 날뛰었다.

세번째로 《유엔군》사령관이 된 클라크가 도쿄에서 남조선으로 왔으며 트루먼을 밀어내고 34대 대통령으로 출마한 전쟁광 아이젠하워가 조선전쟁에서의 《영예로운 승리》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미국의 힘을 시위하려고 달려들었다.

바로 이 준엄한 력사적시기에 조국의 운명, 민족의 운명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어깨우에 무겁게 실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중하를 덜어드리고싶은 절절한 심정은 하늘끝에 가닿도록 그렇게 할수 없어 안타깝게 모대기는것이 그이의 전사들이다.

바로 이 문제, 수령이외에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혁명의 근본문제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였는가 하는것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형상화하는데 이 소설의 형상적과제가 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클라크의 김화계선에서의 지상공격과 통천상륙작전의 기도를 예리하게 꿰뚫어보시고 통쾌하게 짓부셔버리시며 아이젠하워의 《신공세》를 여지없이 파탄시키시고 전전선에 걸친 일대 타격전과 정전담판의 승리를 마련해나가시는 력사적인 과정을 기본줄거리로 하여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이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있다는것을 감동깊이 형상화하였다.

또한 소설에서는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의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를 첨예한 극적정황속에서 다양한 인물관계를 통하여 훌륭히 형상하였다.

만고의 령장, 군사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예지와 품모는 전쟁의 운명을 우리의 승리로 확정시키시는 크고작은 작전들과 천변만화의 군사전법들이 력력히 어려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전하시는 하나하나의 전투는 다 새롭고 창조적인, 그 어떤 군사리론과 교범에도 없는 독특한 우리 식, 수령님식의 작전이고 전법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처음부터 이긴 전쟁을 하고있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작전하

신 모든 전투들의 승리를 통째로 공지높이 형상화함으로써 조선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과 주체전법의 승리임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 동지께서 작전하신 통천 전투는 적을 하늘중천에 들어올렸다가 꺼꾸로 쳐박는 전투, 적을 끌어들일것이 아니라 내치는 전투, 달려드는 미제놈들에게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것같은 불의의 타격을 안겨서 조선의 해안을 보기만해도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전투이다. 이것은 기성의 해안방어관념을 완전히 뒤집어놓는 새로운 것이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해안방어라고 하면 적의 방대한 해군력의 선제타격을 먼저 생각하면서 불리한 지형조건에서 싸우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정반대로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유리한 지형조건을 리용하여 바다라는 거대한 함정속에 미국놈들을 처넣을데 대한 류례없는 작전을 펼치시며 통천전투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라고 가르치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공격정신으로 최현부대의 모든 전사, 지휘관들이 무장되었고 해안포로 리용할수 있는 모든 화력과 포탄을 통천에 집중시키는 거대한 작전이 단시일안에 실현되고 군사교범에 없는 다양한 포전개방식이 나온다.

그리하여 클라크가 수개월동안 면밀하게 준비한 공세를 산산이 짓부셔버리고 한개 군단의 적을 앞잡고 조종을 하듯이 불과 500미터 지어 300미터까지 해안에 바짝 접근시켜놓고 후려치고 내리치고 답새겨 인민군대의 위력을 온 세계에 파시한 통쾌한 통천전투가 진행되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이젠하워가 오만무례하게도 《신공세》라는것을 벌려놓고 백수십만의 지상군과 미국해군부력의 70프로, 거기에 영국함대까지 합세시키며 새로운 몇개 군단의 해상과 항공공륙전대 등 방대한 무력을 조선전선에 들이밀어 우리를 굴복시키고 《승리》를 얻으려고 망상하고있을 때 놈들의 움직임과 기도를 예리하게 간파하시고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신다.

그이께서는 아이젠하워의 《신공세》를 짓부실 작전의 양상은 불의타격과 같은 통천에서의 전투와는 달리 적이 감히 우리의 땅, 우리의 해안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지상전선에서, 동서해안의 적의 상륙지점으로 예상되는 일대에서, 적항공공륙전대가 투하될수 있는 모든 평원지대에서의 전투방식을 바로 이 원칙에서 새롭게 규정해주신다. 그리고 만일 적들이 기어 이 공세를 단행할 경우에는 상륙하는 적은 바다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놈은 공중에서, 지상에서 기여드는 적은 방어진연에서 소멸해치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민이 떨쳐나 적과 싸울데 대한 독창적인 작전과 전법을 제시하신다.

이것은 그야말로 적이 작전을 개시하기전에 막아치우며 아이젠하워가 감히 공세를 생각할수 없

게 사전에 우리의 위력을 보여줄수 있게 하는 기상천외의 전법들을 집대성한 작전이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놈들이 《신공세》를 격파당한후에도 패전을 인정하지 않고 온갖 야수적 만행과 음모를 꾸미고있을 때 미제놈들에게 대타격전을 들이대서 조선인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적들의 내부갈등을 심화시켜 아이젠하워와 클라크를 굴복시키는 전술을 짜서 판문점정전담판의 승리를 가져오도록 하시는 한편 조국해방전쟁을 일대 타격전으로 끝내버릴 대용단을 내리신다.

소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모든 탁월한 군사 작전과 전법들이 동서고금의 그 어느 전쟁력사의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독창적인것으로 되는것은 《이민위천》의 위대한 철학사상을 기초로 하고있으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탁월한 령도자의 숭고한 사명과 고매한 품모에 기인하고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전쟁은 힘의 대결이다.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령도와 인구, 군사력과 경제력에서나 대비도 되지 않는 조선과 미국을 두고 세계의 선량한 량심들은 조선의 운명을 우려했으며 한편 전쟁광신자들, 전쟁사환군들은 미국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했다.

미국의 강대한 힘을 이길 막강한 힘을 가져야 이 전쟁에서 이길수 있다는것은 자명한 일인데 조선이 그런 힘을 가지고있겠는가 하는것을 믿기는 어려웠던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미국을 이겼다. 제국주의의 아성인 미국을 타승한 위력한 조선의 힘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의 힘, 이 세상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고 그 어떤 강적도 때려부실수 있는 일심단결의 무기를 마련해주신 강철의 령장이시다.

인민의 사상의지와 투쟁력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하나의 전투를 구상하시면서도 인민과 의논하시려고 현지지도로 이어가시며 인민의 소박한 생각을 반영하여 새로운 전법을 내놓으신다. 통천전투의 승리도 이렇게 마련되었고 항공공륙전대소멸방법도 이렇게 생겨났다.

언제나 전사들속에 계시는 그이께서는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않으시고 전연초소를 찾으시여 그들의 가슴속에 불굴의 신념과 혁명적력량을 안겨주시며 당중앙위원회 편지와 제5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전당, 전민, 전군을 강철의 대오로 만드신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무적의 힘, 사랑과 믿음을 지니였기에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불과 10시간도 안되는 시간에 육중한 포를 끌고 천리길을 달려 정형고지전투의 승리를 보장하고 아이젠하워의 《신

공세》를 파탄시키었으며 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351고지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서 승리의 신심드높이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다.

강한 장군 밑에 있는 병사는 강자로 되기 마련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작전과 방침들에는 혁명전사들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조국강토와 인민에게 참화를 들뜨우는 원수에 대한 가장 불타는 증오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인민을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한 농촌마을의 평범하고 소박한 녀성인 강보배의 희생을 두고, 놈들의 음모의 희생물로 되는 우리 포로들의 운명을 놓고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며 놈들을 해여날수 없는 구렁텅이에 몰아넣을 작전을 펼치시는가 하면 자신의 병환에는 전혀 관심을 두시지 않으면서도 최현군단장의 병을 녀려하여 전쟁의 불길속에서 그를 외국에 보내어 치료받도록 하시며 최고사령부를 노리는 놈들의 책동때문에 신변의 위험이 항시 뒤따르는데도 지휘관들과 군인들, 인민들과 어린이들을 먼저 생각하시며 보살피신다.

전쟁은 살륙과 파괴를 동반한다.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었으며 우리의 귀중한 재부를 무참히 파괴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전쟁에서 우리 인민을 조국의 수호자, 새 세기의 창조자로 되게 하시었다.

전쟁밖에 생각할수 없던 바로 그 준엄한 날에 전후복구건설의 휘황한 설계도가 마련되며 전쟁을 통하여 인민의 신념은 더욱 굳어지고 모든 인간은 불굴의 거인으로 성장한다. 창조의 무한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불굴의 거인으로 성장한 인물들의 전형속에는 군사와 외교경력이 없는 수학자태생인 총참모장 남일의 성장과정도 있으며 기성군사교범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장군님께 심려를 끼쳐드렸던 부군단장 송철무도 있고 《어촌고지》대대장 리충근과 항일혁명투사의 딸인 홍준실, 351고지전투에서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은 김룡택, 불이 달린 유조차를 끌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 장노식 등 유명무명의 수많은 인민군전사들과 지휘관들이 있다.

참으로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우리 민족이 위대하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어 민족수난의 력사가 끝장나고 승리의 영광과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음을 긍지높이 형상하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 전쟁의 운명을 틀어쥐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은 다양한 인물들과의 관계속에서 격이 있고 품위있게 형상되었다.

소설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남일, 군단장들인 최현, 류경수, 부군단장 송철무, 내무상 방학세, 보건상 리병남 등 급이 높은 인물들을 설정하고

전투와 정전담판 등의 작전에서 따를래야 따를수 없는 수령님의 천재적 예지와 지략을 보여주며 그이의 사상과 전략적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관찰해나가며 수령님께 저기들의 운명을 의탁하고 그이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열렬히 바라는 다양한 인물들의 형상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와함께 소설의 생활무대를 세계적관도로 넓혀나갈수 있는 필요하고 적중한 인물들을 설정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국제적권위와 영향력을 긴설명없이 형상적으로 론증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을 녀려하여 쓰팔린과 모택동 동지들이 보낸 의뢰전의 설정이 바로 그러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나라 수령과 당, 인민뿐 아니라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을 얼마나 높이 우러르고 열렬히 흠모하였는가를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다.

또한 조선전쟁은 미국과 일본, 남조선 등지에서 고안해낸 미국우두머리들의 작전을 짓부시는 과정인것만큼 이 전쟁에서 미국의 운명이 어떻게 내리막길을 걷고있는가를 예리하게 밝힐수 있는 주일미국대사 머피, 클라크의 안해와 어머니 등의 설정도 클라크나 아이젠하워 못지 않게 수령님의 위대성을 반증하도록 생활무대를 넓히는데서 형상적의의가 크다.

2. 형상이 주는 여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생활은 작품의 이야기가 시작되기전에도 있고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된다. 작가는 다만 그 영원하고 폭넓은 생활의 흐름속에서 어느 한 단면이나 토막을 잘라서 작품에 담을뿐이다. 창작에서는 그 단면을 전후좌우에서 벌어지는 다른 생활세계와의 련관속에서 펼쳐놓아야 한다. 그래야 작품에서는 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고 형상의 립체미도 살릴수 있으며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도 여운을 줄수 있다.》

훌륭한 소설작품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강한 여운에 있다. 그 여운속에 소설책을 덮어놓아도 생활은 계속되며 사색의 흐름은 다양한 굵을 따라 폭넓게 전개되는것이다.

장편소설 《승리》도 그러한 여운이 있다. 50년대의 총포소리 요란했던 조선전쟁무대가 90년대의 총포소리 없는 전쟁무대로 이어지고 50년대의 원수복을 입으시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영상이 90년대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영상으로 방불하게 새겨지는것은 특수한 형상의 여운이 아닐수 없다.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어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을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모셨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주체혁명위업을 믿음직하게 완성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었다. 하여 우리 인민은 어제도 오늘도 자주의 존엄을 지켜 미제와 당당히 맞서나간다.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천재적 예지와 담력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신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한껏 부풀게 해주는 여기에 형상의 여운이 있으며 소설의 주되는 성과가 있는것이다.

-수령의 담력과 도량

아이젠하워와 클라크를 꼭두각시 다루듯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담력과 도량은 소설에서 강한 인상을 준다.

아이젠하워나 클라크는 작은 인물이 아니다. 《세계초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며 《유엔군》사령관이다.

이런 아이젠하워와 클라크를 손안에 쥐고 노시는 우리 수령님은 미국과 같은 큰 나라, 아니 세계를 다 쥐고 흔드시는 무한대의 담력과 의지, 도량을 지니신 위인중의 가장 출중한 위인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에서 한번도 진 일이 없다고 하는 미국놈들한테서 항복서를 받아내시었다.

소설은 서로 물고 뜯으면서도 조선전쟁을 《승리》로 결속지으려는 공통된 리해관계로 하여 음모적으로 엮여있는 아이젠하워와 클라크, 주일미국대사 머피, 8군사령관 벤프리트, 정전담판 미국수석대표 해리슨 등 미국거물들의 기도와 음침임, 성격적기질을 정치군사적관계를 위주로 하면서 다양한 관계속에서 예리하게 드러내고있다. 미국의 정계, 외교계, 군부의 우두머리들이 꾸미는 계략과 기도, 음모는 오래동안 그 부문에서 치여난 실력가들의 권모술수이다.

클라크는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선행한자들이 빚어낸 조선전쟁의 참패를 만회하고 아이젠하워의 대통령당선과 때를 같이하여 《영예로운 승리》를 가져오기 위한 작전을 검질기게 모색한다. 그런데 비극은 클라크와 아이젠하워가 것처럼 용이주도하게 빈틈없이 고안해낸 모든 작전이 하나같이 참패의 쓰디쓴 맛을 본것이다.

클라크는 이런 참패를 놓고 10만 8천리를 날아다니며 방자한것을 한 손오공이란 원숭이가 결국 석가모니의 손탁안에서 놓고있는데 불과한것처럼 자기나 아이젠하워, 덜레스도 다 **김일성**장군의 손탁안에서 놓고있는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클라크는 세계면전에서 미국이 패한 원인,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대상을 상대로 하여

잘못 고른 때에 진행한 전쟁의 가장 비참한 희생자가 자기였다는것을 실토했다.

억울함도 함께 호소하는 그자의 넋두리속에 진실도 있고 미국괴수들의 심각한 교훈도 있는것이 다.

미국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너무도 몰랐다.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무비의 담력과 의지, 그분의 령도를 받는 조선의 위대한 힘을 아이젠하워나 클라크가 어찌 알수 있었으랴.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이젠하워나 클라크의 약점은 물론 장끼까지도 예리하게 간파하시고 놈들이 모략과 기도를 꾸밀 때마다 제때에 가차없이 짓부셔버리신다. 장군님의 손탁안에서 노는 놈들의 운명은 미국의 서산락일의 운명이였다.

장군님의 담력과 도량은 적들의 대병력과 공세로 정세가 긴장될 때 오히려 여유작작하신데서도 표현된다. 클라크가 북반부의 78개 도시를 지상에서 영원히 없애버리겠다고 온 세계를 향해 선포하고 이 땅을 다시 짓이겨대고있을 때에 수령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며 클라크가 패전의 비명을 지르며 마지막주패장인 원자탄전쟁을 부르짖을 때 수령님께서 정전담판이 벌어지는 개성에 나가시여 담판에서의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시고 앞으로 회담장을 후대교육을 위해 잘 보존할데 대해서까지 말씀하신다.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담력과 도량은 이처럼 넓고 크시다.

이것은 소설에서 받은 강한 인상의 하나이며 그 인상이 강할수록 그러한 도량과 담력을 지니신 또 한분의 령도자,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생각하게 된다.

오늘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천재적 지략과 무비의 담력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1950년 조선전쟁에서의 아이젠하워나 클라크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미국은 **김정일**장군님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조선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할것이다.

-지구를 돌리는 사나이의 조각상세부

작품에서 세부형상이 가지는 의의가 얼마나 큰가 하는것은 구태여 이야기하지 말자.

장편소설 《승리》는 지구를 움직이는 사나이의 조각상세부에 심오한 의미를 담아 형상화하였다.

장군님의 집무실에 있던 이 조각상을 부관장은 작전회의가 열리는 최고사령부 《회의실》의 《주석단》앉은책상에 옮겨다놓았다.

이 조각상은 지구를 바로 돌리기 위해 전쟁의 운명을 걸머지신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과 어울려 작품의 여러 대목들에서 인상깊이 형상되였다.

엄청난 적의 대무력이 집결되어 벌어질 아이젠하워의 《신공세》를 어떻게 하면 파탄시키겠는가,

어떻게 하면 아이젠하워의 번대머리모상과 클라크의 길쭉한 주홍빛얼굴에 떠오른 웃음을 패자의 고통으로 만들겠는가, 깊은 사색에 잠기신 그 이께서는 시야속에 문득 비껴든 지구를 돌리는 사나이의 힘찬 모습을 형상한 조각상을 보시며 지구를 역전시키려는 아이젠하워와 클라크, 150만, 아니 그이상이 될수도 있는 적의 대병력을 짓밟개며 지구를 바로 돌려야 한다고 결심하신다.

아이젠하워와 클라크가 전대미문의 이 힘에 놀려 비명을 지르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미제의 《힘》을 무색케 할 그런 힘을 적들에게 보여 주겠는가, 이렇게 끝없이 사색하시는 장군님의 내면심리는 조각상과 밀착되어 깊이있게 묘사되고있다.

소설은 예견보다 적들의 행동개시가 훨씬 빠른 자료들을 보고받으시고 현지지도의 길에서 최고 사령부로 돌아오신 장군님께서 그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을 내리시고 《신공세》격파의 작전적방침을 제시하시는 장면에서도 여러차례 조각상세부를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 그럼 이 조각상의 노동자처럼 지구를 돌려볼 방법을 의논해봅시다.

이번에는 좀 무겁기는 해도 어떻게 우리는 미국놈들이 뒤로 돌리려고 하는 이 지구바퀴를 앞으로 돌려야 합니다.》라고 하시며 《신공세》격파의 전술적원칙과 구체적인 전투방법까지 천명해 주신다.

참으로 150만~200만의 적을 손바닥우에 올려놓고 꼭두각시 다루듯하시는 그 넓은 도량과 사색의 폭, 적들의 대공세에 전민의 동원으로 대응할 결단을 내리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독자들은 지구를 돌리는 위대한 힘과 지혜는 오로지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지니고계시며 오늘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의지와 대응단에 의해 지구의 바퀴, 력사의 수레바퀴가 돌고있다는 끝없는 격동과 환희에 휩싸이게 된다.

아이젠하워의 《신공세》가 파탄되듯이 오늘 그 어떤 파동에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하는 조선식사회주의를 압살하려는 미제의 책동은 걸음마다 짓부셔진다. 오늘 워싱턴에서의 아우성소리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비범한 령군술과 천재적지략에 의해 패한 단말마의 비명이다. 미국과 우리 공화국은 반세기를 넘기며 대결하고있지만 언제나 미국은 패했고 우리는 이겼다.

지구를 돌리는 력사의 방향타를 어제는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오늘은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원수님께서 잡고계신다. 하여 력사는 자주의 길로만 곧바로 전진해나가고있다.

-묘사력

소설의 형상적여운은 묘사의 힘에 달려있다. 장편소설 《승리》는 오랜 창작경험을 가진 작가의 로숙한 묘사기량을 손색없이 보여주고있다.

소설에 반영된 실재한 력사적사실과 인물들은 독자들속에 이미 달리 알려져있다. 이런 조건에서 이야기를 극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라렬하거나 전쟁, 작전문제, 전투상황들을 많이 다루면서 군사일면에 치중된다면 소설은 따분하기 그지없게 될것이다. 그러나 소설은 끊임없이 련속되는 극적정황을 설정하고 그 정황속에서 다양한 인물들의 관계를 맺어주고 풀어나가면서 인간성격을 위주로 하여 생활을 흥미있게 묘사하고있으며 속도감과 정서를 안받침하여 묘사의 굴곡을 자연스럽게 조성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리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를 자유분방하게 품위있게 펼치며 그이의 사색과 로고를 뜨겁게 느끼게 하며 남일, 최현, 송철무 등 인물들의 시점에서 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상과 생활이 감동깊이 펼쳐지고있다.

또한 장군님께서 제시해주신 불의타격으로 진행되는 통천전투장면, 장군님의 전법으로 싸우게 되니 평소에 가지고있던 기질적인 배짱과 담이 절정에 이른 최현군단장의 지휘모습을 비롯한 전투상황들을 눈앞에 보듯이 방불하게 묘사한 실례들을 많이 들수 있다.

심리세계 개방과 성격상특성, 행동세부를 드러내는데서 언어표현은 매우 생동하고 적중하며 인상깊다.

장군님께서 주관에 사로잡혀 정확한 사고를 하지 못하고있는 송철무때문에 깊은 생각에 잠기신 숙연한 정적을 딱따구리가 아무리 쪼아대도 정적의 한끝에 조그마한 구멍 하나도 뚫지 못할것 같다고 묘사한것이라든가, 《웃음을-짓고 서계신 장군님을 본 최현의 웅틀몽틀한 얼굴은 금시에 함박웃음속에 흐물흐물 녹아들어가는듯싶었다.》

《최현은 사납게 번뜩이는 눈길을 참모장에게 던졌다. 그 눈길은 참모장의 허를 얼어붙게 하는데 충분했다.》고 한 표현들은 좋은 실례들이다.

이외에도 소설의 형상적특성에 대한 문제를 적지 않게 분석고찰할수 있다고 본다.

×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승리》는 40여년전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승리를 감명깊게 보여준 대표작의 하나로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충신, 효자로 되도록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할것이다.

기다리는 마음

김종백

오늘 신문에
우리 공장의 자랑이 크게 났네
우리가 한일이지만
남이 한일만 갈아 읽고 또 읽고...

그러자 문득
이 가슴을 찡 울리며 갈마드는 생각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이 신문을 보시었으리
보시었다면
우리 공장을 찾아 먼길을 오실수도 있으리

몇해전 그날에도
소문도 없이 오시었지, 깊은 밤에
혁신의 불길 지퍼올린 공장의 소식을 들으시고

오늘 또 오시면
그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날처럼 말씀하실가
일 잘하는 동무들이 보고싶어
이렇게 왔다고
공장에 와보니 정말 동무들이 한 일이
대단하다고
온몸에 새힘이 부쩍 솟는다고

가슴에 밀물처럼 차오르는것은
그이를 뵈고싶어 기다리는 마음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한 일이니
공장의 이 자랑 보여드리고싶어
기다리는 마음

우리 잘못된 일이 있어
그이께서 심려를 안고 오실 길이라면
바라지 않아
더구나 철부지 애들처럼
더 좋은것 주실것만 바라서도 기다리지 않아

온 나라 수많은 일터
어디서나 혁신의 불길이 타오르는 오늘
그이는 한분
어찌 우리 공장에만 오시라만
그래도 오늘은 그이께서 꼭 오실것만 갈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그이를 이렇게 기다리는 날은
그이께 드릴 힘과 기쁨을 마련한 날
그이를 기다리는 날은
그이의 만수무강의 세월을 보태여주는 날

우리들 공장일 더 잘하여
오는 날 가는 줄 모두를
그이를 기다리는 날로
그이를 몸가까이 모시는 날로만 되게 하리

우리 기다리는 날에
그이께서 아니오실수 있어도
기다리는 우리 마음속엔
어김없이 바라는 그 시각에
그이의 사랑과 믿음이
산악도 떠멜 힘이 되어 찾아온다네
세월을 빛내일 위훈의 꽃이 되어 찾아온다네

벽 시

비료의 무게

김수철

비료!
우리의 생명같은 비료
날마다 하조장에
산처럼 쌓아가건만

오르지 않고있다
아버이수령님 유훈의 뜻으로
크나큰 그 믿음으로 눈금을 새긴
내 마음의 저울은

단군출정기

김세택

1

산야를 뒤덮으며 역수로 쏟아지던 소나기가 급작스레 뚝 멎어버리자 자연은 제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설피여지는 물안개우에 군청색 산발들이 연연 파도처럼 굽이쳐가고 록음방초 우거진 수림속은 빼곡한 나무들사이로 비쳐드는 해살과 조화를 이루면서 황홀한 신비경을 펼쳐놓는다.

온갖 새들이 여기저기 다시 나타나 지저귀기 시작하였다. 푸드득거리며 숲속을 힘겹게 가는 애기몸통만한 새들도 있다.

산중턱의 범아구리마냥 항 벌려진 자연동굴에서는 비를 굶던 사람들이 구역구역 물켜나온다. 두리는 삼시에 백수십을 헤아렸는데 대다수가 젊고 건장한 사내들이다.

그들은 동굴앞에 펼쳐진 넓은 공지에 흠어들며 말에게 풀을 먹이기 시작하였다. 태고연한 밀림속에서 이런 풀밭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것이다.

동굴안에는 몸이 거칠지고 기골이 준수한 젊은이가 범가죽을 깔고 엇비스듬히 누워 아직도 코를 드렁드렁 끌고있었다. 굵고 진한 눈섭아래 사루이 감겨진 눈까풀이 때때로 미묘하게 떨며 움직이는것은 혹시 꿈속을 헤매이는 모양이 아닌지?...

그가 바로 일행의 우두머리이며 박달족 추장인 단군이였다.

지금으로부터 5천여년전 어느 여름날, 단군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북방으로 원정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동굴에서 소낙비를 그은 때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단군은 지금 향촌인 박달성(오늘 평양의 강동)에서 그리운 어머니와 꿈결에 반갑게 만나고있다.

《...그래, 몸은 상한데가 없느뇨?》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모친의 다심하고 정깊은 목소리였다.

《없소이다. 보시는바처럼 무탈하나이다.》

어머니는 해별에 타서 구리빛이 도는, 더욱 림름해진 아들을 대견한 눈길로 어루쓸다가 느닷없이 화제를 바꾸었다.

《너도 이제는 나이가 찼으니 장가를 들어야겠다. 래일 신당에서 제를 지내고 식을 올리기로 하자.》

단군은 깜짝 놀라 모친을 마주보다가 급히 머리를 조아렸다.

《저... 아직은 그런 생각이 없사옵니다.》

어머니의 인자한 얼굴이 금시 노기를 띠더니 엄한 목소리를 터치였다.

《꽤 씹한, 불효막심한지고... 네뒤에 있는 랑자는 누구냐?》

단군은 황황히 고개를 돌리였다. 몇보뒤에서 아릿다운 처녀가 두손을 모아잡고 다소곳이 서있는것이 아닌가.

《?...》

자태로 말하면 물찬 제비와 같이 날씬하고 흑진주처럼 빛나는 눈동자에는 그윽한 정이 어렸는데 어딘가 속세인같지 않아보였다.

《그대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고?...》

단군의 두툼한 입술새로 저도 모르게 통명스런 말이 튀어나왔다. 처녀는 감빛처럼 붉어진 얼굴을 더욱 수그리며 몸돌바를 몰라한다.

《저런... 덜통한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배필도 몰라보다니.》

웃음소리에 이어서 모친의 음성이 한결 누그러워졌다. 이미전부터 정해진 색시감이라는것이다.

단군으로서는 처음 맞다들린 일이라 술진 눈섭을 종긋거리며 처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하늘에서 내려보낸 색시감이라지만 이 세상 녀인들의 생김새와 다른것이 없지 않는가?...

갑자기 주위가 술렁거렸다. 그바람에 단군은 잠에서 깨어났다. 산아래 내려갔던 렬탐군들이 돌아온것이다.

단군은 상반신을 벌떡 일으키고 우드득소리를 내면서 기지개를 켜다.

《그래, 형편이 어떠하냐?》

그는 아직도 뇌리에서 반짝거리는 꿈의 잔해를 털어버리듯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앞에 꿇어앉았던 세명의 렬탐중에서 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머무르고있는 이 산마루에서 다섯개의 큰 골짜기가 갈라져내렸는데 여기 사람들은 이를 오골이라 하옵니다.

원래 오골은 골짜기마다 씨족을 이루고 살던 다섯무리가 합치여 하나의 부족으로 화목하게 지냈사옵니다.

그런데 두해전에 사슴골출신의 늙은 추장이 죽자 바우골족장인 호기란놈이 분규를 일으키고 오골의 화목을 깨쳐버린통에 다시 사슴족, 바우족 등 다섯개의 무리로 갈라졌다 하옵니다.

주족이였던 사슴족이 아직 세력이 있고 그 족장이 어린 처녀이기는 하나 무예와 지혜가 출중

하여 호기놈도 아직 어찌지 못하지만 조만간 이곳에서는 큰 살륙이 벌어지고 류혈참극은 피치 못할줄로 아뢰옵니다.》

눈을 찌긔하고 듣던 단군은 코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미간을 모았다.

《흐-음! 그렇다... 그 호기란놈은 처자권속이 있는놈이라더냐?》

울컥 내뿜은 목소리가 굴안을 들들 울리었다.

렴탐군은 추장의 부릅뜬 고리눈을 보고 목을 움추리었다. 이어 벼락같은 재촉을 받고서야 다 음말을 이었다.

《아직 미혼이라고도 하고 어떤 무당년과 동서 생활을 한다 하옵니다만 자식은 없는줄로 아뢰 오.

생김새부터 우락부락한데다 선한 처사는 하나도 없고 악행은 도를 넘어서 오폭안의 남녀로소가 치를 떨고있사옵니다.

호기놈이 워낙 힘장사이고 수하무리가 많아 사람들도 그를 견제하기에만 급급할뿐 속수무책이 옵니다.》

한마디로 쥐여짜면 오폭에 망조가 들었다는 것이다.

렴탐들이 물러난후에도 단군은 눈을 감은채 움직일줄 몰랐다.

턱밑을 못본다더니 박달촌과 지경이 가까운곳에서 험악한 사태가 빚어질줄은 정말 뜻밖이었다.

이 오폭처럼 다른곳에서도 불화와 배척이 일어날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선대부터 꿈꾸어오던 부족들의 통합이 점점 더 묘연해질것이 아닌가.

단군은 눈을 뜨고 동굴안을 휘- 둘러본다. 눈앞에서 굴천정에 거꾸로 매여달린 박쥐가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용케 유지하면서 즐고있었다.

어디선가 석수떨어지는 소리가 출랑출랑 울리었다. 멀고 가까운곳을 분간할수 없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단군은 다시금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리고 생각을 더듬었다. 가지가지 상념속에 지나간 나날들이 환영처럼 꼬리를 물고 떠오른다.

아사달봉에서 무술과 도를 익히던 단군이 부친 환웅의 병고를 받고 박달성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태양신이 하늘로 데려갔다는것이다.

향연기가 자오룩한 신당의 제단앞에서 그는 아버지를 충실히 보좌해온 풍백, 우사, 운사들한테 옛말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환웅이 태백산(오늘의 평양, 강동)에서 하늘의 《천부인》을 하사받은것은 곡식과 생명, 선과 악, 도덕과 형벌 등 360 여가지의 인간생활을 주관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며 산중고 물맑은 이 강토에 권선징악의 법도를 세우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후 환웅은 부루나(오늘의 대동강)가 유유히 감돌아흐르는 태백산기슭에 일족들로서 박달촌을 꾸려놓았다. 그는 여기서 함께 나서자란 풍백, 우사, 운사들과 함께 오곡을 키우면서 주변무리들을 다스렸다.

아직 야생적인 때를 벗지 못한 주변무리들에게 영향을 주어 점차적으로 부루나의 중상류로 그 세력을 넓혀나가기란 그야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느덧 박달족은 이 강토의 주족으로서 그 영향이 동서남북 방방곡곡에 미치었다. 바로 그러한때에 환웅은 단군에게 건국의 중대사를 맡기고 하늘로 올라갔다는것이였다.

단군은 신당의 제단앞에 꿇어엎드려 선대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감수하였다. 그는 부친의 뒤를 이어 박달촌의 지경을 더욱 넓힌 다음 북방원정을 떠났었다.

박달성을 떠난지도 어언 수백여일이 지나갔다. 찌는듯한 무더위와 살을 에이던 북부대지의 강추위, 간고한 행군길과 굶주림, 치열한 피의 격전들...

떠날 때 천을 헤아리던 무리가 지금은 백수십으로 줄어들었다. 얼마나 끝끝한 장수들이며 건국의 훌륭한 기둥들이였던가. 그들은 하나와 같이 용맹하고 지혜로왔으며 목숨을 아끼지 않았었다.

수많은 지기들의 처절한 희생으로 이제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는가싶었는데 이곳의 실패는 불결한 그림자를 던지고있다.

그동안 생사결단하며 이룩한 모든것이 졸지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듯한 허무감도 들었다. 아직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은곳에 호기와 같은 이단자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단언할수 있는가?

단군은 소스라치며 몸을 일으켰다. 가슴이 답답하여 동굴밖을 나섰으나 후끈한 바람이 그의 번열을 부채질한다.

《여봐라!》

기다린듯 최후를 맡은 군사가 달려왔다.

《여기가 어느 골안의 지경이냐?》

《사슴골지경이옵니다.》

《음... 알겠다. 모두 듣거라. 우린 이 동굴에서 당분간 머물러야겠다. 그러니 려장을 풀고 다음 준비를 할지어다.》

군사들은 추장의 돌연한 결심에 아연해져서 일굴만 서로 쳐다보았다. 여기에서 박달촌지경까지는 말을 타고 초저녁이면 가닿을수 있는 거리이다.

그런데 무엇이 그의 발목을 붙들었는가? 어떤자는 말고삐를 털썩 놓아버리고 멍청해서 이쪽을 바라본다.

단군은 군사들의 심리를 속속들이 느꼈다. 비둘기마음 룡발에 있다고 그들에게는 오래간만에

만나게 될 그리운 부모처자들밖에 다른 생각이 없을 것이었다.

그는 호신용 단검만 허리에 지닌채 물끓따라 계곡을 내리었다. 찬물에 뛰어들어 화끈 달아오른 몸을 잠시나마 식히고싶었다.

2

시내가를 따라 한동안 내려가니 커다란 바위벼랑을 끼고 장쾌한 폭포수가 나졌다. 그아래는 물길 이 빙빙 돌아가며 넓은 늪을 이루었다.

맑은 물이 출렁거리는 늪가 주변은 키높이 자란 느릅나무와 물푸레들 그리고 휘늘어진 버들이 듽성듬성 서있고 그 사이사이에 떨기나무들이 바야흐로 꽃망울을 터치며 벌과 나비를 부르고있었다.

질은 꽃향기, 싱그러운 풀냄새와 물비린내, 물벌레의 울음과 새들의 지저귀는 사내의 마음속에 강한 인상을 새기면서 야릇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무심결에 바위를 천천히 에돌아가던 단군은 흠칫 놀라며 굳어졌다. 건너편 늪가에서 어떤 녀인이 목욕을 하고있었다.

탐스럽고 윤기도는 까만 머리칼을 가볍게 흔들면서 가슴노리의 물을 한웅큼 떠서 어깨에 붓고는 문지른다. 몸매를 따라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령롱한 조화를 부리는데 물속에 비친 그 자태 또한 이를데없이 우아하였다.

(허- 번고로다. 내가 귀신한테 홀리웠는가?)

단군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눈을 감았다 떴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들려주던 팔선녀이야기를 문득 떠올렸다. 이 땅의 옥계수가 하도 유정하여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그들일진대 오늘은 어찌하여 외로이 혼자일가?

별안간 가슴속이 활랑거리고 눈앞이 어질어질해졌다.

녀인은 고개를 숙이면서 반쯤 돌아서서는 함치르르한 머리칼을 가슴에 드리우고 빗질을 하더니 이번엔 이쪽으로 돌아선다.

단군은 얼른 바위뒤에 몸을 숨기었다.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확 달아오른 그는 허겁지겁 자리를 피하였다.

녀인의 모습과 자태가 낯익었으나 다시 눈여겨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가 목욕을 단념하고 돌아서는데 저쪽 나무숲에서 왁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난데없는 사나이들이 우르르 쏟아나오더니 킬킬거리며 녀인의 앞둘레로 다가든다.

단군은 굵은 나무줄기를 손에 잡히는대로 와락 비틀었다. 대낮에 이런 무례한 행동거지가 어디 있는가.

《어-그년, 몸맵시 좋다! 훌쩍 삼켜도 비린내나

지 않겠고나. 인젠 그만하고 나오지그래.》

몸이 실락하고 우락부락하게 생긴자가 허리에 손을 얹고서 녀인을 시카스른다. 다른놈들은 히히덕거리며 돌아갔다.

녀인은 폭포쪽으로 몸을 재빨리 피하더니 물속에 자취를 감추었다.

《영? 제법이다. 물귀신과 동침을 하려나보다.》

사내들은 증구난방으로 떠들며 목을 길게 내뻗었다. 머리를 기웃거리며 폭포수로 다가들던 두놈뻥이가 악 소리를 치며 공중잡이를 한다. 휘-소리와 함께 돌들이 연거퍼 날아들었다.

《저년이 폭포뒤에 숨었다.》

한놈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다가 또 면상을 싸쥐고 희뜩 나동그라진다. 녀인의 돌팔매숨씨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망할년, 살고싶지 않으려다.》

우락부락하게 생긴자는 돌팔매를 피하며 장창을 쏘나든다. 어떤자는 활까지 겨누었다.

단군은 피가 거꾸로 솟구치며 비호처럼 늪가를 날아넘었다. 그의 량다리질에 장창과 활촉이 물속에 곤두박힌다.

《이 무슨짓들이냐.》

천둥같은 호령에 끝안이 찌렁찌렁 울렸다. 불한당들은 전율하며 우르르 숲속으로 물러선다.

이윽해서야 우락부락하게 생긴자가 앞으로 나섰다.

《네놈은 대체 누구인고?》

단군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한다.

《그대들의 행동이 너무 무례한고로 뜨거운 땀을 무릅쓰고 나선 길손이니라. 이 망신스런 장소에서 구태여 명함은 밝히지 않겠노라!》

그가 점잖게 이자리를 피하자고 하자 저쪽은 입에 얹은 웃음을 띠고 이쪽을 노려보다가 세모눈에 독기를 번뜩이였다.

《건방진놈, 이 호기어른이 례의를 가르쳐주마, 상관없는 일에 빠치다가 랑패를 본다함은 너를 두고 하는 말이로다.》

그자는 옆의 사내에게서 몽둥이를 잡아채들었다.

(네놈이 바로 호기였구나.)

단군의 고리눈에서 한순간 서늘한 랭기가 풍기였다. 파시 듣던바 그대로의 세상 불망종이 틀림없었다.

호기놈은 바람을 일으키며 몽둥이를 휘둘렀다. 단군이 가볍게 몸을 움직여 피하자 이번에는 허리를 향해 사선으로 내리친다.

단군은 몸을 솟구쳐 발밑으로 몽둥이를 피하고 다시 숲속으로 날아들었다.

《이놈봐라!》

어느결에 광기가 동한 호기는 기합소리와 함께 물방으로 후려친다. 강한 공격이였다.

단군은 껌싸게 받아잡고 뒤로 내뽐렸다. 몽둥

이는 살처럼 흰-소리를 내면서 물푸레중둥이를 쳐쓰러뜨리었다.

《네놈을 죽여버릴테다.

호기는 싸군거리며 허리에서 청동검을 쭉 뽑았다. 시퍼런 칼날이 해빛을 받아 번쩍거린다.

《기어이 피맛을 보겠다는거냐?》

단군은 방어자세에서 공격태세를 취하며 천천히 단검을 뽑아들었다.

《전장이 아니어서 싸우고싶지 않으나 네 소원이 정녕 그렇다니 할수 없는 일이다.》

그의 침착하고 대바른 목소리가 호기를 위압하였다.

《앗-차!》

수평으로 들어오는 칼날이 단군의 가슴을 겨누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재차 날아오는 칼끝을 가까스로 피한 단군은 어지간히 분기가 치밀어 눈감박할새 호기의 수삽송이같은 머리칼을 한웅큼 썩둑 베어버렸다.

모퉁이 송연하여 가물가물하던 호기는 눈에 달을 떠올렸다.

《여봐라, 뭇들하느냐.》

그제서야 멍청해있던 졸개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단군은 슬쩍슬쩍 늑가를 멀리하면서 녀인이어서 몸을 피하기를 바랐다. 그는 아름답리나무를 방패삼아 이쪽저쪽으로 몸을 살처럼 날리었다.

《이 짐승보다 못한놈들아!》

머리우에서 야무진 쇠소리가 나더니 어느사이 옷을 갈아입은 녀인이 칼을 비껴들고 단군의 뒤를 막아섰다.

《앞에선 살피시오이다.》

그의 젖어든 목소리가 창황중에도 단군의 심금을 울린다. 이어 뒤전에서 사내의 비명이 들려왔다.

녀인은 몸을 가랑이처럼 띄웠다가 번개같이 좌우로 공격을 들이대며 놈들로 하여금 손쓸 틈을 주지 않았다. 그의 검술은 섬세한 춤가락을 연상시킨다.

손발에 땀이 나기 시작한 단군은 그와 쌍무릎 하듯 유연하게 몸을 놀리었다.

놈들은 위낙 수적으로 열곱이 넘는지라 처음엔 상대를 우습게 보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여유작작한 이쪽의 대응에 점점 기가 꺾이었고 혈색거리는 숨가쁨을 감추지 못한다.

별안간 숲속에서 《와-》하는 함성과 함께 수십명의 무리들이 짓쳐나왔다.

《사슴골놈들이다.》

호기는 어느새 말안장에 올라앉았다. 형세가 불리함을 제격 알아차린놈은 뺑소니를 치면서도 악에 받쳐 뇌까렸다.

《이 뻥방군놈아, 네놈을 가만두지 않을테다.》

불한당들이 사라진 서남쪽에 대고 침을 뱉고난

단군은 천천히 칼을 거두었다. 그리고는 제사라들속에 둘러싸인 녀인에게로 고개를 돌리었다.

녀인도 그와 눈길을 마주치자 옷매무시를 바로 잡으며 마주나왔다. 어렵게 대하는 눈길이 단군의 아래우를 조심조심 더듬었다. 상처가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숨을 호- 내쉬었다.

어느덧 녀인의 아름다운 눈가에 핑그르 이슬같은것이 고여올랐다. 창피스러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그의 착잡한 표정을 마주대하기가 면구하여 단군은 슬며시 눈길을 돌리었다.

알고보니 그가 바로 사슴골의 족장인 달녀였다.

처녀가 호기놈에게 굶어들지 않고 지경을 범할적마다 호되게 답세기군하자 놈들은 기회를 노리다가 이처럼 비렬한짓도 서슴지 않았던것이다.

단군은 사슴골사람들의 사례를 겸허하게 물리치고 발길을 돌리었다. 계곡을 따라 스적스적 오르던 그는 걸음을 문득 멈추었다. 아까 꿈속에서 본 처녀가 신통히도 달녀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옥한 눈매, 곱게 휘여든 반달눈썹, 물론 제비처럼 청신한 몸자태...

현실과 꿈속의 처녀를 다시한번 그려보던 단군은 고개를 젓히고 허구쁜 웃음을 터치었다. 꿈자리가 싱송송하더니 이놈의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었나보다.

3

이튿날 석양무렵이었다.

숲속에서 부하들에게 병법을 가르치던 단군은 사슴골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전갈을 받고 동굴앞에 나타났다.

그의 앞으로 백발이 성성한 로인이 두손을 배허벅에 올려붙이고 숙연한 걸음으로 다가온다. 뒤에는 한무리의 남녀가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린채 있다.

《천사님께서 성을을 베푸신 사슴골사람들이 인사를 드리옵니다.》

이렇게 정중히 입을 연 로인은 너푼 옆드리며 절을 세번 하였다.

《아니, 이러지 마소이다. 존장은 대체 뉘시며 은혜란 무슨 말이온지?》

단군은 그를 손잡아 일으키었다. 자기를 하늘나라사람으로 존대하는 로인의 기품이 록록치 않게 느껴졌다.

《저는 사슴골의 좌수로서 달녀족장의 선대부터 섬겨오는 능보라는 사람이옵니다.》

이번에 저희들의 불찰로 족장님이 사악한 무리들한테 치욕당할뻔한것을 천사님이 구원하셨소이다. 족장님의 치욕은 곧 사슴골의 치욕이요 멸망인지라 하늘에서 내린 천은이 아니었다면 어찌될번하였나йка?

실로 백골난망이로소이다.》

로인이 다시 절하려는것을 억지로 막으며 단군은 아직 엎드리고있는 무리들에게 일어나라고 했다.

그제서야 사슴꼴사람들은 몸을 일으키고 가저온 음식가지들을 펼쳐놓기 시작하였다. 향기로운 술, 못집승로리, 갖가지 산채, 기장과 조찰떡... 가지수도 풍성했지만 누구인가의 섬세하고 곡진한 지성이 느껴져 사뭇 류다른 정회를 불러일으킨다.

단군은 음식들에서 달녀의 다심하고 은근한 체취를 감수하며 묵묵히 서있다가 군사들을 불렀다.

사슴꼴사람들은 그의 부하들이 나타나자 눈이 휘둥그레져서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파시 천병(하늘의 군사)들이 다르구나!...》

능보는 길다란 수염을 내리쫓며 끝끝한 군사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단군은 능보로인과 자리를 나란히 정하고 먼저 술을 권하였다. 군사들도 사슴꼴사람들과 어울려 권커니작커니 한다. 녀인들은 즐겁게 돌아치며 동자질에 여념이 없다.

술이 서너순배씩 돌아 능보는 동굴입구를 감회깊이 바라보다가 의미심장하게 말꼭지를 떼었다.

《저 동굴로 말하면 우리 사슴족의 신당이온데 참으로 령험스럽기 그지없소이다.》

그가 노래가락처럼 이야기를 술술 펼치자 좌중은 물뿌린듯 조용해졌다.

언제인가 이 오후에 무시무시한 재난이 닥쳐들었다. 원인을 알수 없는 돌림병이 퍼져 삽시에 사람들을 무리로 쓰러뜨리었다.

사냥갔던 곰석(달녀의 아버지)과 능보를 비롯한 마을 젊은이들이 며칠만에 돌아오자 골안은 성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곰석이네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다른 골안에 가보았으나 거기서들도 절망적인 아우성만 칠뿐이었다.

시체는 골짜기들에 지저분히 널렸고 가는곳마다 악취가 풍기었다.

별의별 역사질을 다해보았으나 병이 호전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설상가상 병구완으로 뛰던 젊은이들도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다. 오후의 전멸은 피할수 없게 되었다.

땅을 치며 통곡하던 곰석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동굴쪽을 바라보고 치달아올랐다. 사냥에서 돌아올 때 길을 물어보던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동굴에 있었던것이다.

능보가 뒤따라 올라가니 그 사람들은 길떠날 차비를 하고 동굴을 막 나서던참이었다.

《우리가 그때 정신들이 없었지요. 무작정 그 어른들의 다리를 붙들고 애걸하였소이다. 물에 빠진놈 검불이라도 잡아보려는 심사였습지요.》

하, 그런데 이런 천은이 어디 있겠소이까! 그분네들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인들이었사옵니

다.》

로인은 잠시 이야기를 끊고 술을 한모금 쪽 들이켰다. 그리고나서 감개무량한 어조로 말을 계속하였다.

...눈정기가 류달리 영채롭고 위엄있는 사람이 같이 온 세사람에게 무엇인가 령을 내리자 그들은 산속에 다시 자취를 감추었다.

《저들은 뒤따라 올터이니 어서 내려가자.》 하고 위엄스런 사내는 성큼성큼 먼저 산을 내리었다.

마을에 도착하자 그 사람은 성한 무리들을 모여놓고 이리이리하라 이룬 다음 제먼저 팔을 부르짖고나섰다. 그는 협낭에서 크기가 각이한 돌침을 꺼내들고 마을사람들에게 빠짐없이 침을 놓았다.

뒤떨어졌던 세사람도 왔는데 무슨 풀뿌리같은것을 한보파리씩 캐어들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산마늘이었다.

그 산마늘과 골짜기에 흔한 쑥을 짓뭇어 즙을 낸 다음 끓인물에 타서 병자들에게 먹이니 즉시 효험이 나타났다. 보름후에는 다섯골안이 모두 병을 털고 일어나게 되었다. 참으로 기적같은 일이 아닐수 없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들은 아직 목축업이나 짐승사냥을 생업으로 하던 이곳 무리에게 농사의 병치료, 세간살이와 인간생활 등을 가르쳐주고 씨족들을 합쳐 부족으로 만들었다.

곰석이네들이 그들보고 이고장의 우두머리가 되어 함께 살자고 하자 위엄스런 사내는 《우린 천하를 얻고자 한다.》라며 꺾꺾 웃었다.

어느날 그네들은 곰석을 따로 불러 장시간 이야기를 하더니 올 때처럼 초연히 사라졌다.

《그후 이고장사람들은 저 동굴을 신당으로 삼고 해마다 그 은인들이 산을 내린 날에 큰 제사를 지내곤하였소이다. 그날이 바로 사흘전이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호골사람들이 하늘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면서 능보로인은 신기함을 금치 못하였다.

듣고보니 실로 옛말같은 사연이 깃든 고장이다.

단군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동굴 주변을 둘러보았다. 황홀한 저녁노을빛을 타고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금시 내려올듯싶었다.

능보로인의 말은 가치를 쳐서 달녀일가에게로 번지었다.

《달녀죽장은 불쌍하게 자랐소이다. 세살때 모친을 잃고 홀아버지 술하에서 고생이 막심하였습지요. 곰석어른이 고정한분이여서 후취를 하지 않고 외동딸을 아들맞잡이로 키웠사옵니다.》

부친을 공양하는 달녀님의 효성은 참으로 지극했소이다. 마음이 비단결같구 례의범절은 범상치 않아 린근에서는 하나와 같이 오후에 내린 선녀

라고 하옵니다.

곰석어른의 포부는 오직 하나였소이다. 지경을 부단히 넓혀 하늘에서 내린 천사들이 도읍을 정했다는 박달촌에 오골을 합치는것이였사옵니다.》

단군은 쳐들었던 술독배기를 급히 내려놓았다. 묵직한 그 무엇이 흥벽을 둔중하게 울린다. 이런 변이라구야!

그러니 이고장은 박달촌과 기이한 인연을 맺고 있는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위엄스런 사나이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환웅이였고 세사람은 풍백과 우사 그리고 운사였다. 세상은 넓고도 좁다더니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가?

능보로인은 후-한숨을 길게 내쉬고나서 술을 두세모금 꿀떡꿀떡 넘기였다.

한동안 추연해진 낮빛으로 먼곳을 바라보던 그는 울기어린 어조로 이야기를 맞물리였다.

《저 불망종같은 호기놈이 곰석어른의 대의명분에 반기를 들었습지요. 그 때문에 어른은 복통이 터져 돌아갔소이다.

신의와 인륜을 헌신짝처럼 버리구 제 리속만 차리던 호기놈은 온갖 감언리설로 패당을 굶어몰더니 이젠 동족을 죽이는것도 서슴지 않사옵니다.

오죽했으면 갓난애들까지도 호기가 온다면 울음을 똑 그치겠나이까.

다행히 아버지의 성미를 닮아 대바르고 어려서부터 무예와 재주가 뛰어난 달녀님이 있어 아직은 사슴골에 큰 변고가 없지만 다른 골안들은 이미 호기놈의 란장판이 되었소이다.

어제 달녀님이 치욕당할뻔했다는 말을 듣고 이 늙은것은 죽고만싶었소이다. 비명에 작고하신 곰석어른의 령혼을 무슨 낫으로 대하겠나이까.》

능보의 주글주글한 눈가에 굵은 눈물방울이 맺혔다가 불을 타고 흘러내린다.

《천사어른, 우리 오골을 다시한번 건져주시오이다.》

단군은 그의 손목을 이윽도록 잡고있다가 묵중하게 입을 열었다.

《로인장, 너무 상심마소이다. 하늘에서 이곳을 망나니의 란장판으로 그냥 내쳐두지 않을것이오이다.》

사슴골사람들이 내려간후 단군은 오래동안 동굴앞을 거닐었다. 축축한 밤이슬이 그의 발목을 화락하게 적신다.

부드럽고 은은한 달빛, 두견새의 유정한 울음소리, 지어 무릎을 스치는 싱그러운 풀냄새조차 무심히 대할수 없었다.

자연은 태고적부터 자기의 모든것을 이 세상에 변함없이 내맡기였다. 그런데 사람들의 세상살이는 점점 복잡다단해지고 인륜과 신의는 불화와 배신으로 하여 그 존재를 위협당하고있다.

한하늘, 한지맥인 이 강산에서 불화는 왜 생겨나며 동족들속에 호기같은 역적은 어째서 나타나

게 되었는가? 곰석이나 능보 그리고 오골사람들의 불찰은 없었던가?

여기에 석연치 못한 무엇이 있다. 독초는 그 싹부터 가려보고 없애버려야 한다. 줄기들이 무섭게 엉클어지도록 설마설마하다가 독을 쏘인 다음에야 저것이 독초였구나 하며 진저리를 치지만 그때는 이미 형편이 기울어진 다음이다.

능보로인의 이야기는 단군의 가슴속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 강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오랑캐들을 경계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안으로부터 생기는 불화와 배신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대업을 이룩할수 없는것이다. 여름밤은 바닥없이 깊어간다. 벌써 두해째의 닭울음소리가 계곡에 부딪치며 울려왔다.

《추장어른, 바우골에 갇던 렬탐들이 왔소이다.》 전령군사가 조용히 다가서며 아뢰인다. 렬탐들은 바우골의 실정을 손금보듯 일러바쳤다.

단군은 오락가락 거닐며 이따금 머리를 끄덕이였다. 대다수가 호기의 횡포성에 진저리를 친다면 바우골을 악에서 건져낼수 있다는것이 아닌가.

《호기놈과 동서생활을 한다는 그 무당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보아라.》

이름은 석녀, 산신당의 큰무당이다. 그는 족장의 다음가는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

단군은 날이 밝자 사슴골에 사람을 보내었다. 달녀는 그의 권고를 군말없이 받아들였다.

4

하늘에서 내려온 장수가 술한 군사를 이끌고 곧 짓쳐들어온다는 소문은 바우골안을 벌둥지처럼 쭈셔놓았다. 이웃골에서 끌려와 노예살이를 강요당하던 사람들은 물론 바우족내부에서도 소요가 일어났고 란을 기피하는자들이 꼬리를 물었다.

호기는 토성안팎에 겹겹으로 파수를 세워놓고 소요를 일으키거나 기피하는자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렸다.

신새벽부터 사람들을 토성보수에 내몰고 군사들을 닥달질하던 그는 해가 기울자 산신당으로 말을 물었다.

하루이틀사이 소요는 일단 가라앉았으나 민심은 여전히 흉흉하였다. 렬탐들이 알리는 소리마저 개개가 부아통을 건드릴뿐이다.

머칠전만해도 그의 말발굽아래서 설설 기던 이웃골들이 사슴골과 합세하여 바우골을 옥버튼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조화가 일었기에 오골의 형세가 이렇듯 휘뺄 뒤집혀졌는가?

불현듯 사슴골의 폭포늪가에서 만났던 범상치 않은 길손이 머리속에 떠오른다. 부릅뜬 고리눈, 번개같은 몸동작, 여유작작한 태도, 변화무쌍한

검술...

호기의 손이 저도 모르게 정수리를 더듬는다. 참새동지처럼 움푹해진 머리칼그루터기가 만져졌다. 순간 서늘한것이 등골로 쭉 가로질러간다.

《음-》

그는 신음소리를 내지르며 말배때기를 힘껏 들이쳤다. 화닥닥 놀란 말이 네굽을 안고뛰었다. 산신당앞에 이르렀을 때에야 겨우 자신을 다잡고 큰무당을 소리쳐 불렀다.

해사하게 생긴 녀인이 문가에 나타났다. 산신당의 큰무당 석녀였다.

《어서 곶판을 벌려라.》

녀인은 말의 사나운 투레질과 족장의 험상궂어진 기색에 덴겁하여 뒤걸음으로 물러났다가 무당들을 끌고나왔다.

말에서 내린 호기는 마당가의 나무등결에 털썩 걸터앉으며 은근한 목소리로 재삼 일렀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테니 판을 크게 벌릴지 어다.》

석녀는 그 암시를 제격 알아차렸다. 하지만 신장대를 쥔 손이 떨리고 입귀로는 가느다란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는 몇해전에 범한데 홀리웠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녀인이다. 그런 경난을 겪은후 가끔 일어나는 정신이상으로 때없이 시시거리다가는 혼자서 우알거리며 끝안을 좁다하게 돌아쳤다.

아이들은 그가 먼발치에서 얼씬해도 겁이나 도망쳤고 어른들까지 범귀신이 붙은 녀자라면서 몹시 꺼리었다.

호기만은 그 기괴한 행동거지를 신령스레 대하면서 녀인을 슬슬 부추기었다. 잘 리용하면 짐승을 조상신으로 숭배하는 바우족을 다스리는데 유리할뿐아니라 이웃골들도 쉽게 중간에 넣고 귀락 퍼락할수 있다는 타산에서였다.

석녀는 무당로파들한테서 한동안 보살핌을 받다가 산신당의 큰무당으로 들어앉았다.

건강을 말끔 회복한후에도 그는 이따금 정신이상때처럼 행동하였다. 확고한 담보가 없는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려면 초인간적인 행세로 족장의 뜻을 부각시키고 그 《신통력》을 사람들에게 설교하여야 했다.

며칠전 꿈결처럼 산신당에 나타난 달녀를 보자 그는 눈앞이 아득했었다. 본의아니게 한발두발 내질은 걸음이 이제는 낭끝에 섰는가고 소스라쳤다.

하지만 달녀는 《이제라도 하늘앞에 행동거지를 바로하라》고 준절히 타이른 다음 표연히 사라졌다.

...어느덧 산신당의 널찍한 마당가에는 사람들이 줄레줄레 빙 둘러섰고 무당들의 곶판은 악마구리끓듯 소란해지기 시작하였다. 징과 빨피리의

혼잡스러운 장단속에 신을 형상한 가무들이 펼쳐졌다.

석양무렵인데도 날씨는 여전히 찜물쿠었다. 이따금씩 나무잎을 흔들던 바람결도 더위에 녹아버린듯 잿아들었다. 발밑에서는 메마른 먼지만이 풀썩풀썩 일었다.

석녀는 땀투성이가 되어 곶판을 빙글빙글 돌면서 호기를 결눈질로 살폈다. 하루사이 얼굴은 더욱 험상궂게 이지러지고 폭 꺼진 눈확에서는 살기가 풍겨왔다.

뉘엿뉘엿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다가 이쪽에 초조한 눈길을 보내는걸 보면 어서빨리 신의 계시를 전도하라는 독촉이 분명하다. 이를테면 바우골에 뻗친 액운은 족장의 전지전능한 살풀이에 의하여 곧 가셔질것이라고 말해야 하는것이다.

코앞에 다닥친 화를 온몸으로 감수하고있는 저 사람들에게 신의 계시라는것이 과연 타당하게 먹혀들어갈까?

며칠어간에 다른 끝안들은 사슴골을 중심으로 부족공동체가 부활되었고 하늘장수(단군)가 통솔하는 오폭의 싸움군들이 기세등등 바우골로 조여들고있다.

호기는 오합지졸로 여기고 싸움에 나섰다가 술한 군사들만 잃어버렸다. 한번은 외통길에서 달녀와 맞다들려 머리없는 귀신이 뿔뿔하였다고 한다.

말그대로 오폭 백리일판은 하늘장수의 조화속에 들었다. 산천초목도 호기를 외면한듯싶었다.

어제는 사슴골에서 능보가 담판을 왔었다. 하늘의 뜻을 따라 순순히 항복하면 지난 악행을 용서하고 맞서면 가차없는 벼락을 내리겠다는 하늘장수의 최후통첩을 전했다.

호기가 속이 살아서 코방귀를 귀자 능보는 대노하여 호통쳤다.

《이놈! 천은이 망국하여 너같은놈에게도 자비가 베풀어졌는데 아직도 망종질이나? 천하에 짐승보다 못한놈이로다.》

호기는 제편에서 악이 치받쳐 칼을 빼들었다. 그러자 능보를 호위하는 수십의 군사들이 위엄을 떨치며 가까이 다가서지도 못하게 하였다. 천병이라 부르는 그네들은 하늘장수의 친솔부하로서 펄펄 나는 싸움군들이었다.

《후회는 언제나 뒤늦게야 오는것이니 잘 생각해볼지어다.》

귀로에 오르면서 던진 능보의 추상같은 목소리가 아직도 석녀의 귀에 쟁쟁하다.

바로 래일이면 하늘장수가 정해진 기한이 끝나게 된다. 그다음일은 생각만해도 머리카락이 쭈뼛 일어선다. 무자비한 살륙, 끝안에 내물처럼 흐르는 피, 처절한 곡성...

이 령리하고 총명한 녀인은 며칠밤을 뜬눈으로 새웠다. 호기의 악행들을 본의아니게 정당화하

고 장단까지 쳐온 지난날이 뼈를 깎는 듯한 아픔 속에 누워쳐졌다. 속죄를 거듭할수록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워 몇번이고 목을 졸라매려 하였다. 그때마다 배속에서 태동하는 피덩어리가 팔힘을 뿜으면서 애절하게 뒤채이었다. 비록 호기의 종사이지만 새 생명한테야 무슨 죄가 있으랴.

저쪽에서는 겨레불이끼리 류혈을 피하고저 이쪽이 스스로 무릎꿇기를 바란다. 이것은 두번다시 차례질수 없는 하늘장수의 은덕이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화를 면하려면 호기의 마음을 움직여 하늘장수의 너그러운 은총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하는것이다. 그런데 저 악행으로 굳혀진 위인이 험한하게 받아들일가?

《오- 호- 네- 야!》

석녀는 착잡한 심뇌속에 곱판을 허허이 돌고 돌아다. 한바퀴, 두바퀴, 세바퀴...

드디어 그는 비장한 결심을 안고 사람들앞에 나섰다.

《인생에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림은 태고적부터 하늘이 정한 사람의 본바탕이었노라. 선은 복이요 악은 화일진대 그대들은 어찌하여 하늘의 뜻을 거슬리느뇨?

슬프다, 그대들의 악행은 도수를 넘어 인륜과 신의마저 검불마냥 내버렸고나 불쌍한 족속인고로...

천지신명께서 이곳을 굽어살피시와 가없이 여겨 징벌의 살을 멈추고 묻노니 이제라도 개심할 용기들이 있느냐?》

석녀는 호기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절절한 어조로 말마디를 돌구었다.

《오호라, 선은 인생의 본바탕이자 하늘의 뜻이거늘 그대들은 마땅히 악을 버리고 선인으로서의 제모습을 되찾을지어다.》

(아! 진작 이렇게 했어야겠는데...)

그는 호기가 몸을 일으켜 자기한테로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온 뉘를 다 바쳐 춤을 추었다. 새로운 인생살이를 갈망하는 녀인의 모습은 그지없이 아름다웠다.

사람들은 황홀하여 연방 경탄의 목소리를 터친다. 오클에 달너말고 선녀가 또 있었는가!

《다시 한번 입을 놀려라.》

어느결에 칼을 뽑아든 호기가 딱딱 마주치는 이새로 으르렁댄다.

사람들은 흠칫 굳어지며 숨소리를 죽였다. 그런데도 석녀는 맑은 웃음을 저녁대기속에 피워올리면서 춤가락을 멈추지 않았다.

《하늘의 뜻을 따를지어다. 이제라도 맘을...》

은방울 굴리듯하던 그의 랑랑한 목소리가 툭 끊기우며 칼날이 무지개를 그린다.

《요망스런치고, 하늘바람에 환장을 하였구나.》

호기는 불편을 무섭게 썰룩거렸다.

《귀신은 역시 귀신이로다.》

칼날이 한번 더 번뜩이었다. 석녀는 춤동작을 흐트리지 않은채 빙그르르 뒤채이면서 천천히 뒤로 나가넘어졌다. 가슴에서 선홍색 피방울이 분수처럼 솟구쳐었다.

《악!-》

녀인들이 찢긴 입새로 터진 비명소리가 골안을 처절하게 울린다. 곱판은 삽시에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큰무당한테로 옥 물켜셨다가 하나, 둘 기절해버리는 무당들, 어머니품을 파고들며 바스라지게 울어대는 아이들, 호기에게 창끝처럼 돌려진 못사람들의 저주로운 눈초리, 분노로 리성마져 잃은 늙은이들의 울부짖음...

석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숨을 토했고있었다. 녀인의 맑은 눈동자는 저녁노을이 곱게 비끼어서인지 좀처럼 감겨지지 않았다.

5

잠 못들던 한여름밤은 지새고 아침해가 동산마루에 불쑥 솟아오른다. 단군은 해마중가듯 등성이길 스적스적 걸었다.

이 아침따라 해님의 거룩함과 은혜로움이 가슴에 더욱 사무친다.

뜨거운 열과 밝고밝은 빛으로 예이제 변함없이 만물을 보살피는 저 신비의 세계... 하늘로 머리를 향한 사람들은 누구든 그 이름할수 없는 혜택에 감지덕지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래서 세상살이를 인륜과 신의로 가꾸는것이 아닐가...

호기같은 안하무인이 간혹 천도를 여기면 세상살이에 그늘을 던질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갓 구름덩이가 해빛을 오래 가리울수 없는것이다.

오클에서의 사태변화는 단군이 예견하고 짐작한 그대로였다. 악행이 제아무리 기광스러워도 민심을 딛고 올라서지는 못한다. 민심은 곧 천심이다.

간밤에 바우골로부터 회소식이 날아왔다. 호기가 격노한 바우골사람들에게 주리를 틀리운채 짐승잡이함정속에 처박히었다는것이다.

오클진영은 술렁술렁 끓었다. 드디어 역적놈에게 회술례를 시킬 때가 온것이였다.

군막안을 쿵쿵 거닐던 단군은 저윽 갈리는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장하도다. 석녀여! 너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노라.》

석녀는 자신의 비장한 최후로서 바우골사람들을 각성시켰고 동족상쟁의 류혈참극을 막아냈다. 곡절많은 그의 운명을 두고 사람들은 가슴을 고통스레 허비였다.

달너는 끝내 참아내지 못하고 오열을 터뜨렸다. 죽어서라도 오클사람들의 화목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겠노라 했다는 석녀의 마지막말은 이고장

여기저기서 행하던 반목에 대한 원성이기도 하였다.

호기와 대결속에서 달녀의 눈에 비껴든 석녀는 민심을 소란시키구 풍기를 어지럽히는 요물에 불과했었다. 그러니 같은 녀자라지만 무슨 상통이 있으랴.

정도 품앗이라고 겨레의 마음들에 이해와 도량이 오고가지 않으면 반목과 불화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오골에서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

단군은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는 달녀를 일별하며 능보와 함께 지휘군막을 나섰다.

《출병을 이밤중으로 앞당기지 않겠소이까?》

바우골쪽을 바재이며 능보가 묻는 말이었다.

《...》

단군은 하늘가에 총총한 못별들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크고작은 별들은 서로 이마를 맞대이고 긴한 사연을 속삭이듯 도글도글 잠박거렸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두견새소리에 심금이 야릇하게 흔들리었다. 귀에 익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박달성에서 날아온 두견새가 아닌지?...

그는 한참후야야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소이다.》

지금에 와서 무엇보다 급선무는 석녀와 그를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우골무당들의 영혼을 놀래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풍치수려한곳에 석축으로 무덤을 크게 짓고 그들을 고이 안장한 다음 후세도록 명복을 빌어야 한다. 그다음은 바우골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생업에 힘쓰도록 안착시키는 것이다.

호기의 충동질로 일시 악행을 범하였던 자들에게도 개심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살인자가 아닌 이상 자비를 베풀어 선인의 본바탕을 되살려주면 그것이 곧 덕행으로 될 것이 아닌가.

덕을 쌓고 쌓으면 천하를 얻는다고 한 부친의 훈계가 새로운 의미를 덧붙여 되새겨졌다.

하여 단군은 날이 쉼녘에 능보를 달녀보다 한 발 앞세워 바우골로 파했던 것이다.

어느덧 아침해는 하늘에 등실 솟아올라 누리를 더 밝게 비친다. 산허리에서 늪실대던 안개가 잦아들자 바우골의 룬팍이 시야에 안겨왔다.

달녀가 이끄는 군사들도 지금쯤 산신당어구길에 들어설 것이다. 속깊은 그 녀인은 석녀에게 같아입힐 새옷가지를 정성스레 짜안고 떠났다.

단군은 말에 올라앉아 진중을 한바퀴 돌아보았다. 아침때식이 한창이었다.

어느 한곳에는 끝안이 다른 군사 너댓이 모여 앉았는데 서로 음식을 권커니작커니 깨가 쏟아지고 있었다. 다정하고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바라보던 단군은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흥그러워졌다. 동

시에 참을수 없는 시장기를 느끼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좌중에 성큼 끼여앉았다.

《나도 여기서 한술 걸치자꾸나.》

동자를 맡은 군사가 술과 음식들을 날라왔다. 하늘장수와 자리를 같이하게 된 군사들은 좋아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다.

단군은 먼저 술 한뼘배기를 단숨에 쭉 들이켰다. 켄켄하던 목이 시원하게 열리며 이를데 없는 쾌감을 불러일으킨다.

음식그릇들을 물린뒤 앉은자리에서 스스럼없는 대화가 오고갔다.

《저... 한가지 묻겠소이다.》

《어서 그리하라.》

《우리 오골을 두고 하늘나라와 사둔간이라는 말이 항간에 나돌고있사온데 그게 사실이온지?》

《허- 사둔이 뵈고, 한집안이지.》

《예?... 아니 그럼... 저희들이 하늘장수님과 혈육이 된다 그 말씀이오까?》

《왜 놀라느냐, 혹 나를 귀신으로 보는게 아니뇨?》

《아 아, 그런게 아니오라 어딘가 속세인과는 달라보여서...》

《허허... 그대들처럼 나도 어머니품에서 세상에 나왔구 그대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사는 한강토사람이니라.》

단군은 뺨수를 청하여 시원스레 마시고나서 몸을 일으켰다.

《하늘나라를 별세상으로만 보지 말어라. 나와 그대들, 우리 겨레가 한피줄로 이어진 이 세상이 바로 하늘이노라.》

군사들은 눈이 화등잔만 해서 그의 거울진 뒤모습을 바라본다. 무지렁이들 소견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말이었다.

단군은 정오무렵에 오골군사들의 진을 거두었다. 얼마후에는 벌써 바우골을 가까이하고있었다.

강폭이 넓지 않은 시내가에 다달으자 건너편 둔덕너머로 활짝 열어놓은 토성문이 바라보인다.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왔다. 곡식을 여물쿠는 바람이었다.

둔덕에 올라서니 어느새 성밖으로 사람들이 하얗게 마중나오고있었다. 그들속에는 달녀와 능보의 모습도 보였다.

바우골사람들은 길랑열으로 갈라져 넘죽넘죽 엮드린다. 담너로소 할것없이 이마를 땅에 불히고있었다.

장마를 걷어올린 하늘은 류다르게 맑고 푸르렀다. 불어오는 바람결도 한결 서늘롭다.

단군은 말에서 불시에 물려드는 줄음을 쫓아 내노라 무진 애를 쓰고있었다.

더 높은 정치적자각을 안고

20세기가 다 기울어가는 1994년이야말로 우리 인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원로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잃은 세기적인 불행과 상실의 아픔으로 하여 이 지구위에 피눈물의 크나큰 바다가 생겨난 가장 비통한 한해였습니다.

생각하기조차 가슴아픈 7월로부터 우리 시인들은 잉크가 아니라 눈물로 글줄을 찍어갔으며 그 나날은 너무도 크나큰 슬픔의 파도에 묻혀 무아몽중과도 같은 세계에서 넋을 잃고 붓을 움켜쥐고 나날이였습니다.

앞날에 있을 사건들이 확연히 예견될 때 시인의 머리속에서는 시상이 미리 떠오르기도 하고 작가수첩에 속필로 포착해놓은 그 시상은 닥쳐올 사변에 대한 준비이기도 하고 감정의 축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천벽력과도 같이 들이닥친 이 비보는 수령님 모시여 우리가 누리고있는 끝없는 행복으로부터 최악의 불행과 아픔에로의 급전이였으며 자기를 미쳐 수습할사이 없이 전인민적인 비애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든 전무후무한 사변이였습니다.

참으로 수령님의 서거를 두고 깊은 애도의 정으로 차넘친 이 기간은 이날까지 수령님께 바쳐온 진정과 량심이 깨끗한 눈물과 피타는 몸부림으로 분출한 정신적으로 가장 투명한 기간이었으며 그 진정과 량심에 자그마한 티라도 있었다면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들여다보며 경멸감과 자책에 머리숙인 심각한 기간이였습니다.

우리의 귀감으로 되고있는 혁명선열들과 동시대인으로서 신념과 의리에 투철한 원형들의 정신적높이에서 자신을 굽어볼 때 그 기간 몇편의 작품을 창작발표하였지만 나의 충성심이 이것이 다였던가 하는 허전함속에 자기가 살아온 생의 전기간을 다시 검토해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

면서도 심각한 생활과 창작실천의 계기를 통하여 자신을 검토해볼수 있게 된 정신적자각-이것이 일정하게 자체성장으로 되지 않았는가 하는 위안도 가져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 못다바친 충성심을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 다 바쳐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으로서의 나의 한생을 관통해나가야 할 영원한 주제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작가는 당과 수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내린다 하여도 오직 당을 받들어 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나가야 하며 그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야 한다.》

저는 새로운 정신적높이에서 1995년 이해의 창작의 역센 걸음을 내딛으려고 합니다.

조국해방 50돐과 당창건 50돐을 맞는 이해, 조국통일의 원년으로 민족이 기약한 이해, 새해를 맞는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아름찬 창작과제를 벌써 나는 어깨우에 걸머졌습니다. 무겁고 힘겹다고 중도에서 잠시 짐을 내려놓고 쉬는일이 없이 줄기차게 이 한해를 달려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한마음한뜻으로 펼쳐나선 우리 인민들을 적극 고무하는 열렬한 시인이 되겠습니다. 이 길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 전사의 의리를 다하는 길이며 자나깨나 그리워지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의 소원대로 영생하시는 길이 있기때문입니다.

《**김일성상**》 계관인 시인 오영재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계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형상을!

상실의 슬픔과 아픔으로 진 가슴속 웅어리가 어떻게 풀릴수 있으랴.

허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자다가도 눈을 뜨고 처음 더듬는 생각은 아버지 수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에서는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의 혈연적인 관계를 풍부한 생활로 펼쳐야 한다.》

천만년 세월이 흐른대도 인민들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인간적품모를 잘 형상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이 지닌 가장 영예롭고 책임적인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자그마한 손색도 없이 의의깊게 그려낼 때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더없이 만족해하실것이다. 그이의 기쁨을 마련하는 길에서 새해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

정신, 재능, 육체이다. 그것도 깡그리! 솟아오르는 아침해와 더불어 결의한다. 새해의 진군길에서 락오자가 아니라 선구자가 되겠다는것을...

그러기 위해 수령님을 못잊어하며 그이의 유훈을 받들려 모든것을 다 바치는 로동계급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겠다. 번두리가 아니라 더 깊은 생활의 중심으로 말이다. 하면 그들은 작가에게 진

심을 말할것이며 령감을 불러일으켜줄것이다. 그들속에서 주물공이 되고 선반공이 되며 조립공이 되리라.

하여 한평생 인민속에 계시며 인민을 좋아하시고 인민을 사랑하시며 인민을 믿어오신 인민의 수령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작품에 형상할 결심이다.

물론 쉬운일이 아니라는것을 나도 안다. 하지만 인민의 요구를 체현한 작가된 사명감을 안고 물러서지 않으려다. 그 길에서 순직자가 될지언정...

이것이 1995년 새해를 맞으며 다지는 나의 결의이다.

희곡작가 서남준

새해결의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소설을!

너무도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비애 속에 199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느라니 자신의 창작생활에 대하여 다시 돌이켜보게 됩니다.

첫 소설을 발표하던 때로부터 강산이 두번 변할만한 세월이 지났으나 과연 내가 우리 당이 요구하는 그런 높이의 소설작품을 한편이라도 내놓았던가 하고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새해는 우리 당이 창건되어 선뛴이 되는 해입니다. 주체의 가치를 높이들고 우리 당이 세계혁명의 전위로 나선 때로부터 선뛴이 되는 1995년!

이해는 우리 작가들의 창작에서 하나의 분수령으로 되여야 할 해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설은 온갖 낡은것에 도전하는 새형의 문학으로 되여야 한다. 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높은 문화수준에 맞게 소설문학에서 혁명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소설문학에서의 혁명! 그것은 소설문학분야에 남아있는 온갖 낡은 요소와 도식적인 틀을 마스고 주체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 소설을 많이 창작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새해결의

성스러운 시대에 남기는 자욱

지난해를 돌아보면 마음속에 행복한 추억만이 가득차울라 겹겹기만 하던 그런 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의 자애로운 어머니를 잃은것으로 하여 반만년 력사이래 가장

짧지 않은 세월을 두고 소설을 써왔으나 량적으로도 많지 않았고 그나마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자책이 깊어집니다.

낡은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새로운 소설을 많이 창작하자! 이것이 저의 새해결의입니다.

능력에 비해 너무 엄청난 결의일수도 있지만 다르게는 맞을수 없는 1995년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혁명의 수위에 모시고 창작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완성에 이바지하고 수령님의 영생을 지켜드려야 하는 작가로서의 사명감과 의무감을 더욱 굳게 하여야 할 올해가 아닙니까!

재능이 모자라면 주체조선의 작가라는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힘을 얻으며 짧은 형식의 소설창작에서 질적으로나 량적으로나 전환을 일으키겠습니다.

독자들과 친숙해지고 독자들이 기다리는 작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소설가 한웅빈

큰 슬픔을 겪은 지난해는 내 한생의 눈물을 다 퍼낸 눈물의 해였고 꽃은 꽃마다 추모의 다발로 끝없이 엮여지던 절통의 해였습니다.

울며 붓을 들었고 울며 시를 썼고 가슴속 뜨거

운 눈물만이 터져오르는 마음속 말을 대신했고 글을 대신했습니다.

엄동겨울을 이겨낸 버들이 푸르듯이 수령님을 잃고 꿈같이 흘러보낸 몸부림과 자책, 비애의 나날에 철없던 나의 마음도 자랐으며 무거워졌습니다.

1995년! 이해는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마음속에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받들어나가는 위대한 시대의 서곡이 장엄히 울리는 첫해입니다.

당창건 50돐의 경사로운 명절도, 겨레가 기원하는 조국통일의 날도 주체위업완성의 성스러운 그날도 바로 이 위대한 시대우에 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은 격동하는 시대의 역사적흐름을 힘있게 선도함으로써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작다고만 느껴왔던 내 가슴이 넓어지고 아득한 상상봉에 올라선듯 멀리 앞이 바라다보입니다.

눈물에 젖어 울던 꽃들은 햇빛을 받아 다시금 생기를 머금고 피어나고 비애에 젖었던 내 노래

는 영원한 태양의 빛발을 안고 크나큰 설렘과 걱정애 한껏 겨워있습니다.

너성과 생활은 너무도 가까운 벗과도 같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시고 경애하는 그이께서 가꾸어주시는 우리 생활처럼 아름답고 고귀하고 정다운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교시를 관철해나가는 력사적인 시대의 평범치 않은 우리의 생활을 무한히 사랑하며 한껏 겨안고 노래하고싶은 심정을 누를 길 없습니다.

령통하게 초록을 적시듯 아름답고 어린 아기의 웃음처럼 순수하고 어머니의 사랑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생활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옹호하며 그렇게 젖어부르는 나의 시가 없지 못할 녀성시인의 소박한 자욱으로 남게 된다면...

그렇다면 더 바랄것 없는 녀원이여서 나는 수월치 않는 창작의 길을 더 뜨겁게, 더 의롭게 걸어갈 맹세를 새해의 첫기슭에 남깁니다.

시인 황성하

새해결의

위대한 수령, 위대한 인민을 형상하도록 고무하는 필봉을 높이 들겠다

1995년 뜻깊은 새해입니다.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잃고 처음으로 맞게 되는 새해가 되어 그런지 가슴속에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누를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진두에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신다는 생각으로 하여 신심과 락관을 뜨겁게 간직하게 됩니다.

이해에 우리는 어머니당 창건 50돐과 조국해방 50돐을 맞이합니다. 생각하면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가 도래할 력사적인 시기를 앞둔것으로 하여 감격도 크고 결심도 더욱 커집니다.

우리 인민은 남달리 수령복을 누리고있는 인민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위대한 인민으로 자랑떨치고있는 긍지높은 인민입니다.

아직 인류가 누리보지 못한 수령복, 인민복이 차넘치고 수령과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 우리 사회주의현실이야말로 우리 문화이 형상해야 할 영원한 형상원천입니다.

나는 이해에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인민을 격조높이 형상하도록 우리 작가들을 고무하는 필봉을 더욱 높이 추켜들겠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평론가는 시대와 문화예술발전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의 새로운 평론을 건설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여 위대하여진 인민, 조선 민족제일주의를 형상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문화이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입니다. 이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기수가 되고 선도자가 되는것이 우리 평론가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와 그이께서 제시하여 주신 신념의 구호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를 문학작품창작에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미학실천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평론을 쓰겠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는 문학작품창작으로 작가들을 불러일으키는데 다소나마 기여하겠습니다.

평론가 리창유

나의 집

동기춘

1

때없이 어린 시절 생각나라
해떨어진 산에서 풀짚지고 내릴 때면
흰김서리는 고삭은 처마아래서
어머니 아들을 기다려 서성이던 집이여
이 세상에 내 생일을 기억하는
오직 한사람이던 나의 어머니
소리없이 닭알 몇개는 두었다가
그날이면 대글대글 접시에 놓아주던
나의 어머니 계시던 그 집이여
가끔 대학시절도 생각나라
겨울에 또 여름에
길지 않는 방학이 생기면
덤비며 기차에 올라 천리길 달릴 적에
또 역에 내려 먼 산골길 급히 걸을 적에
그리움에 사무쳐 그려보던 나의 집
그런 때도 갈피없는 추억들은 다 멀고
나를 부르던 어머니모습뿐
이 세상을 다 돌다가고
끝내는 어머니 주는 밥 한그릇 달게 축내고
뜨뜻한 온돌에서 심신을 녹일 때
나의 집이여 나의 집이여
내 집이라고 부르던 작은 초가집이여
마음의 평온도 거기 있고
생활의 안정도 거기 있어
아플 때면 더 그림계 생각나던
그 나의 집은 나의 어머니
어머니가 바로 나의 집이었다

2

이상도 하여라 인생은
내 이제는 나이들어
머리에 막지 못한 흰오리 가득해도
먼 출장길에서 돌아올 때
서둘러 찾는 파스한 창문
아이들이 반갑게 마중나오면
너의 어머니 계시냐고 그 말부터 묻고
마음편히 들어서서 나의 집이여
나를 키운 어머니는 돌아가신지 오래건만
내 그 시절의 마음되어 찾는 집엔
나를 기다리는 자식들의 어머니가 있어라
나를 낳은 어머니처럼
자기의 운명을 나에게 싣고
자신을 깎아 나를 보태주고
자기 온기를 덜어 나른 덥혀주고
기쁠 때보다 괴로운 때 나를 위해 더 있어주는
그래서 어린 시절 그때처럼

차려주는 밥그릇 달게 축내고
심신을 녹이며 어데 못하는 투정도 부리는
나의 집이여 나의 집이여
어머니를 이어 내 생일을 기억해주는
그 한사람이 살고있는 집이여
늙으며 나의 집은 나의 자식들의 어머니가
언제나 걱정하며 내 어머니처럼 나를 기다리는
나의 집이여

3

불현듯 닥친 예리한 아픔이
죽음의 칼끝으로 심장을 찌른뒤
생사의 문턱을 들락인 소생실에서
의식없는 긴날의 침상결에
어머니되어 누가 있었던가
당하고도 지금껏 믿어지지 않는
인간세상으로 다시 돌아온 아침
제일같이 기뻐하던 탄생
그 열렬 또한 어머니의 그것 같은
의사, 간호원, 술하게도 얼른이던 동지들의 얼굴
내가 살아난 집이여
나를 살려낸 사람들이여
내가 눈물보인 집이여
어머니만이 안해만이 나의 집이던가
내 나라 내 제도 나를 위한 사회주의
죽음을 무찌른 부활의 격전에
안해는 십전 한일 고인 일 없고
그 엄청난 돈의 액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모르며 재생된 집에서
소박한 생일축하를 받을 때
손수건이 모자랐다 눈물만 나서
이 세상에 내 생일을 기억하는
또하나의 다심한 어머니
아, 목메여 어머니라 부른 나의 조국이여
그 어머니 나를 보살피는 나의 집이여
저세상간 어머니도 그 품에 살았고
나와 운명을 함께 하는 혈육도 그 품에 안겨사는
위대하고 은혜롭고 자애로운 품이여
어머니 없이도 나는 살았고
안해결을 떠나서도 내 살수 있지만
그 품 떠나 순간도 못살
나의 집이여 나의 집이여
뼈를 갈아 그 기둥에 자개를 박고
머리칼 뽑아 그 지붕에 얹는대도
못값은 은혜는 구만리에 아득할
나를 울리는 내 나라 나의 집이여!

《일군들은 군중의 요구와 아픔을 자신의 요구와 아픔으로 여기고 인민들의 생활에서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하며 인민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합니다.》

김정일

실화문학

두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

림재성

뜻하지 않은 일로 한낱한시에 부모를 잃은 최학문, 최혜정오누이를 혁명의 대를 이어갈 새 세대 청년들로 훌륭히 길러냄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최기순, 장사홍 두 당일군들의 아름다운 소행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신문지상과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 여러차례 소개되어 이제는 두 당일군을 거리에서 만나보아도 구면처럼 인차 알아볼만큼 친숙해졌다.

우리는 이미 소개된 내용은 피하는 방향에서 두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의 단편을 아래에 소개한다.

장사홍비서에게서 들은 이야기

평양철도국 당비서 장사홍동무는 60의 문어구에 이른 사람이다. 말하자면 인생의 황혼기에 이른 늙은축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마에 주름 하나 볼수 없을뿐아니라 젊은이들처럼 얼굴에 불깃불깃 화기가 돌았다. 호방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보기는 어려웠으나 그렇다 해서 딱딱하고 엄한 사람은 아니었다. 렬차를 지휘하는 사령실이 아니라 두엄내나는 밭머리에서 만났더라면 제격이겠구나 하고 생각할만큼 텅텅한 인상을 주는 그런 일군이였다. 그는 이야기를 하다가도 머리를 짓수긋하고 주위의 소음을 주의깊이 엿듣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때 그의 눈은 봄향기에 한껏 취한 사람처럼 향수에 젖어있는것을 볼수 있었다. 그것은 장사홍비서가 동요시절을 남다른 환경에서 보내며 굳힌 버릇이라는것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었다.

장사홍비서의 고향은 함경남도 허천군 운흥리 혜신동 범골이다. 아릅드리 이깔나무가 어찌나 빼곡이 들어찼던지 대낮에도 해를 보기 어려운 산골이라기에 호기심이 나서 지도첩을 펼쳐보았으나 험한 부전령산줄기가 지나간 허천땅 그 어디에도 그런 고장이 없었다. 하긴 인가가 모두해서 두집밖에 안되는 혜신동 범골은 8.15조국해방과 함께 무인지대로 돼버렸으니 아무리 세심한 측지학자라해도 관심을 돌리기는 어려웠을것이 다.

장사홍비서는 수림을 스치며 몰아치는 바람소

리와 새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동요시절의 푸른 꿈을 키워오는 과정에 남달리 예민한 정서적 감각을 키워왔다.

장사홍비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1989년 1월 7일, 아침일찌기 출근한 나는 너무나 뜻밖의 보고를 받고 놀랐다가보다 어리둥절했습니다. 렬차운행처 지도원 최윤규동무가 사망했다는것입니다. 전날 토요일습에 참가해서 토론까지 하고 동무들과 우스개소리를 하며 퇴근하는것을 내 눈으로 보지 않았던들 그 놀라운 소식을 믿었을것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부비서동무에게 아침일과를 집행하도록 하고 렬차운행처장, 세포비서와 함께 부랴부랴 총국청사를 나섰습니다. 정신나간 사람처럼 운전사를 재촉하면서도 내내 이 사실이 엄청난 착오이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군사복무를 마치고 련이어 철도대학을 다니느라 가장 풍만한 청년시절에 마음놓고 쉬여보지도 못하다가 이제야 생활의 향기를 맛보며 마음껏 행복을 누리게 된 마흔일곱의 젊디젊은 나이에 죽을수 없었습니다.

믿고싶어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마음을 진정하고 최윤규동무의 사람됨을 이모저모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생김새에서는 별로 특징이 없는 평범하고 조용한 그는 성격에서는 좀 빼여진데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무거운 표정을 짓고있었고 동무들과도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니다. 세포비서동무의 말에 의하면 최윤규동무는 퇴근종이 울리기 바쁘게 일어서거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출장갔다가도 직장에 들리지 않고 집으로 달려가는 나쁜 버릇이 있다는것이였습니다. 그래도 별로 문제시되지 않고 무난히 지낼수 있는것은 그의 조용한 성품과 시키는 일은 마다하지 않고 수격수격하는 근면성때문이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거기에 머물러있지 않았습니니다. 최윤규동무는 화선에서 단련된 제대군인이며 당의 배려로 대학을 나온 기사였습니다. 정무원들모두가 그러해야지만 그는 시키는 일이나 수격수격 하는 그런 수동적인 일군이 댜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는 웅당 정무원들의 앞장에 서서 당조직생활에서와 수송혁명수행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

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당조직안의 한 당원인 최윤규동무에게 이런 높이의 요구성을 제기하고 그와 담화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오늘까지 미루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지방철도본국에서 당사업을 하다가 철도국에 올라온지 얼마안되는데다 천명 가까운 정무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별로 말썽없이 조용히 일하는 최윤규동무를 자꾸만 뒤자리로 밀어놓게 했던것입니다.》

장사홍비서는 숨을 고루느라 잠깐 이야기를 중단했는데 혈색좋은 얼굴에는 회오와 자책의 재빛 그림자가 얼른거렸다.

《참으로 첫 가정방문치고는 너무나 가슴아픈 것이었습니다. 다섯식구 살기에는 그리 불편하지 않은 두칸짜리 넓은 집인데 위생사업을 잘하지 않았다는게 첫눈에 알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늘 앓아누워있는데다 막내가까지 몸이 성하지 못하다보니 학문이 아버지가 고생 많았어요. 우리도 잘 돕지 못했구요...》

인민반장아주머니가 용서를 빌듯 주눅이 든 목소리로 나에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강한 물체에 뒤꼍을 부딪친 심정이었습니다. 목수재간이 있는 최윤규동무는 약국의 감초처럼 철도국안의 크고 작은 일에 비치지 않은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출장이면 출장, 로력동원이면 로력동원, 그 많이 제기되는 일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수직수직 해내면서 집에 돌아와서는 두 환자를 간호하면서 두 학생의 학부형구실을 하려니 육신인들 얼마나 고달프고 마음고생은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최윤규동무가 생시처럼 조용한 모습으로 방금 잠든 사람처럼 편안히 누워있었습니다. 출장을 가야 되겠으니 빨리 차비를 하라고 소리치면 자리를 건너차고 일어날것만 같았습니다. 아! 그러나 그는 불려도 불려도 영영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설래야 돌아설수 없는 마지막 길을 갔던것입니다.

나는 이때처럼 자신에 대해 환멸을 느낀적은 없습니다. 당원들이 어머니품이라 일컫는 당의 전위투사는커녕 보통의 지휘관으로서, 인간으로서도 제구실을 바로하지 못했다는 자책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기막힌 순간에조차 마음놓고 울수 없었습니다. 까무라쳤던 열세살짜리 혜정이가 짜늘하게 식은 부모의 시체를 불안고 태를 치며 울기 시작했던것입니다.(그때 열다섯살짜리 학문은 지방에 나가고 집에 없었다.) 제몸도 성하지 못하는데 몸이 성하지 못한 어린애까지 돌봐야했던 어머니가 혜정오누이에게 무엇을 그다지 살뜰히 대해주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량친을 한꺼번에 잃고나니 바람막이 없는 허허벌판에 내동댕이치운것처럼 앞이 캄캄했을것이었습니다.

두손으로 가슴을 쥐어뜯다가는 머리카락을 움

켜쥐고 대굴대굴 굴며 <엄마, 아빠-> 하고 울부짖는 모습을 바라보노라니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것 같았습니다. 렬차은행처 세로비서가 혜정이를 껴안았으나 울지 말라고 달래이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이 황소영각같은 소리로 오열을 터뜨렸기때문입니다.

취재를 하는 우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여 슬그머니 옆으로 돌아앉아 손수건으로 눈굽을 훔치었다.

그날의 가슴아픈 광경이 되살아나는지 장사홍도 눈물을 훔치며 잠시 말을 끊었다.

《장례가 끝난 날 혜정이네 집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부모를 잃은 오누이의 장례문제를 의논했습니다. 많은 친척들이 있으면서 혜정오누이를 나라에서 길러줄것을 바랄수는 없었습니다. 친척들 자신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던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풀릴줄 알았던 그 문제가 좀 시끄럽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혜정오누이를 서로 데려가겠다고 승벽내기를 하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것 같기도 했으나 가족, 친척들끼리 의논한 일이라 자제한 내막까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 철길감시원으로 있는 고모부가 데려다 키우기로 원만히 략착이 되었을 때 막혔던 숨이 나갔습니다.》

하긴 부모잃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친부모이상으로 살뜰히 돌봐주는 일은 우리 나라의 미풍양속으로 된지 오래이다.

하물며 친혈붙이인 고모가 데려가겠다는데야 하고 마음이 놓였던것이다. 그러나 생활은 예상외의 고통으로 흘러 수많은 이야기의 아지를 쳐가면서 계속 뻗어나갔다.

《최윤규동무의 장례를 치르고난 다음 며칠후 어느날이었습니다. 가산정리를 끝낸 강원도 고모부네가 혜정이를 데리고 떠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맡아들인 학문이는 대학예비과 학생이니 기숙사에 맡겨어놓았을것이니 량부모를 한날한시에 잃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 어린 오누이는 생리별이라는 가슴아픈 상실을 또 한차례 겪어야 했습니다.

그날 나는 늘어나는 석탄수송을 어떻게 하면 원만히 보장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수송협의회를 하고있었습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신년사를 관철하기 위해 모두가 한결같이 떨쳐나섰는데 철도수송, 그중에서도 석탄수송은 구래의연했습니다. 탄광역들에는 눈에 띄이게 석탄적채량이 늘어나는데 석탄집중렬차는 여전히 굼뜨게 운행되었으며 하차역들에서도 미하차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일군들의 조직사업에 결렸습니다. 병집을 제때에 들어내고 수송에서 양양을 일으킬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찌나 심란한지 도무지 정신을 집중할수 없었습니다. 평양발 평강행

렬차를 타려고 정거장대합실에 나와있을 혜정과 동생을 바래우려고 나온 학문의 눈물에 젖은 얼굴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라 사색을 방해하곤 했던것입니다.

동심의 푸른 꿈을 함께 가꾸어온 소꿉동무들이 있고 자신의 발자취가 학교길과 거리마다에 깊이 찍혀있는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설은 타고장으로 가는 어린 소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혈육으로 된 오빠와 생리별을 해야 되는 소녀의 가슴은 얼마나 아플것인가. 린 소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혈육으로 된 오빠와 생리별을 해야 되는 소녀의 가슴은 얼마나 아플것인가.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있을지도 모를 나어린 오누이의 애절한 마음을 헤아리려니 생각은 어느덧 최윤규동무에게로 달리었습니다.

어머니는 아기의 울음소리 하나로 천만가지 생각을 죄다 알아내는데 당일군인 나는 어찌하여 그 조용하고 내성적인 당원의 얼굴에 비껴있는 그들을 보지 못했단 말인가. 내가 좀더 세심한 일군이였다라면 최윤규동무는 잘못되지 않을수도 있었고 따라서 혜정오누이가 오늘같은 가슴아픈 상실도 당하지 않았을것이 아닌가. 최윤규동무가 눈을 뜨고 어린 자식들이 겪는 오늘의 가슴아픈 상실을 목격할수 있다면 틀림없이 제구실을 못한 이 장사홍의 뺨을 후려칠것이다. 그래도 좋다. 그렇게 한가지를 해도 골백번 생각을 해보는 내성적인 당원에게서 사지가 빠근하도록 두들겨 맞고싶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가고 남은것은 그가 남긴 어린 오누이의 가슴아픈 상실뿐이 아닌가...

내가 이런 착잡한 생각에 시달리고있는데 패종이 땡-고 울렸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도 귀에 익기 시작한 그 부드러운 금속성은 하루일을 결속 짓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도 기분은 좋았는데 그날은 마치 머리우에서 벼락이라도 치는것처럼 무시무시했습니다. 이제 15분후면 강원도

평강행렬차는 떠납니다. 렬차가 떠나면 어린 혜정오누이의 작은 가슴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길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사무실에서 뛰쳐나오고 평양역려객홈까지 달려나갔는지 도저히 기억할수 없습니다. 앞일에 대한 무슨 마련이 있었는지도 아니었습니다. (혜정이를 보내서는 안된다!)는 이 한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혜정이를 보낼수 없었습니다. 온 나라의 어린이들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자기들의 아버지로 모시고 따르는데 그이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당일군-장사홍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혜정오누이가 고아의 설움을 안고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생리별의 가슴아픔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내심의 충동으로해서 려객홈까지 달려나왔으나 혜정이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

다. 평양발-평강행렬차가 머물러있는 1번선 한끝에는 이미 출발신호가 울랐고 객차에는 석별의 정을 나누는 손님들로 붐비었습니다. 거기에서 혜정이를 찾는다는것은 그야말로 바다에 떨어진 바늘을 찾는 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혜정이를 놀랄만치 쉽게 찾아냈습니다. 내가 이미 손님들이 전부 자리를 잡은 객차안을 무작정 훑고있는데 <비서아저씨> 하고 소리치며 달려오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누가 데려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승강대에 서서 개찰구쪽을 지켜보고있던 혜정이가 나를 알아보았던것입니다. 나는 품속으로 파고들면서 파들파들 떠는 소녀를 놓칠세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오냐, 녀려말아라. 너를 절대로 아무데도 보내지 않오마.>

그러는 사이에 렬차는 떠났습니다.》

장사홍비서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잠간 동강이 났다. 사령실에서 급히 보고할 문제가 있다면서 수송지휘처장이 찾아왔던것이다. 깊은 감동에 휩싸여있는 우리들에게로는 청사정원에 피어나 풍기는 정향나무 꽃향기가 스며들어 폐부를 휘저어 놓는다. 만물이 소생하는 환희의 계절이 왔다. 그러나 한번 간 사람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 5년이라는 짧은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 최윤규부부의 묘소에도 해묵은 풀은 돋아났을것이다. 그새 이세상에 덩그랗게 남겨놓은 어린것들이 어떻게 지냈는가 알지 못하고 한줌의 흙으로 변했으리라...

자리를 뗀 장사홍비서가 량해를 구하며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혜정오누이를 집에 데려다놓고보니 새로운 문제들이 또 제기되었습니다. 한두살 애기라든가 철들기전 아이들이라면 새집, 새사람들에게 쉽사리 정을 붙일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것에 대한 소유욕과 애착을 느끼는 10대 소년소녀들인 혜정오누이는 제집과 제부모에 대한 정을 쉽사리 잊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도 제가 놀던 물웅덩이를 더 좋아하듯이 이들 나어린 오누이도 비록 남의 집보다 못하지만 제집을 그리워했고 앓는 어머니였고 살뜰하지 못한 아버지였지만 역시 그 부모를 사랑했습니다. 옛것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크면 클수록 새것과 친숙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더우기 우리 집은 열식구가 넘는 대가정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내성적이여서 조용한 환경을 좋아하는 혜정오누이가 마음붙일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식구들은 아이, 어른 할것 없이 혜정오누이에 대해 마음을 썼으며 그들이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도록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혜정오누이의 얼굴에 진 질은 그들이 사라질줄 몰랐습니다. 어떤 날에는 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아 짐작되는게 있어 선교구역 옛집에 찾아가보면 불도 때지 않은 랑방에서 오누이

가 꼭 껴안고 자고있었습니다. 새로운 난문제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최기순책임비서동지에게 보고하고 해결책을 의논했습니다.

〈나도 혜정이 오누이가 비서동무네 집에 가셔도 마음을 붙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소. 내가 데려다 키워볼가도 생각했으나 결과는 너무 뻔해서 단념했소.〉

최기순책임비서도 많은것을 생각해본듯했습니다.

〈저희 성의가 부족한탓입니다.〉

〈아니요. 그건 성의문제가 아니라 조용한것을 좋아하는 혜정이 오누이의 성품때문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가지 좋은 수가 있소.〉

최기순책임비서는 활기를 띠고 계속했습니다.

〈우리 철도합숙에 방 한칸을 내서 당조직이 책임지고 혜정오누이를 키웁시다.〉

혜정오누이를 어느 개인이 아니라 당조직이 책임지고 집단이 키우는 최기순책임비서의 생각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 잃은 한 고아오누이에 대한 사회와 집단의 크나큰 관심과 배려를 통해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아래 아름다운 미풍이 날에 날마다 활짝 꽃피어나는 우리 시대인간들의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를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온 사회의 화목과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하나의 좋은 본보기를 창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체없이 철도합숙 최봉녀지배인을 찾아가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인민군 야전병원 간호장으로서 수많은 부상병들을 사경에서 구원한 최봉녀지배인은 30여년간 합숙지배인 사업을 손색없이 해나가고있는 능력있는 일군일뿐아니라 두 고아를 키워 시집장가를 보낸 경험 많은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의 설명을 듣더니 두말없이 찬성했을뿐아니라 혜정오누이가 살 방을 꾸리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무원들은 혜정오누이가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살림도구와 의복, 학용품들을 앞을 다투어 가져왔습니다. 철도합숙에는 이제껏 없던 규정이 혜정이 오누이를 위해 새로 생겼습니다.

첫째, 식사량-제한없음

둘째, 식사시간-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의의 시간

셋째, 점심밥을 쌀 때에는 합숙에서 제일 좋은 반찬을 다섯가지이상 싸준다.

합숙생들은 이 새로운 규정을 놓고 누구나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급한 독자들은 이야기가 끝난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만큼 모든것이 원만히 풀리었다. 하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고아가

아니라 부모있는 아이들인들 이에서 더 바랄것은 없을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혜정오누이문제는 일단락 지은것으로 믿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때마침 분기말 수송전투가 고조에 이른 때여서 국장으로부터 사령원, 지령원에 이르기까지 밥을 날라다먹는 형편이라 다른데 한눈을 팔새가 없었습니다. 당원들에 대한 정치사업도 회관이나 사무실이 아니라 사령실에 들어가서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습니다. 밤늦어 퇴근하던 나는 무심중 합숙쪽으로 걸음을 잡아들었습니다. 그러고보면 그 바쁜 나날속에서도 혜정오누이 생각은 한시도 잊지 않았던것 같았습니다. (그새 앓지나 않는지?) (새 살림집에 마음을 붙였는지?) 여러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최봉녀지배인이나 합숙관리원들을 통해 알아본데 의하면 밥도 잘 먹고 학교에도 잘 다닌다고 합디다만 어쩐지 제논으로 직접 본것처럼 안심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합숙총계를 오를 때에야 이미 밤이 깊었으므로 아이들이 잠들었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나들문이 걸리지 않았고 불없는 방에서 두세두세 말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혜정이 있나?〉 하고 소리쳐 부르려던 나는 신발장앞 그리 크지 않은 전실에서 굳어져버렸습니다. 방안에서 소녀의 흐느껴우는 소리가 가느다랗게 흘러나왔던것입니다.

〈우지 마, 네가 밤마다 아버지, 엄마를 찾을 때면 나도 울고싶어. 잠도 안오고 밥먹구싶은 생각도 없구... 학교에 가서 공부하다가도 네가 아버지, 어머니를 찾으며 울던걸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쏟아져. 우지 마, 혜정아.〉

동생을 달래이는 열다섯살짜리 학문이도 실상 흐느껴 울고있었습니다.

〈엇그제는 학부형회의가 있었는데... 나만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더 보구싶었어. 앓아도 좋으나 엄마가 옆에 누워있었으면 좋겠어, 오빠.〉

〈네가 철없이 자꾸만 아버지, 어머니를 찾으면서 울면 비서아저씨랑 지배인어머니가 속색여.〉

〈오빠, 그럼 이젠 울지 않을래.〉

혜정이는 울지 않겠다면서 또 울었고 학문이는 달래이면서 더 큰소리로 울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은 추위를 막아주는 값진 옷이나 배를 불러주는 기름진 음식보다도 마음을 덥혀주는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한다는것을 또한번 가슴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이고 화려한 옷을 입혀준다 해도 그것이 부모의 사랑을 전부 대신할수는 없는것입니다. 나는 해 잘 드는 살림방을 꾸려주고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게 해주었으니 부모를 대신해서 얼마간 성의를 기울였다고 생각했던 자신을 꾸짖으며 혜정이와 학문

이를 각각 랑쪽에 끼고 잤습니다. 내가 부득이 청사를 뜰수 없는 날은 세포비서와 처장이 룰변으로 혜정이 오누이의 잠자리동무가 돼주었습니다. 한편 학교에 찾아가 학부형을 찾을 일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평양철도국 당비서 장사홍에게 통지해줄것을 부탁했습니다.》

자기가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 상대방도 응당 피우지 않으려니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담배를 권하지 않다가 헤어질무렵에야 《앗차, 또 실수했군.》 하며 껄껄 웃는 소박하고 소탈한 당일군-장사홍비서와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났다.

최혜정에게서 들은 이야기

우리가 두번째로 만난 사람인 최혜정은 밤마다 어머니의 품을 그리며 오빠의 속을 썩여주던 울보소녀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영예의 《김일성 청년영예상》수상자로서 어엿한 대학생이 된 처녀였다.

혜정이는 너무나 어린 나이에 벌써 남들이 한생을 통해서도 전부 체험하기 어려운 그 모든 상실의 우박을 맞은탓인지 나이보다 퍼그나 숙성해보였다. 그는 애기도 무척 잘했다. 철없는 영석으로 최기순, 장사홍 두 당일군과 국정부원들, 합숙아주머니들을 숙태워준 일이며 그들이 자기 오누이에게 기울인 사랑의 이야기를 생동하고 풍부한 언어형상으로 산 현실처럼 눈앞에 펼쳐보였다. 그 대부분은 전국공산주의미풍선구자대회참가자들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일이고 또 여러 기회에 소개된바도 있어 이 짙막한 글의 뒤이야기로 될만하다고 생각되는 한가지만을 아래에 적어보겠다.

《...내가 대학입학시험을 치던 마지막날이었습니다. 대학간부와 과장선생이 나를 부르더니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겠으니 학부형을 빨리 데려오라고 하는것이었습니다. 나는 장사홍비서아저씨에게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당비서실에는 장사홍비서아저씨와 함께 많은 간부아저씨들이 있었는데 열방 대기실에서 웬 젊은 녀인이 울고있더군요. 그 녀인으로 해서 사무실안팎은 전에 볼수 없는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있었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장사홍비서아저씨의 서른일곱살나는 맏아들이 중병에 걸려 생명이 경각에 이르러 그를 구원할 방도를 의논하던중이었고 소리를 죽여가며 흐느껴우는 녀인은 머느리였습니다. 그런 무거운 분위기였음에도 나는 아저씨들의 기분을 가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망한 집단체조학부에는 학생 일곱명을 선발하는데 응모자는 선명이 넘었습니다. 응시과목중 어느 한 과목에서 4점을 맞아도 입학하기가 어려울만큼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섯 과목중에 적어도 두과목은 5점만점의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기바쁘게 학부형을 부른것도 나의 높지 못한 실력과 관련되는듯해서 조바심은 극도에 달하였었습니다. 나는 장사홍비서아저씨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제잡담 잡아끌었습니다. 비서아저씨는 알겠다는듯이 고개를 끄덕일뿐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어린 나의 마음에 그들이 질가봐 그랬던지 별로 난감한 기색도 보이지 않고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방안의 다른 아저씨들은 나를 민망한 눈길로 보는듯했으나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었습니다.

《혜정아, 오늘 비서아저씨는 급한 일이 생겨서 못가신다. 내가 대신 가겠다.》

나와는 이미 구면인 렬차운행처 처장아저씨가 비서아저씨를 대신해서 떠날 차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처장아저씨쪽에 등을 돌려대고 비서아저씨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두눈에 찰랑찰랑 고였던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아저씨가 학교에 가지 않으면 나의 입학문제는 틀림없이 튕겨만 같이 생각되어서였지요. 여러 아저씨들이 나를 달래이면서 비서아저씨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소리없이 눈물만 흘리던 나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말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 나의 머리와 어깨를 조용히 어루쓸었습니다.

〈혜정아, 눈물을 거두어라.〉

비서아저씨는 누가 붙잡을세라 〈내 인차 돌아오겠소.〉 이 한마디를 남기고 서둘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나는 사무실안의 아저씨들이 민망스러운 눈길로 나를 지켜보는것을 알았고 열방 대기실에서 녀인의 울음소리가 높아지는것도 놓치지 않고 들었지만 모른체했습니다. 세상을 단순하게만 살아온 나에게는 아저씨들의 기분이나 그들이 처한 절박한 사정이 문제로 되는것이 아니라 나의 입학문제가 보다 절박한것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에 얼굴조차 쳐들수 없지만 그때는 아저씨가 함께 가주는것이 무작정 고맙고 기뻐했습니다.》

혜정은 꼬깃거리던 손수건을 눈가로 가져갔다.

《그런데 비서아저씨가 잠간이면 된다는 간부와 과장선생과의 이야기는 한시간 가까이 되도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대신 방안에서 토막토막 흘러나오는 말소리가 차츰 높아져갔습니다. 원래 장사홍비서아저씨는 성품이 조용한분이고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날은 어찌나 성이 났는지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상대방을 무섭게 다물곤했습니다. 〈목석같다〉느니 〈심장이 없다〉느니 하는 거친 표현들이 툭툭 튀어나오곤했습니다. 나의 일이 무척 꼬이는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어른들의 말을 엿듣는것이 큰 실례라는것을 알면서도 나들문앞에서 떠나질 못했습니다. 온몸이 말그대로 귀가 되어 방안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엿듣느라고 처

장아저씨가 복도를 쿵쿵 울리며 등뒤로 다가오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처장아저씨가 방으로 들어가는것을 보고야 얼른 몸을 숨기었습니다. 처장아저씨는 들어간지 1분도 되나마나해서 장사홍비서아저씨를 데리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들은 무엇때문인지 한동안 싱갱이질을 했습니다. 처장아저씨는 당장 가야 된다거니, 비서아저씨는 갈수 없다거니... 싱갱이질은 끝이 없을상싶었습니다.

〈한 청년의 전도문제가 왔다갔다하는 판인데 가기는 어디로 간단 말이요?〉

비서아저씨는 다 잡을번한 새를 처장아저씨때문에 놓칠수 있게 됐다고 나뉘었습니다. 비서아저씨에 비해서 키도 작고 몸도 오달리지 못해 왜소한 느낌조차 드는 처장아저씨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청년의 전도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운명을 앞둔 자식의 마지막소원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비서동지는 너무합니다.〉

〈방정스러운 소리 마오.〉

비서아저씨는 성을 벌컥 냈습니다. 그러나 성난 그 목소리에는 가시가 아니라 무언가 바라고 기다리는 일종의 기원 비슷한 정회조차 어려웠었습니다.

〈우리 광윤이는 그렇게 겁사리 죽지 않아!〉

장사홍비서는 처장아저씨를 설복할 자신이 없었던지 도망치듯 방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문을 걸어버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정신이 펴져 들었습니다. 철부지 울보소녀인 내가 세상리치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나 운명이니 죽음이니 하는 낱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설책이나 영화가 아니라 실생활을 통해 그 낱말들이 가지고있는 절망적인 무게와 색깔, 음향을 감수하고있는 나는 무시무시한 전율이 온몸을 휩싸는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인가? 운명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소원이란 무엇인가?〉

나는 정신을 집중해서 주위에서 벌어진 제반 현상들을 하나의 공간속에 집착시켜 추리-판단해보려고 애썼습니다. 무척 가까이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것은 사실인듯했습니다. 그러나 레브 톨스토이의 장편소설 《부활》을 전부 리해할만큼 지능이 발달하지 못한 사춘기전야의 소녀로서는 모든 사물현상이 표상이 불투명한 신기루처럼 보여 무어가 무언지 가늠할수 없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누구에게 물어볼수조차 없었구요. 내가 이렇게 복잡한 생각에 시달리는 사이에 국에서는 두사람이나 왔었지만 간부과장선생방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올 때처럼 급하게 되돌아가버렸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대도 안에서 문을 벗겨주지 않았던것입니다. 그런데 세번째로 찾아온 부국장아저씨는 솟제 손기척도 내지

않고 체념한 사람처럼 팔짱을 끼고 나들문앞에서 왔다갔다했습니다...

이윽해서 나들문이 활짝 열리면서 장사홍비서아저씨가 땀에 젖은 얼굴을 손수건으로 분지르며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혜경이의 입학문제가 해결될것 같습니다.〉

장사홍비서아저씨는 나들문앞에 있는 부국장아저씨를 보자 전에없이 반색을 지으며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사람을 걸보구는 모르겠소. 과장선생이 걸보기에는 인심을 쓸것 같은데 영 각쟁이요. 그래서 콧 메주를 먹였지요.〉

비서아저씨는 주먹으로 옆구리를 쥐여지르는 시늉을 해보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나 부국장아저씨는 웃기는커녕 흐려진 눈길로 멍하니 마주 바라볼뿐이었습니다.

〈저... 비서동무, 아드님이...〉

비서아저씨의 기분을 맞추어줄수 없는듯 부국장아저씨는 이렇게 동문서답했습니다. 그가 어쩌나 침통한 표정을 지었던지 환희 비슷한 감정에 싸여있던 장사홍비서아저씨도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응, 갑시다. 그렇게 급격히 악화됐는가?〉

〈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광윤이는... 방금전에... 운명했습니다.〉

비서아저씨는 금시 얼굴이 해쓱하니 질렸습니다. 그 엄청난 비보를 듣고도 말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콧물이 굳어져있는 그의 모습은 미이라를 방불케 했습니다. 비서아저씨를 바래우려고 뒤따라나온 간부과장선생은 너무 아연하여 어찌할바를 모르며 비서아저씨만 바라볼뿐이었습니다.

〈말할자식, 애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벌써 간단말이나!〉

내가 들은 장사홍비서아저씨의 마지막말은 이러했습니다.》

처녀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울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가슴이 찡찡해지고 말로는 도저히 표현하기 어려운 절통한 생각때문에 한동안 꼼짝하지 못했다.

혜정은 손수건은 눈가에서 떼었으나 흐느낌은 멈추지 못한채 마지막이야기를 계속했다.

《저희들은 부모없는 오누이를 친혈육이상으로 살뜰히 돌봐준 평양철도국 당조직의 고마움에 대하여 그리고 스스로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금지옥엽으로 키워준 최기순, 장사홍 아저씨들의 아름다운 소행에 대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삼가 아뢰는 심정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모래무지속에서 금싸라기를 좇듯이 글자를 한자한자 고르고 문장을 다듬고 또 다듬었으나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친척들에

게 쪽지 한장 써보지 못했던 저희들 오누이의 편지는 서둘고 엉성했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일**선생님께서서는 조금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생사를 몰라 안타까와하던 철부지자식들로부터 편지를 받으신 듯한 심정으로 밑줄까지 그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읽어주시었습니다. 그리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은정어린 사랑을 돌려주시었고 최기순, 장사홍 아저씨들에게 《훌륭한 당일군》이라는 값높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우리 가슴속에서는 마음의 금선을 울리는 여운이 계속되고있었다.

이것이 두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였다.

《훌륭한 당일군》

얼마나 값높은 평가의 말씀인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대에 활짝 꽃피어나는 아름다운 미풍의 대화원속에 한떨기 싱싱한 꽃으로 피어난 두 당일군을 생각하기전에 그들을 키워낸 당의 위대함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 예로부터 산이 커야 그늘이 크고 이름떨친 명장의 뒤에는 레외없이 현숙한 어머니가 있다고 했거늘 《훌륭한 당일군》 뒤에는 《위대한 당》이 있는것이다.

우리 당이 위대하고 그 위대한 당을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비범한 예지와 남다른 천품을 지니고계시기에 장사홍, 최기순과 같은 새 시대 인간-공산주의미풍선구자들이 날에 날마다 태어나는것이 아니겠는가!

홍남, 그 이름 지녀

리금녀

밤낮이 따로 없이
들끓는 일터
온 나라 포전을 안고
벌써 봄을 부르는
비료의 구내

새해 첫 진군길
큰 걸음 때는 이 마음들은
믿음이라도
홍남에 오면 가고싶지 않다시던
아버이수령님의 크나큰 그 믿음
늘쌍 뜨거이 품고사는 마음

슬픔을 이겨 불이 된
홍남의 이 숨결은
사랑이라도
비료가 곧 사회주의라고 일러주시던
수령님의 한없는 그 사랑에
세상 제일 강해진 숨결

수령님 다녀가신 압축기앞에서
홍남, 그 이름을 다시 깨우치노라
수령님 안광이 비낀
비료산 바라보며
비료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다시 묻노라

이른봄 발머리에서
한해 풍년을 다 내다보시며
수령님 먼저 생각하신 비료
집집에 더 높아가는 행복의 웃음소리
다 안아보시며
수령님 선참 마음 달리시던
우리 홍남

오시여
다시 오시여
비료 한줌 손에 드시고
그리고 만족해하시던
수령님 기쁨이 비료였기에
오늘도 그 기쁨 위해
아낄것 없는
이 한몸
이 한생

압축기의 숨결을 더해가노라
고압관에 팽팽한 압을 거노라
그 숨결 그 압으로
해마다 오는 가을에
만풍년의 로적가리 높이 쌓는
우리 홍남이거니

내리는 비료는
어제도 오늘도 한빛이건만
비료를 쏟아내는 마음은
천배 만배로 뜨거운 마음
흐르는 세월속에
하늘땅이 열백번 뒤집힌대도
합성탑은 여기 솟아
역센 숨결 뿜으리라
이 구내 이 초소 대를 이어 지며
우리 심장 더더욱 뿜뛰리라

아, 수령님 믿음이신
홍남, 그 이름 지녀
수령님 사랑이신
비료, 그 이름 우리가 지녀

첫날신발

김길한

예로부터 사람들은 신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있었다. 왜냐하면 한생의 거의 절반을 걸어야 하는 인간생활에서 신발이 자못 중요하기때문이다. 그래서 먼 옛날에도 큰 뜻을 품은 사람들이 먼길을 떠날 때 먹을것을 제쳐놓고라도 미루리나 짚신을 한점씩 지고 갔던것이다.

물론 오늘날의 새 세대들은 그런 신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 수도 없지만 여전히 신발에 대한 요구성은 마찬가지이다. 그들대로 시대의 발전과 필연함으로 하고있다. 지금세월에만 길을 간다고하여 신발 걱정을 하는 사람이 어디있으랴만 그단순히 걸은 요구가 높아지는것은 내는 데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것 같지 않다.

그것을 가만히 음미해보면 인간의 본성적인 요구이기도 하겠지만 더우기는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고유한 풍습과 관련되어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다.

신은 곧 멀고먼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상징이었으며 길하기를 바라는 뜻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기가 첫걸음마를 땔 때 그 애기의 장래를 축복하여 꽃신을 지어 신겼으며 시집을 갈 때에도 그의 행복한 앞날을 기원하여 꽃신을 신겨보냈다.

신발에 갖는 의미가 얼마나 컸으면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갚겠다는 뜻의 가장 절절한 표현으로 《머리를 베어 신을 삼겠다》는 말까지 있겠는가.

이처럼 신은 인간생활에서 흔히 요구되는 보통 필수품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길고긴 한생의 운명을 기약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스며있으며 특히 새각시의 첫날신발에 시집가는 새각시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있는것이다.

나도 첫발을 시집보낸 체험자이지만 사람들이 지금도 첫날신발에 그토록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는것이 우연하지 않다고 본다.

이것이 오늘까지 내가 가지고있는 신발에 대한 소박한 견해였다.

그런데 지난 여름 어느날 나

는 여행길에서 우연히 류다른 한 사건을 목격하고 첫날신발에 대한 의미를 전혀 다르게 가지지 않을수 없었다.

탄광에 취재를 갔다가 함흥으로 돌아오던 나는 열차칸에서 신랑신부가 나란히 앉은 열의자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나의 눈길은 자연히 연한 미색양복에 넥타이를 맨 청년과 매미날개같이 하르르한 조선옷을 입은 처녀에게 갔다. 의젓한 용모에 싱글볼글 웃는 청년, 그린듯이 앉아 수줍음을 타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있는 처녀, 그 맞은편의 친척이라고 짐작되는 젊은 녀인과 남자, 선반위에 올려놓은 트렁크와 커다란 꽃보자기에 싸 음식소래들란 총각이 처녀를 데리고오는 첫날길임을 잘 말해주고있었다.

어느덧 열차는 함흥역에 들어섰다. 손님들이 내릴 준비를 하였다. 신랑신부도 일어나 옷차림을 단정히했고 젊은 녀인이 서두르며 그들의 앞가슴에 큼직한 분홍색꽃송이를 달아주고 트렁크를 내려 새각시와 첫날신발을 꺼내 갈아신겼다. 굵눈은 구두는 보기 드문 고급제품이었다. 닭알색의 신에서 반짝반짝 윤기가 흘렀고 뽀족한 신고우에 맵시나는 땀기까지 달려있었다. 주위사람들이 한꺼번에 고개를 돌리고 감탄의 눈길로 그 신발을 바라보았다.

신발은 처녀의 첫날옷과 함께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랐다.

나는 그들의 뒤에 서서 천천히 흠에 내려갔다.

지하도를 거쳐 표반는곳을 나선 나는 지하대합실 한쪽에 서 사람들이 몰려서서 떠들고있는것을 보았다. 그들속에서 당황한 표정을 띤 한 청년이 달려나오더니 무작정 사람들을 헤치며 흠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안내원이 그를 막아나섰다.

《안내원동무,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동무가 그만...》

안내원은 표반는곳을 나오는 손님들에게 길을 비켜주라고 웨치며 그를 순순히 내보냈다.

나는 사람들이 모여선곳으로 다가갔다. 의자에는 얼굴이 곱살한 한 처녀가 앉아있었는데 한쪽 다리에 의족을 한 영예군인이었다. 옆손님이 나한테 말하기를 흠으로 달려나간 청년이 차에서 처녀를 업고 봄비며

내릴 때 의족을 한 발에서 신이 벗겨져나갔다는것이였다.

다리에 감각이 없으니 신을 잃는것도 모르고있은것이다. 나는 가슴이 찡해나며 처녀에게 한없는 동정이 갔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나가 찾읍시다.》

나의 말은 불달린 폭약과도 같았다. 갈길을 멈춘 손님들이 우르르 표반는곳을 나가 흠에서 신발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흠에도 철길바닥에도 한짝 신발은 보이지 않았다. 술한 사람들이 널려 오래동안 찾아보았으나 허사였다. 열차칸에 떨어진것이 분명하였다.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하는수 없이 대합실로 걸어나갔다.

그때 대합실에서는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열차칸에서 본 새각시가 자기의 첫날신발을 벗어들고와 영예군인처녀에게 주고있는것이였다.

《어서 신어봐요. 새 신이에요. 방금전 차칸에서 신고내렸으니 나무람마세요.》

영예군인처녀는 그의 행색을 보고 인차 알아차렸는지 초풍할 지경으로 놀라며 신발을 받지 않았다. 그도 녀성인데 시집가는 첫날새시의 신발을 받을수는 없는것이였다.

그러나 새각시는 막무가내였다. 두사람사이에는 심경이가 벌어졌다. 거기에 남편 될 두 청년까지 끼워 받으라거니 안받겠다거니 하며 옥신각신하였다. 결혼식일행중의 젊은 녀인과 남자도 신발을 가지라고 자꾸 권하였다.

《이러지마세요. 전 일없어요. 우리 동무가 괜히...》

《이 각시의 정성인데 어서 신으라구, 응?》

한 할머니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어서 신발을 받으라고 재촉하였다. 그러자 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받는것이 옳다고 말하였다.

할수 없이 신발을 받아든 영예군인처녀는 눈물이 글썽하였다.

《고마와요. 정말 고마와요.》

젊은 녀인이 나서서 처녀의 발에 새 신을 신겨주었다. 영예군인처녀는 청년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서더니 새각시앞에 허리를 굽혀 절을 하였다.

《부디 행복하세요. 앞으로...

꼭 행복만이 있기를 빌...》
말끝을 맺지 못한 처녀의 얼
굴에서는 끝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주위의 사람들도 감동하여
눈곱에 손수건을 가져갔다.
《이러지 말아요. 전 오늘 기
뻐요! 저한테 이런 행복이 차
레진것이 전 정말...》
영예군인처녀의 두손을 마주
잡은 새각시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였다.
《이 성의에 꼭 최우등의 성
적으로 보답하겠어요.》
그 말에 모여선 사람들이 의
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그
를 옆에 군인처녀의 청년이 어줍은
미소를 짓고 말했다.
《우린 함께 대학통신수업을
다닌답니다.》
《아, 그렇소?!》
사람들은 다시한번 감탄하였
다.

어느덧 영예군인처녀는 신랑
신부와 못사람들에게 숙연히
인사를 하고는 청년에게 의지
하여 데합실을 나갔다. 우리도
따라나와 그들이 뺄스를 타고
갈 때까지 서서 배웅하였다. 기
쁨에 한껏 젖어 손을 흔드는
새각시한테서 눈을 떼지 못한
나는 얼마후 그의 신발을 내려
다보았다. 그가 신은 보통신발
이 어찌나 돋우보이는지 몰랐
다. 인생의 행복을 상징하는 그
전부를 한 영예군인처녀에게
서슴없이 넘겨준때문만은 아니
였다. 거기에는 보다 크고 숭엄
한 의미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
일까?...

집을 향해 걸어가는 나의 눈
앞에서는 새각시의 아름다운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나는 아
직 첫날신발을 남에게 주었다
는 그런 레를 동서고금에 들지
도 보지도 못하였다. 그의 마음

속에 무엇이 간직되어있기에
그런 엄청난 일도 레사로이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고운 마음
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문득 나의 눈앞에는 해마다
위대한 수렁님의 탄생기념일이
면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전체 아이들에게 새 옷과 함께
화려하고 맵시나는 신발을 신
물로 보내주시여 감격의 바다
가 펼쳐지곤하는 모습이 떠올
랐다. 우리 집 딸애들도 고운
신발을 받아안고 좋아서 짹
짹 뛰었고 밤에는 그것을 잃
을까 저어하듯 가슴에 꼭 안고
갔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인민들
에게 더 좋은 신발들을 신기시
기 위하여 쉽없이 신발공장들
을 현지지도하시었고 신발도안
이며 품평회도 몸소 보아주시
며 끝없이 심려해오시었다.

어느날에는 유치원어린이들
로부터 대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집무실로 불러들여 곱고 맵시
나는 신발들을 신겨보시고 그
토록 기뻐하시였으며 어느날에
는 로앞에서 일하는 용해공들
에게 사랑의 신을 보내주시였
으며 또 어느날에는 시집가는
새각시들에게 특별히 좋은 첫
날신발을 만들어줄데 대하여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실로 우
리 인민에게 복된 길을 마련해
주시려고 그이께서 일일이 애
쓰시고 기울여오신 로고는 끝
이 없었다. 그러니 우리 인민모
두와 마찬가지로 저 처녀도 태
어나자부터 사랑의 선물신발을
신고 자라왔기에 가슴에 그처
럼 충성스러운 마음이 꽃피난
것이 아니겠는가.

령도자의 사랑이 사람들의
정을 낳게 하고 령도자의 인덕
이 인민의 미덕

은 낳는 사회, 그래서 언제나
그이의 마음은 인민에게 가있
고 자나깨나 인민의 마음이 또
한 령도자를 받들어가는 길에
잇닿아있으니 이 얼마나 소리
쳐 자랑하고싶은 우리 조국인
가!

지금 지도자를 잘못 만난 나
라들에서 사람들이 개인의 《행
복》만을 찾는 제나름의 《신발》
들을 신고 뿔뿔이 흩어져가고
있을 때 오늘 목격한 하나의
사실은 나에게서 정말 가슴뻘
뚫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다.

우리의 첫날신발, 여기에는
한 새각시의 앞날에 대한 행복
만을 기원하는 뜻이 아니라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대해갈
은 사랑과 은혜에 《머리를 베
여 신을 삼》을 새각시의 마음
과 부모들의 진정 그리고 우리
전체 인민의 념원이 깃들어있
는것이다.

이런 깊은 생각에 잠긴 나는
첫날신발도 영예군인에게 선
뜻 준 그 처녀, 아름답고 빛나
는 미래가 약속된 미더운 새각
시의 앞날을 다시한번 속으로
축복하여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그 처녀가 잔치후 첫나들이를
갈 때에 신고갈 고급신발을
한켠에 사다줄 생각이 몹시 간
절해졌다. 그것이 그 처녀의 소
행에 매우 감동한 내 마음의
한조각 보답이나 될는지...

그런데 이를 어찌하랴. 나는
그 처녀의 이름도, 주소도 모르
고있는것이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머칠을 두고 꿈공 가슴을 앓
던 나는 드디어 그의 기특한
공산주의적소행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조금이
나마 그 처녀한테 나의 인사를
전하고싶어 이 글을 쓴다는것
을 덧붙이는바이다.

종구나 그 마음 그 모습

한정규

한글이만 돌아서도
진달래 붉은 언덕
부서지는 폭포수도 있건만
전차공처녀와 굴진공총각
《혁신경》앞에서 약혼사진
찍네

굳이 묻지 말자
저앞에 서는 마음
탄을 캐며
서로의 사랑 꽃피웠고
탄을 보내며

조국을 안 그들이어서
저 갱이 세상 소중한게지
날도 뜻깊은 날
탄전도 뜻깊은 탄전
한생을 꽃피갈 사랑의 언약을
고향의 갱이 보증을 서주는
저보다 더 좋은곳 어디서
찾으랴

오! 종구나 그 마음 그 모습
말은 없어도

무엇을 위해
한생의 인연도 맺혀야
하는가를
뜨거이 말해주는 청춘남녀여

웃어라 더 밝게
영원히 변치 않을 청춘의 언약
활짝 핀 웃음으로 남기랴
오늘 가슴에 단 축복의 꽃송이
래일엔 영웅탄부의 금별로
빛나리라

준엄한 전화의 나날 이 땅에 울려퍼진 삶의 노래

-중편소설 《자장가》를 읽고-

김해월

요람속의 귀여운 아기를 달래이며 어머니들이 조용히 부르는 자장가, 그 자장가를 들을 때면 사람들은 누구나 한없이 순결하고 열렬한 사랑에 대하여, 그 사랑을 지닌 다심한 어머니를 생각한다.

중편소설 《자장가》는 제목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류다른 정서로 충만시키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과연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질까?...

총포탄이 울부짖고 순간순간 생명을 위협하는 가렬한 전쟁의 나날 이 땅에 가장 순결하고 뜨거운 삶의 노래가 울렸으니 그 노래는 죽음을 이겨내고 삶을 축복하는 자장가였다.

중편소설 《자장가》(한익훈 작)는 이 노래의 주인공들에 대한 눈물겹고 가슴뜨거운 이야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화는 시대와 더불어 변화발전하는 우리 인민의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에 기초한 혁명적미관의 견지에서 새롭게 탐구하고 형상하여야 한다.》

소설은 아직 너무나도 애어린 처녀 선애가 《자장가》를 조용히 부르며 《엄마》가 되어 부모없는 아이들을 키워가는 뜨거운 인정세계를 감동깊게 그리고있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화의 나날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는 소설에 젖먹이 어린이들을 키우는 이야기를 담는다는것은 얼핏보면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놓고보아도, 또 전쟁주제의 문학작품이라는 견지에서 생각해보아도 너무나도 격에 어울리지 않는듯한 인상도 없지 않다.

하지만 작가는 전쟁과 사랑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울부짖는 총포탄보다 몇갑절 힘있는 인간들의 심장의 메아리, 인간사랑의 자장가로 우리 인민들이 전쟁을 이기게 한 불패의 힘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자장가, 그것은 인간사랑의 절정인 모성애의 메아리이다.

작가는 자장가를 부모와 자식간에 혈육의 정으로 차넘치는 사랑의 세계만이 아닌,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충만된 가장 아름다운 인간들의 혁명적의리에 기초한 인간사랑의 메아리로 울려오게 하였다.

《자장가》는 전쟁시기 고아들을 키우는 이야기를 담고있지만 주인공의 정신세계를 혁명적수령

관의 견지에서 새롭게 탐구하고 형상한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의 위대성,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숭고한 정신적미에 대한 예술적해명으로, 시대정신의 빛나는 구현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혁명의 1세, 2세에 의하여 형성되고 고수되어왔으며 3세, 4세에 의하여 끊임없이 공고발전되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숭고한 정신적미, 혁명적미관의 새로운 탐구로 된다.

소설에서 은은히 울려오는 자장가, 그 자장가 소리 높이 울리는곳에는 사랑스러운 선애와 조용하고 다심한 최명아, 수염쟁이 강일범과 텅텅한 허진표의 모습도 보이고 성깔지고 싸늘한 전창규와 미더운 장령아바이, 열정적인 오덕재와 조명섭, 속깊은 윤혜경과 라순도 등의 얼굴도 보이며 그들의 숨결도 들려온다.

소설에는 중편인 자기 용량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 감도 없지 않지만 이 인물들은 각기 자기의 개성특색으로 하여 작품의 사상주제적과제 해명에 훌륭히 이바지하고있다.

하지만 남을 위해 자신을 송두리채 바쳐가는 인간들이 부르는 자장가앞에 그 어떤 강적도 백전백패한다는 이 소설의 사상주제적해명의 중심에는 언제나 애어린 처녀인 선애가 서있다.

중편소설 《자장가》는 주인공 선애가 아이들을 위해 바치는 눈물겨운 정성, 아이들이 그 뜨거운 사랑을 알고 《엄마》라고 부르기까지 기간을 다양한 생활과 인간관계속에서 파고들으로써 우리 시대 인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 미의 세계를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한창 부모들의 사랑속에 마음껏 배우며 아름다운 리상과 희망을 꽃피워야 할 그가 너무도 일찌기 《엄마》로 되는것은 레사로온 일이 아니다. 모성애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아직 알수도 없었던 한 나어린 평범한 처녀의 가슴속에 무엇이 그로 하여금 모성애를 소중히 간직하게 하였는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인가, 아니면 일시적 충동의 발현인가, 혹은 그 어떤 행운을 바라서였던가. 물론 그런것은 아니였다.

그는 남달리 인정이 많고 동정심이 강한 처녀였다. 하지만 그것이 아직 모성애는 아니였다. 동정심과 인정이 모성애로 승화되는 과정은 한 평범한 인간이 우리 시대의 미를 체현한 아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되였다. 바로 여기에 작가의 사색과 탐구가 깃들어있는것이다.

작가는 주인공의 성장과정을 의식화과정으로

그리면서도 비약하지도, 과장하지도 앓으면서 다양한 인간과 생활 속에서 진지하게 파고들어 보여줌으로써 성격의 진실성을 담보하고있으며 작품의 사상성을 심화시키고있다.

중편소설의 소재목들인 《류다른 인연》, 《간동고개》, 《강보》, 《사랑의 힘》은 주인공의 성격발전을 보여주는 중요단계들이다.

작가는 이 단계들에서 주인공의 성격을 력점을 찍어가며 발전시키고있다.

소설에서 선애가 엄마가 되어 돌보는 정혜와 일남이의 인연관계는 우리들의 생활에서 보통 맺어지는 인연관계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사변속에 맺어지는 류다른 인연관계인것이다.

이 류다른 인연이 혈연의 관계로 되기까지에는 사회앞에, 아니 조국앞에 지닌 의무를 자각하고 사람을 바쳐가려는 한 인간의 량심과 헌신성이 놓여있다.

선애가 육아원에 가서 정혜네들을 돌보겠다고 결심하게 된것은 제 나이또래인 오덕재가 목숨바쳐 구원한 정혜네들을 저버린다면 후날 조국앞에 머리를 들고 살수 없다는 량심의 호소, 철없는 아이들에게서 부모를 빼앗아간 원쑤놈들에 대한 분노와 아버지를 잃은 자신의 뼈저린 원한, 모든 고통을 묵묵히 참고견디어내는 육아원사람들에 대한 존경의 소산이었다.

이 마음의 충격이 그를 곧 어머니로 되게 한것은 아니었다. 자기를 어린애로 취급하는 국장이나 조명섭의 수모, 부주의로 우유를 태워먹어 아이들을 굶게 하고 거기에 신발마대들 두개나 잃어버린 안타까움, 극진히 돌보아주느라고 했지만 끝내 도망친 옥주를 보면서 은연중 자기가 과연 그들의 어머니를 대신할수 있겠는가 하는 위구심, 이 모든것은 선애로 하여금 동요하게 만들었고 집으로 도망쳐갈 생각까지 품게 하였다.

주저하고 동요하던 선애가 새로운 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딜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소설은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이 나라의 고아들을 생각하시어 잠 못 이루시며 몸소 부모없는 아이를 최고사령부작전실에서 키우신다는 감동깊은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선애의 가슴속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며 새로운 결심을 안고 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딜수 있게 하였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친아버지가 되시여 돌보시는 아이들은 고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며 이 아이들을 돌보아 장군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일처럼 궁지롭고 영예로운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이 선애로 하여금 삶을 축복하는 자장가의 주인공으로 자라날수 있게 한 성격적행으로 된다.

작가는 이처럼 선애의 성격적행을 잘 그려주면서도 그의 성격발전을 추동하는 생활적계기들도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아이들에게 량심과 뜨거운 진실을 바쳐갈 때 무슨 일이든 못해낼 일이 없다는 강일범이의 따뜻한 고무, 한몫바쳐 마차를 구원하는 허진표의 량심적인 행동, 한개 전선을 지켜선 그 바쁜 몸이건만 하루밤이나마 아버지수령님께서 그렇듯 아끼시는 부모없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인정깊은 장령아바이, 육아원일이 고아들을 두고 몹시 심려하시는 장군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중요한 일이라는 최명아의 절절한 깨우침, 남을 위해 사랑을 바쳐가고있는 이런 인간들의 모습과 숨결은 선애의 애 어린 가슴속에도 흘러들게 된다.

이 모든것은 선애로 하여금 자기가 도달하여야 할 목표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 량심과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아득한 높이에 있다는것을 자각하게 하였다.

작가는 이처럼 선애가 지니고있는 동정과 인정을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려는, 장군님의 전사로 본분을 다하려는 비상한 각오와 헌신과 깨끗한 량심으로만 얻을수 있는 가장 숭고한 모성애로, 사랑의 극치로 승화시키고있다.

선애의 이 비상한 각오와 의지는 그대로 육친적정을 낳았고 그 사랑의 힘은 일남이가 우는 원인을 끝내 찾아냈고 사람들이 정혜를 데려다 기르려고 할 때는 결사적으로 달려가서 그를 데려다가 친형제와 같은 그들이 서로 헤어져 살지 않게 했으며 적란에 구멍뚫린 우유통에서 우유가 썰가봐 장갑과 함께 얼어붙은 손을 떼지 않고 끝내 육아원에 오게 했다.

하여 선애가 《엄마》가 되어 부르는 《자장가》는 이 나라 어린이들의 삶을 축복하는 가장 순결하고 뜨거운 사랑의 노래로, 하나의 대가정속에 혈육의 정을 나누며 화목하게 사는 이 나라 인간들의 한없이 숭고한 미의 세계를 감동깊게 노래하는 시대의 송가로 되었다.

중편소설 《자장가》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지니고있는 아름다움을 개성적인 성격속에 정서적으로 파고들어 작품에 차넘치는 뜨거운 인정미가 독자들의 가슴속에 그대로 흘러들게 하고있다.

소설은 도보전국장 전창규와 강일범, 허진표와 최명아의 성격을 개성적으로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작가는 전창규의 불붙는듯 이글거리는 날카로운 두눈, 성깔진 코날, 리해력이 없이 싸늘하고 엄엄한듯이 보이는 행동거지를 생동하게 그려주면서도 그 엄엄하고 매몰스러운듯한 행동속에 숨어있는 따뜻하고 무른 인정, 친절하고 사려깊은 마음을 섬세하게 그려주어 그의 뜨거운 인정세계가 더욱 부각되어 안겨오게 하였다.

자기의 온가족을 적들에게 잃고도 라순도의 가족을 찾아주고 육아원이 폭격에 맞을가봐 10리눈길을 맨발로 뛰어오는 그, 자기 딸과 같은 선애에게 자기때문에 기분이 거슬릴 때가 있었을것이

라고 사과하는 그, 육아원에서 일하는것을 은근히 불만스럽게 여기던 조명섭을 일깨워 중요한 책임을 맡기는 그의 모습은 전창규의 아름다운 성격미에 대한 진지한 탐구로 된다.

소설은 또한 강일범을 언제나 묵묵히 육아원일을 돌보는 원칙이 강한 미더운 인간으로 그리면서도 제 조카를 앞에 두고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양어머니에게 친딸이 아니라는것을 말하지 말라고하는 웅심깊고 인정미 넘치는 인간으로 형상하였다. 소설에서 허진표의 형상 역시 그의 량심적이고 청렴한 인간됨을 보여주는 동시에 육아원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정신세계를 지니고있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준것으로 된다.

이밖에도 소설은 최명아의 조용하고 다심한 성격과 함께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 대한 애정도, 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바치는 순결한 정신적미를 깊이 파고들어 그를 값높은 모성애를 지닌 조선녀성의 전형적성격으로 형상하였다.

소설은 이밖에도 한두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장령아바이, 오덕재, 윤혜경 등 아름다운 인정미를 지닌 인간들의 형상도 인상깊이 보여주고있다.

중편소설 《자장가》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어 애 어린 처녀 선애가 《엄마》로 자라나고 평범한 그들모두가 시대의 아름다운 주인공들로 자라날수 있었다는것을 생활적으로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불꽃튀는 전선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기다리지만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전화의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한 피살자가족을 찾으시고 부모없는 이 나라 아이들을 생각하시여 애육원도 세워주시고 새 정량표까지 만들어주시며 몸소 최고사령부작전실에서 나 어린 전재고아까지 키우신다.

하지만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전선동부 최전연초소에 나가셨을 때 군단장으로부터 한 나 어린 처녀가 엄마가 되어 아이들을 돌본다는 이야기를 잊지 않으시고 멀리 전선에 나갔나 오시는길에 육아원에 들리시여 우유를 가지려간 선애를 기다리기까지 하시다가 만나주신다. 그이께서는 새빨갳게 언 선애의 손을 주물러주시고 기총탄에 누렇게 탄 솜동복도 쓸어주시면서 그가 아버지의 복수를 천백배한 셈이라고, 이런 인민 앞에서는 그 어떤 강적도 백전백패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오덕재와 최명아가 세운 위훈도 높이 평가해주시고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으며 명아의 아들을 나라에서 말아키우도록 뜨거운 사랑도 베풀어주시였다.

소설은 이처럼 장군님의 이 크나큰 사랑의 품이 있어 선애가 나 어린 혁명의 복수자들을 키우는 어머니로 성장할수 있었고 수많은 전재고아들이 부모없는 설움을 가실수 있었으며 사람마다 나라를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참된 영웅

으로 영생할수 있었다는것을 뜨겁게 보여주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 소설이 시대의 송가로 될수 있는 생명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것이다.

중편소설 《자장가》는 소설의 극성을 보장하는 데서도 자기의 개성적특색을 가지고있는것으로써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있으며 작품의 사상을 심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소설에는 긍정인물과 부정인물의 직접적인 성격적충돌속에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인간들속에 오고가는 인정선을 통해서 극성을 보장하고있지만 작품은 강한 극적견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있다. 원래 전쟁주제작품은 그가 반영하는 생활의 특성으로 하여 그야말로 극적 사건과 사변들로 충만되어있다. 하지만 이 소설에는 긴박한 전투정황도, 격렬한 사건도 없으며 인간들간의 갈등도 없다.

소설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들은 모두 아름다운 인간들이다.

작가는 아름다운 인간들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것으로 작품의 극성을 보장하면서도 생활을 정서로 충만시켜 사람들에게 강한 극적감흥을 안겨주고있다.

이것은 우리들이 매우 귀중히 여기는 이 작가의 형상기교이기도 하다.

우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이 작가의 단편 소설들인 《7보총수》, 《또 만난 동무》, 《상봉》, 《함께 온 사람》, 《스승의 얼굴》들을 꼽아보아도 알수 있다.

그의 소설은 긍정인물과 부정인물의 직접적 대립과 충돌에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인간이 더 아름다워지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생활정서적으로 깊이있게 그려 시대와 인간에 대한 열렬한 긍정과 사랑과 애착을 한껏 터뜨리였다. 이런 창작적기교는 중편소설 《자장가》에서 더 세련된것으로 하여 우리들을 기쁘게 하여주고있다.

소설은 남의 사랑과 동정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인간이 남에게 사랑을 바치는데서 생활의 극을 찾고있다.

주인공 선애를 비롯하여 최명아, 강일범, 전창규, 라순도, 윤혜경 등 등장인물들은 모두가 불쌍한 인간들이다.

선애자신은 일찌기 가난에 짓눌리워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었고 추운 겨울에 누데기에 싸여 토방에서 울고있던 자기를 키워준 고마운 양아버지마저 원썬놈들에게 빼앗긴 불쌍한 처녀이다.

세포위원장 최명아는 남편을 잃은 녀성이며 강일범은 가난때문에 안해와 동생을 잃고 애오라지 홀로 남은 조카마저 돌보지 못하는 불행한 사연을 안고있는 사람이다.

라순도는 늙들때문에 가족의 생사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전창규는 적들에게 온 가족

을 모두 잃은 사람이다.

때문에 불쌍한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깡그리 바쳐가면서 그들이 겪는 극적체험세계는 것처럼 눈물겹고 뜨거운것이다.

작가는 다양한 인간들이 겪는 극적체험세계를 인정선속에서 서로 교차시키면서 작품의 극적견인력을 보장하고있다.

하여 소설은 독자들로 하여금 점점 작품에 흐르는 인정세계에 끌려들게 하고있으며 오래도록 자장가의 여운속에 깊이 심취되어있게 한다.

중편소설 《자장가》는 작가에 의하여 탐구되고 선택된 몇개의 인상적인 생활세부들로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의 기질과 성격, 일상생활의 심리적 움직임 등을 방불하게 안겨오게 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사색과 감동의 세계를 펼쳐주고있다.

조롱박처럼 오롱조롱 매달리는 아이들을 한품에 안고 애기방에서 깊이 잠든 장령아바이, 일남이의 앙징스러운 손에 쥐여져있는 장수별, 이 생활세부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날에 날마다 새롭게 발현되는 숭고한 인간적미가 혁명의 첫세대들이 지니였던 미래에 대한 사랑에 그 사상적기조를 두고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고있다.

선애가 세 아이들과 함께 생일연을 즐기는 생활세부, 파편에 맞아 구멍뚫린 우유통에서 우유

가 새내릴가봐 구멍을 꼭 틀어막고온 선애와 손이 장갑속에서 뽁뽁 얼어붙어 찬물을 끼얹어가며 겨우 때내는 생활세부는 그가 지닌 사랑이 혈육의 정으로 정화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깊이있는 미학적해명으로 된다.

소설은 이와같은 창작적성과와 함께 일련의 부족점도 있다.

작가는 소설의 성격형상에서 지나친 친절성으로하여 스쳐지나도 무방할것까지도 끈덕지게 파고들어 보여줌으로써 작품은 때로 탄력을 잃고 지루하다는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고있다.

특히 소설의 앞부분이 처진것으로 자여 작품은 첫인상을 흐리고있다.

또한 17살난 애어린 처녀의 성격, 선애와 아이들과의 교감세계를 파고들지 못한것으로 하여 주인공의 성격이 아쉽게도 더 잘 살아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소설은 시대정신의 구현에 있어서나 인간들의 미의 세계의 탐구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경지에 오른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소설에서 뜨겁게 울려오는 자장가는 오늘도, 래일도 우리 시대 인간들속에서 끝없이 꽃피나는 아름답고 숭고한 미의 세계를 노래하며 이 땅에 영원히 넘쳐흐를것이다.

정문환영

리영

시작이 들끓어서 좋다
일터로 손저어주던 가정의 바래움이
이제는 출근길에서 맞아주는
여기 비료공장 정문환영이

손에손에 꽃다발 흔들며 맞아주는
저 아이들, 저 너인들의 눈빛에
얼마나 간절한 부탁을 담았는가
구내길에 들어서서는 저 걸음들은
이 아침
얼마나 더 생각깊이 옮겨지는가

비료로 하여
그토록 마음씨오신 수령님의 가르치심
오늘은 유훈으로 새겨진 고장이어서
이 아침 첫 당부도 비료!
이 아침 마음속에 안아보는것도 비료!

비료로 하여
여기선 부부사이 주고받는 말도 더 뜨겁다
여기선 레사롭던 이웃들도 새롭게 만나고
여기선 유치원아이들의 생각도

어른들의 마음과 합쳐지누나

꽃목걸이도 필요치 않아라
피눈물의 자각과 맹세로 하여
여기선 누구나 다 혁신자
가슴가슴엔 만부하의 동음 쿵쿵 울리고
배관속의 열풍처럼
심장의 더운 피 세차게 끓어번진다

두리둥둥 북소리 더 높이 울리자
그리고 힘차게 걸음을 떼라
이 하루의 비료생산은 벌써 먹여놓은듯
첫 해빛도 저기 질안탑을 붉게 물들이는
홍남의 이 아침은 그 시작부터 들끓어서 좋다

수령님의 그 유훈 가슴마다 새겼기에
공장이라는 대가정에서
너인들도 아이들도 비료를 안고
함께 뛰고 함께 숨결을 같이하는
정문환영 여기서부터
더 높아지는 비료산은
벌써 보여오누나!

그날은 오리라

최정용

그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날에는
아버이수령님 비료의 하조장에 오시여
흰눈처럼 내려쌓이는 비료폭포 바라보시며
기쁘시여 밝게 웃으시던 그 모습 우러르며

허나 오늘엔 우리
더없는 피로움에 몸부림치노라
비료문제를 심려하시며
수령님 우리결을 떠나셨기에

우리 수령님
기쁨이시였고 걱정이시였던 비료!
진정 그 무엇으로 다 헤아리랴
그리도 자주 홍남땅을 찾으시며
비료때문에 기울여오신 그 심혈을

오늘에 더욱 못잊어 되새겨져라
높아진 생산량도 헤아려보시고
이밤은 편히 주무실수 있다 하시던
아, 수령님 그날에 하신 그 말씀이

가슴을 두드리고 땅을 쳐도
풀길 없는 한이기에
우리 일어섰노라
가슴에 불을 안고 일어섰노라
비료로 끼쳐드린 심려
비료로 가셔드려야 할
그 하나뿐인 맹세를 안고

있어 무엇하랴
홍남의 천심장 만심장
그리도 간절한 유혼 남기신
아버이수령님 그 뜻 받들지 못한다면
발생로의 불길은 힘차고

압축기는 거센숨 몰아쉬나니
눈물에 젖은 입술을 깨물며
우리 다진 맹세
결코 빈말로 남기지 않으리라

진정 가슴가슴에서 스스로 타오른
우리의 맹세
이제 다시 후회를 남기랴
결사의 각오로 우리
낮에 밤을 이어가거니

오늘에 비료의 무게는
우리 맹세의 무게
오늘에 비료산의 높이는
우리 신념의 높이

오로지 인민의 기쁨을 위해
수령님 걷고걸으신
그 잊을수 없는 들길우에
우리 기어이 만풍의 가을을 안아오리라
수령님 평생의 념원을
우리 기어이 꽃피우리라

오리라 그날은
기쁘시여 기쁘시여
경애하는 우리의 **김정일**동지
풍년든 별 한복판에서
해빛같은 미소 뿌리실 그날은
그이의 웃음어린 모습에서
위대한 수령님 모습 다시 뵈을 그날은

아, 그 하나의 일념을 안고
홍남땅은 들끓는다
목숨바쳐 서슴없을
홍남의 천만심장들이 맹세로 불탄다